“네가 이 오밤중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냐? 이 아비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냐?”

“…폐하.”

장신구 하나 없이 드레스만 갖춰 입은 채로 국왕의 집무실에 찾아온 케시아는 국왕의 물음에 아랑곳없이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또 다시 무릎을 꿇은 왕녀의 모습에 위스턴 국왕은 당연히 곱게 피고 있던 미간을 구길 수밖에 없었다. 대체 이 모습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왕은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탄식했다.

“케시아. 대체 무슨 이유로 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냐?”

“감히 뻔뻔하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제 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제금 이 아비를 협박하는 것이냐?”

국왕의 언짢은 목소리가 케시아를 향해 찔렀다. 하지만 케시아는 눈 하나 깜박 없이 고개를 저어 더더욱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일수록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질지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던가? 누구보다 자신의 한해선 마음이 약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한해선 크게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임을 알기에 케시아는 일부로 그 점을 파고들어 더더욱 깊이 허리를 숙여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폐하께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허면! 어찌 자꾸 네가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이면 이해를 했겠다만, 벌써 두 번째다. 왕국의 그것도 1왕녀인 네가, 왜 자꾸 그 귀한 무릎을 계속 꿇는단 말이더냐?”

처음과 달리, 점점 나약해지는 국왕의 목소리에 고개를 숙여 분위기의 흐름을 읽고 있던 케시아는 회심의 미소를 그렸다. 그리고 가장 처연하고 애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꾸어 고개를 들었다. 이 모습이 가장 국왕의 마음을 더욱더 흔들 것을 알기에 케시아는 구슬픈 목소리로 이번엔 살짝 눈물까지 흘려냈다.

“폐하께서… 이번에 제 혼인에 관한 문제를 귀족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왕국과 귀족들의 모범이 될 1왕녀로서 언제든지 그 혼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제 운명을 받아들이며 폐하께서 정해주신 가문과 혼인 할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그 생각이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냐?”

“…예. 1왕녀로서… 저는 폐하께서 정해주신 가문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케시아! 네가 지금 그것을 옳은 말이라 여기며 함부로 내뱉는 것이더냐?!”

국왕의 노기 섞인 목소리가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약히 딸을 봤던 표정은 분노로 뒤바뀌어 있었다. 거기에 이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국왕이 책상을 내려쳤지만, 그럼에도 케시아는 눈물방울을 떨어트리며 나름 눈물을 견뎌내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자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함부로 뱉어낸 말이 아닙니다. 폐하의 자식으로 제1왕녀로서 태어나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왕녀로서 폐하의 자식으로서 귀족과의 혼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왕실의 번영을 위해 제가 얼마나 제 일을 똑바로 해야 할지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찌 네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네가!!”

“감히 1왕녀로서 갖지 말아야할 사랑이란 마음을 그것도 다름 아닌 제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니? 국왕은 도무지 믿기지 않은 눈으로 제 딸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분명 두 눈이 마주쳤음에도 두 눈에 마를 새 없는 눈물만이 흘러내릴 뿐, 흔들림조차 없는 그 눈동자에 위스턴 국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털썩 주저 않았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되도록 크게 신경 써야 할 일은 피하고 있었건만, 딸의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고백에 국왕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해 이마를 짚어야만 했다.

“그게 누구냐. 어느 가문의 자식이냐. 대체 어느 가문의 자식이기에 너를 이리 만든단 말이냐!”

“폐하… 그건….”

“어찌 말을 하지 못─!”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국왕의 머릿속을 어렴풋이 지나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떡해서든 라인하르트 후작의 차남을 자신의 호위기사로 만들어달라던 케시아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그 일을 빌미로 후작과의 거래를 했지만, 그 거래를 하면서도 국왕은 나름 그 찝찝함을 벗어던질 수 없었다. 그런데 모든 조각이 맞물리듯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케시아에게서 전혀 볼 수 없던 돌발적인 행동과 호의라고 하기엔 너무도 지나친 라인하르트 차남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날과 변함없이 똑같은 상황. 국왕은 설마 하는 눈으로 케시아를 보며 물었다. 지금 이 설마라는 느낌이 확신이 아니길 바라며.

“케시아.”

“…예, 폐하….”

“너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장자인 클로드 경이 아닌, 그 둘째 아들에 네 마음을 준 것이냐? 너에게 그런 굴욕을 줬던 그를 말이냐?”

“…예, 폐하.”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찌!!”

결국 아니길 바란 마음과 달리, 딸의 입에서 나온 확정의 대답에 국왕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다시 벌떡 일어나야 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케시아의 바로 눈앞에 도착한 국왕은 딸의 눈높이와 맞춰 케시아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소리쳤다.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클로드 경이 아닌, 후계자조차 될 수 없는 차남 따위에게 마음을 준단 말이더냐!!”

“폐하… 아니,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 눈이 계속 그를 찾아 해매고, 그 사람이 아프면 저 역시 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그놈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마저 모두가 안 된다는 말만 한단 말인가. 그가 차남이기에? 고작 가문을 이어받을 수 없는 위치라서? 그깟 가문이 뭐기에. 후작이란 자리가 대체 뭐기에 차남도 아닌, 자꾸만 후계자인 자제들과 자신과의 혼인을 엮으려 그토록 안간힘을 쓴단 말인가.

루드비카에게 고백하기 전의 자신이었다면 그저 눈물을 흘리고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고백과 동시에 비참하게 거절당한 그날의 기억. 그리고 호의를 보여줬음에도 끝끝내 자신의 호위기사 자리를 거절한 치욕스러운 기억과 그 모든 거절 속에 그가 오로지 받아들인 한 사람, 헤르세인. 용서할 수 없었다. 반드시 루드비카는 자신의 곁에 있어야 했으며 어울리지도 않은 헤르세인의 곁 따윈 용납할 수 없었다. 더더욱, 헤르세인과 도망치는 꼴 따위 두 눈뜨고 내버려둘 순 없었다.

눈물이 안 된다면 목숨으로. 목숨조차 안 된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두 사람을 반드시 떨어트려 놓으리라. 그리고 루드비카를 꼭 손에 넣고 마리라.

케시아는 이 상황을 대비해, 미리 품속에 숨겨 놓았던 손바닥 크기의 단검을 꺼내들어 검 집을 집어 던지고 날카로운 칼날을 제 목에 겨누어 국왕에게 외쳤다.

“케, 케시아!!”

“폐하께서 가장 아끼고 예뻐하시는 친딸을 바로 눈앞에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사람을 제 정인으로! 제 약혼자로! 제 사람으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허락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가 감히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정녕 미치기라도 한 것이냐?!”

“예! 미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미쳤습니다!! 그러니 제게 그 사람을 주십시오! 제 곁에, 제 눈앞에! 그 사람의 두 발을 속박해도 좋습니다! 두 손을, 온 몸을 속박하여도 좋으니! 그 사람을 제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더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사람을 제 것으로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독기가 아닌, 거의 광기에 물들어 눈이 뒤집힌 딸의 모습을 처음 접한 국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 보단, 케시아의 현재 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어여삐 키운 자신의 딸. 비록, 원치 않은 정략혼인이었으나 제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장자를 태어나게 한 것은 물론, 왕후를 전혀 닮지 않은 딸까지 태어난 덕에 국왕은 특히 케시아를 예쁘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왕녀는 누가보아도 치를 떨게 만들 정도로 똑 닮은 여인의 모습이 비쳐졌다. 보고 싶지도, 외면하고 싶어도 철저하게 자신을 갉아먹는 왕후,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누구보다 닮은 케시아. 광기와 집착에 물들어 이젠 본인의 목숨으로 협박까지 하는 케시아의 모습에 국왕은 간신히 얼어붙은 입을 떼어냈다.

“케시아, 그게 정녕… 네가 원하는 것이냐? 네가 이렇게 미쳐버릴 만큼? 이 아비에게 네 목숨으로 협박할 만큼?”

케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광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집착으로 얼룩진 눈으로 국왕의 눈을 피하지 않을 뿐. 오히려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로 목을 그어버리겠다는 표시로 날붙이를 바짝 목에 붙이자, 어느새 케시아의 목에는 붉은 생채기가 그어져 있었다. 결국, 무슨 말을 해도 꺾이지 않을 케시아의 모습에 국왕은 아프게 눈을 감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니 이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놈을 네 곁에 붙이는 것 밖에 없겠구나….”

“...”

“짐은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오늘부터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공자는 케시아 왕녀의 사람이자 오롯이 왕녀의 것이며, 그 누구도 너의 사람을 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를 너의 약혼자로 그리고 라인하르트 후작과 의논하여 빠른 시일 내에 너의 약혼식을 올리도록 하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제 청을… 들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챙그랑, 하고 날붙이가 바닥에 요란스럽게 떨어지며 케시아의 손에서 완전히 단검이 벗어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왕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닌지, 흐느적거리며 제자리에서 일어난 케시아는 여전히 어둡게 물들여진 눈으로 국왕을 보며 이번엔 또 다른 청을 당당히 요구했다.

“폐하, 또 다른 청이 있습니다. 아니, 제 청을…, 들어주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왕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자, 폐하께도 가장 긴박한 문제이니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울고 있던 부엉이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은 부엉이 소리대신 창밖에는 거친 빗소리가 루드비카의 행동을 더욱 서두르게 만들었다. 늘 입고 있던 기사의 제복이 아닌, 평복을 구해 갈아입은 루드비카는 대충 필요한 짐을 꾸리며 더욱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충 이정도면 됐겠지….”

필요한 금품과 비상시에 쓸 예비 보석 등등 전부 짐 속에 꾹꾹 담은 루드비카는 이제라도 빨리 서두르고자 짐을 울러 메고서 침대를 벗어나 침실의 문이 아닌, 비가 쏟아지고 있는 테라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내려 테라스에서 벗어나 빗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층의 높이에서 바닥까지 착지한 루드비카는 비를 흠뻑 맞으며 주변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마구간으로 향했다.

마구간에 도착하자,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마구간지기가 나타나 안장이 얹혀 있는 말 한필을 끌고서 루드비카에게 고삐를 넘겼다.

“도련님. 정말로 그냥 가시려는 겁니까?”

마구간지기가 안쓰러운 얼굴을 하며 루드비카가 다시 생각하길 바랐지만, 루드비카는 옅게 웃고 있을 뿐, 울러 메고 있던 짐을 안장에 실어 단숨에 말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고삐를 쥐어 서두르기 전,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마구간지기에 루드비카는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내 어려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도, 도련님!”

마구간지기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루드비카는 양쪽의 다리를 움직여 말의 허리를 쳐냈다. 히이잉하고 말이 우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걷던 말이 순식간에 속도를 내어 저택을 지나 정문에 다다를 쯤, 루드비카는 고삐를 세워 말의 움직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눈앞의 정문을 두고 그곳을 가로막은 철옹성 같은 한사람을 보며 루드비카는 피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향할 곳은 오로지 앞 밖에 없는 굳은 결의를 보이며.

“비켜 주십시오. 형님.”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그리고 얼음 같은 땅. 한 겨울에 내리는 차디찬 빗물은 사람의 체온을 급격히 내릴 정도로 더욱더 하늘에서 차가운 눈물을 뿌렸다. 그러나 온 몸이 홀딱 적셔짐에도 그 누구도 제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자로서 자란 클로드. 사생아로 태어났으나 그것을 감추고 후작의 차남으로서 귀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자란 루드비카. 두 사람의 엇갈린 각기의 다른 색의 눈동자가 교차했지만 클로드도, 루드비카도 그 자리에 심어진 단단한 나무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루드비카. 지금당장 말을 돌려 저택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켜주십시오, 형님.”

루드비카를 막아섰던 그날, 루드비카 뿐만이 아닌 클로드의 얼굴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뺨에 새겨진 싸움의 흔적. 그리고 루드비카 보다 더 큰 상처자국이 남은 클로드였으나, 클로드에게 있어 상처자국은 그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 아무렇지 않은 스친 상처에 불과했다. 비록, 루드비카에게 졌으나 그것을 단 한 번도 굴욕이라 생각하지 않은 클로드는 다시 한 번 검을 들어 루드비카에게 겨누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돌아가. 네가 있어야할 원래의 장소로. 그리고 네 형으로서 부탁하는 것이다. 루드비카.”

그저 장남으로서 후계자로서 기사로서가 아닌, 루드비카의 형제로서 형으로서 클로드는 처음으로 부탁했다. 명령도 강요도 그 어느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형으로서의 부탁. 그 부탁임이 생전 처음임을 알고 있음에도 루드비카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있어야할 원래의 장소는 이곳, 라인하르트 저택이 아닌 그녀의 곁임을.

“제가 있어야할 곳은 이곳이 아닌, 제가 사랑하는 이의 곁입니다. 그러니 저도 형님께 처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의 곁으로.”

“여기서 나간다면 너는 두 번 다시 라인하르트 가문의 사람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전부 버릴 수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널 있게 한 가문의 명예도 재력도 권력도! 전부!!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넌 버리겠다는 것이냐?! 루드비카!”

그저 사랑하는 이의 곁에 영원히, 평생을 있고 싶을 뿐인데 재력도 권력도 명예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던가. 아니, 애초에 그것들은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가문의 것이자 가문의 피를 이은 자신을 추켜세우는 장신구에 불과한 것일 뿐.

“그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님임을 누구보다 형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작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기에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을 놓고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또… 형님께선 누구보다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언제나 팔푼이처럼 행동하는 루드비카를 클로드는 못 마땅히 여겼다. 특히나 아버지와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난 루드비카의 존재를 그 어린 시절 처음 알았을 때. 자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떠나 사생아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하찮게 여겼던가. 하는 행동하나하나 마뜩치 않았던 어리석은 동생. 그러나 함께 오랜 산 세월의 힘을 부정할 수 없던 것인지, 그 속에 어쩌면 나름 ‘정’이란 것이 존재했던 건지도 몰랐다. 그것도 단순한 정이 아닌, ‘미운 정’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토록 루드비카가 한심하게 보이면서도 제 자신이 더 화가 난단 말인가.

끝내 클로드는 루드비카를 향해 겨누던 검을 치우며 여전히 눈은 루드비카를 마주한 채로 그 진심을 물었다.

“우리 가문을 뒤집어 놓을 만큼,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만큼… 너는 그분을 놓을 수 없는 것이냐?”

비록 검을 겨누고 있진 않았지만 클로드의 눈빛은 또 다른 검처럼 예리하게 루드비카의 전부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닮은 구석조차 없는 머리색이며, 눈동자 색. 그리고 얼굴과 성격까지. 자신의 동생이라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 어느 한구석조차 닮은 구석이 없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클로드는 전부 담아냈다.

그 모습이 전부 클로드에게 담겨지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루드비카는 천천히 입을 떼며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다.

“…예, 저는 저의 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꽃이 죽으면 저도 시들어 죽고, 그 꽃이 없는 세상은 저 역시 살아갈 수 없으며, 그 꽃이 살아가는 세상이 곧 저의 세상입니다.”

대체 그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저토록 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지 클로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 정도로 그 사랑이란 것에 전부를 내놓았다. 가문을 저버리면서까지 오직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는 신념만으로.

스르릉, 소리를 내며 클로드는 검을 도로 검 집에 꽂아 다시금 루드비카의 눈과 마주했다. 그리고 한발자국 옆으로 물러나는 동시에 클로드는 루드비카를 놓아주었다.

“가거라, 루드비카.”

“…형님.”

“그 누구에게도 네가 잘 살고 있음을 알리지 말아라, 더욱이 아버지의 손에 절대로 잡히지 말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배려이자 마지막이다.”

더 이상,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다. 오직 시선은 저택만을 향해 있을 뿐, 이랴 소리를 외치며 말을 모아 자신의 곁을 지나는 루드비카의 뒷모습조차 클로드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스쳐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클로드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하는 감사의 인사일지 모를 루드비카의 인사를.

"감사합니다, 형님."

루드비카가 말을 몰고 완전히 저택 바깥으로 벗어나자 뒤늦게 병사를 몰고 달려오는 후작의 모습이 클로드의 시선에 잡혔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루드비카의 뒤를 바짝 쫓지 못하도록 클로드는 정문을 가로막아 노기에 가득 찬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해야 했다.

“클로드,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네가 어찌 루드비카를 놓아줄 수 있느냐!”

“하도 하는 짓이 딱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 죽고 못 사는 사랑이란 것에 너무도 한심하게 보여 보내주었습니다.”

“클로드!!”

“어찌 형이 된 자로서 아우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오늘 루드비카의 형으로서 아우를 위해 안하던 짓을 해보려 합니다. 절 죽이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곳을 못 지나가십니다. 아버지.”

비밀통로를 지나 비밀의 집에 도착한지 어언 한 시간. 먼저 도착한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담긴 마음으로 느릿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를 기다려야 했다.

“루카. 어서 빨리 와….”

괜한 불안과 초조함에 그것을 지우고자 아이가 매달리듯 헤르세인은 짐을 품에 끌어안으며 불조차 켜지 않은 채로 루드비카를 기다렸다. 어느 정도 멎어진 천둥의 소리. 하지만 계속해서 창문을 적셔가는 빗줄기를 볼 때면 이 비가, 오래가리란 생각이 들 때였다.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말소리와 질척한 땅을 밟는 소리. 그리고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리면서 그림자에 가려진 누군가가 비밀의 집에 들어섰다.

“…루…카?”

“헤세!”

“루카!”

초를 켜지 않아 루드비카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헤르세인을 안심할 수 있었다. 거의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루드비카를 기다리던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품에 달려가자, 루드비카 역시 헤르세인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언제부터 여기서 기다린 건가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 그리고 불안했어. 혹시라도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그녀를 품에 안고 있음에도 여리게 떨고 있는 그 떨림을 느꼈는지 루드비카는 안쓰럽게 미소를 지으며 헤르세인을 더욱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어서…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절대로 헤세의 곁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평생을, 당신의 곁에 있기로 맹세했으니까.”

“…루카….”

“계속 이렇게 안고 싶지만 이제 서둘러야 해요. 수도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동이 트면 눈에 띄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응.”

품에서 조심히 그녀를 떼어낸 루드비카는 근처에 있던 자주 쓰는 로브를 들어 직접 헤르세인에게 씌워 주었다. 혹시라도 얼굴을 가린 로브모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목 주변을 꽁꽁 묶은 루드비카는 살짝 떨고 있는 헤르세인의 손을 꼭 잡고서 안심할 수 있도록 눈꼬리를 휘었다.

“헤세, 걱정되나요?”

“…조금은.”

“그럼, 걱정하지 않게끔 제가 이 손을 꽉 잡고 있을게요. 그럼 안심이 되겠지요?”

꽉 잡은 루드비카의 손에서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가 불안을 지워내고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역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으로 루드비카를 향해 대답했다.

“나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당신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단히 붙잡은 서로의 엉킨 손. 손가락 하나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을 서로가 보이며 두 사람은 서둘러 비밀의 집을 나섰다. 루드비카의 도움으로 말 위에 올라탄 헤르세인은 겨우 안장위에 탈 수 있게 됐지만, 처음 타보는 말과 말의 높이로 인해 몸이 바짝 긴장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뒤에 앉아 탄탄한 몸을 세워 고삐를 쥔 루드비카가 헤르세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떨어지지 않도록 제 허리를 꽉 잡으세요. 그리고 너무 몸을 긴장시키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응.”

루드비카의 허리를 감싼 헤르세인이 어느 정도 몸에서 긴장을 풀어내자, 그녀의 긴장이 풀리길 기다리던 루드비카는 살짝 미소 짓고는 양쪽 다리를 움직여 말의 허리를 차, 말을 몰기 시작했다.

“이랴!”

말을 힘차게 몰아 루드비카는 곧장 수도를 벗어나 완전히 왕도에서 빠져나갈 수도 검문소 쪽을 향해 달렸다. 일단 왕국을 벗어나기 위해선 수도의 첫 번째 검문소를 제일 먼저 통과해야 했으며, 특히나 이런 궂은 날씨일수록 관무소의 경계가 느슨하기 마련이었다. 세찬 빗줄기로 인해 말을 몰기가 어려웠지만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왕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엔 지금이 아니면 적격인 때가 없었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 루드비카는 최대한 말의 속도를 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말의 속도는 늦춰질 새도 없이 보이지 않는 검문소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갔다. 거친 바람이 불어도 빗물이 눈앞을 방해해도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은 오직 수도를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에, 왕국 전체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거친 날씨 속을 헤쳐 갔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서야 드디어 희미한 등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검문소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지한 루드비카는 말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며 어느덧 검문소의 바로 근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말에서 내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신분증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곳을 통과할 수 없소.”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인지 검문소를 지키는 병사는 많이 느슨해 있었다. 거기다 또 다른 동료 병사는 어디에 가고 없는지, 두 병사만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유심히 주변을 살피던 루드비카는 헤르세인함께 말에서 내려 작게 속삭였다.

“헤세, 걱정하지 말아요. 이곳 경계가 많이 느슨해서 제 신분증을 보여준다면 금방 통과될 거예요.”

헤르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보다 더욱 루드비카의 품에 바짝 붙자, 루드비카는 짐 속에 넣어둔 신분증을 꺼내어 문을 지키고 있는 두 병사들 앞에 내밀었다.

“라인하르트 가의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입니다. 급히 라인하르트 영지에 갈일이 있어서 그러니 서둘러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만.”

가짜로도 만들 수 없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신분증이 내밀어지자, 두 병사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곤 루드비카를 향해 아까와는 다른 말투로 깍듯이 대했다.

“라인하르트 공자님이셨군요. 몰라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공자님, 실례지만 공자님과 함께 말에 오르신 저분의 신분증 검사도 절차상 밟아야하니 죄송하지만, 저분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면 합니다만.”

자신의 신분증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건만, 하필 그녀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병사의 반갑지 않은 꼼꼼함에 루드비카는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헤르세인 역시 자신의 신분증을 달라는 병사의 말이 가장 당황스러웠다. 슬럼가에서 살 땐, 어떡해서든 그곳을 벗어 자고나 위조신분증을 얻기 위해 그토록 돈을 모으곤 했지만, 정작 수도로 들어와 왕성에 살게 되면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순간에 신분증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 신분증을 전혀 생각지 못한 안일함에 헤르세인은 제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단히 어깨를 잡는 커다란 손길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를 쳐다보자, 이미 루드비카는 빠르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병사들에게 대답했다.

“지금 다시 돌아가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정말로 영지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제 신분증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공자님, 절차가 절차인지라….”

“정말로 안 되겠습니까?”

루드비카가 간곡한 표정으로 두 병사에게 부탁하자,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졌는지 두 병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곤 오늘만이 예외임을 강조했다.

“어쩔 수 없군요. 공자님께서 그리 말하시니 오늘만 예외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진 표정을 짓던 두 병사는 어째서인지 헤르세인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무기를 꺼내드는 것은 물론, 그녀를 향해 겨누며 루드비카에게 왕실의 전언을 전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 혼자 가신다는 전제 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함께 계시는 저분과 같이 검문소를 통과하신다면 ‘저희들은’ 왕실의 명을 받아 두 분을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숨어 있었던 건지 헤르세인과 루드비카의 주위로 수 십 명의 병사들이 에워싸 도망치지 못하도록 창과 검을 겨누며 단단히 경계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왕실의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두 사람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왕실의 명을 받아 검문소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병사의 말을 똑똑히 들은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은 공통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가 국왕밖에 없음을 알아챘지만,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에겐 이 검문소를 지나는 문제가 더 시급했다.

“헤세.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자신을 보호하며 주변을 경계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자신이 없었다. 어째서 왕실의 병사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숨어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처음엔 왕비의 눈을 피해 도망치려 했으나, 오히려 왕비는 도망치려는 자신에게 끼고 있던 장신구를 모조리 내주며 떠날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간신히 루드비카를 만나 겨우 여기까지 왔건만, 수도를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검문소에서 제대로 도망칠 수도 없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다.

서서히, 다시금 불안이란 감정이 발밑에서 차오르고 있을 때, 헤르세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라는 루드비카의 작은 목소리 덕분이었다.

“헤세, 제가 신호하면 도망치세요.”

“도망치라니…? 그럼 루카, 당신은?!”

“저는 헤세가 도망치면 곧바로 병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간 따돌린 다음, 곧바로 뒤를 쫓아갈게요. 그러니, 제가 신호하면 빨리 도망치세요.”

“싫어. 이 손 먼저 놓지 않기로 했잖아. 왜 나보고 먼저 도망가라고 하는 거야? 싫어. 난 당신이랑 같이 갈 거야!”

어린아이 같은 괜한 투정임을 알면서도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손을 놓고서 홀로 도망칠 수 없었다. 어떻게 루드비카 홀로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손을 놓지 않으려 손에 더욱더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바람과 달리, 루드비카의 목소리는 너무도 절실했다.

“헤세, 이렇게 부탁할게요. 저 역시 붙잡히지 않도록 할 테니, 절 믿고 도망쳐주세요.”

“…루카.”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둘 다 영영 도망칠 수도, 이대로 완전히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루드비카의 간절한 눈빛이 헤르세인을 향해 말하자, 결국 헤르세인은 받아들여야 했다. 서서히 깍지를 끼고 있던 서로의 힘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벌려 헤르세인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과 거리를 계산한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손을 놓는 동시에 신호를 외쳤다.

“헤세! 도망쳐요!!”

루드비카의 신호를 받고서 헤르세인은 입술을 깨물며 전력을 다해 검문소를 지나쳐 뛰어갔다. 그러나 하늘은 기어코 두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걸까? 얼마 뛰지도 못한 채, 헤르세인은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어둠속에서, 비가 흠뻑 내리는 와중에도 마치 병사가 무장하듯 드레스를 한껏 갖춰 입은 케시아의 모습. 직접 기사가 씌워주는 우산아래에 케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당당한 표정으로 비릿한 미소를 그리며 헤르세인의 앞을 막아섰다.

큰 뜻도 없었다. 그저 루드비카와 함께 있고 싶다는 단 하나의 바람으로 도망치고, 그렇게 단 둘이서 오롯이 함께하고 싶었을 뿐. 하지만 허무하게 잡혀버린 몸과 강제로 다시 되돌아 오고야만 왕성. 이미 헤르세인의 전신을 가린 로브는 케시아의 명으로 병사들의 손에 버려진지 오래였다. 치맛단이 흙탕물로 지저분해질 정도로 헤르세인은 비에 홀딱 맞은 채,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거대한 회장의 가운데에 서자, 이번엔 강제로 무릎이 꿇리고 말았다.

헤르세인 뿐만이 아닌, 루드비카 역시 속박당한 채로 강제로 무릎이 꿇리자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단상 위에서 드높게 내려다보고 있던 위스턴 국왕은 작은 손짓의 신호로 주변에 있던 병사들을 세발자국 물리게 하며 입을 열었다.

“내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아라네아 왕비의 딸, 헤르세인 왕녀.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아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공자. 그대들이 어째서 이곳에 끌려왔는지, 그것도 내 두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알고 있나?”

높은 단상에 위치한 눈부신 왕좌에 앉은 위스턴 국왕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회장을 근엄하게 울려 퍼지는 국왕의 진중한 목소리만 가깝게 들리고 있을 뿐. 헤르세인도, 루드비카도 어째서 국왕이 이렇게까지 병사들을 움직여 자신들을 잡으라 명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더욱이 케시아 왕녀가 두 사람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며 가장 화려하게 미소를 짓던 케시아 왕녀.

루드비카는 병사들을 신경 쓰느라 그 미소를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헤르세인은 가까이서 그 미소를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불안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단단히 무언가 있는 정체모를 미소. 그 미소가 너무도 소름 돋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 헤르세인은 그 모습을 기억에서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때, 검문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워내려던 헤르세인에게 국왕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들렸다.

“헤르세인 왕녀. 아니, 헤르세인. 너를 이렇게 보는 건 두 번째로구나. 너와 짐이 처음 만났던 연회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갑자기 연회 때의 일을 꺼내는 국왕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여전히 시선은 깊이 내리깐 채로 작게 입을 열어 대답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돌이키며.

“예, 폐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제가 폐하께 인사를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래, 너와의 첫 만남이자 정식으로 왕녀로서 처음 서로를 마주한 날이기도 했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한 여인의 사생아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한 날이기도 하다.”

“...”

설마 국왕이 직접적으로 ‘사생아’란 단어를 굳이 언급할 줄은 몰랐었다. 헤르세인은 국왕의 직접적인 언급에 처음엔 움찔했지만 맨바닥을 짚고 있는 두 손에는 이미 작게 주먹을 그러쥐고 있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국왕이 이제 자신에게 말할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슬럼가 출신인 너를 고귀한 왕가의 사람으로 입적 시켜주었다. 하물며 전례가 없는 왕실 혈통이 아닌 사생아를 감히 귀한 왕녀의 자리까지 내주었지. 허면 그것만으로도 복에 겨워할 것을 제 처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한 것을 탐내다니!”

어째서, 모두가 안 된다고만 하는 걸까. 그깟 출신 성분이 무엇 이길래. 왕실의 혈통이 무엇이고 귀족이란 그 고귀한 신분이 무엇이기에, 고귀하지도 혈통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자신이 사생아란 이유만으로 왜 모두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일까.

작게 그러쥐고 있던 주먹은 어느새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을 떨고 있었다. 그것은 제 처지에 대한 분노가 아닌, 모두에게 향한 국왕에게 향한 분노였으며 자신을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아야한다, 속박하는 세상에 향한 증오이기도 했다.

“왜… 제가 탐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고작 사생아이기 때문에 탐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고귀한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자는 작은 욕심도 제 마음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엄하다! 헤르세인!!”

“저도 사람이고! 사생아인 것을 떠나 그저! 한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사생아이기 때문에요? 고귀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국왕폐하께선 그럼 대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겁니까!! 일반 백성보다 못한 슬럼가 출신인 그리고 사생아인 제가! 그저 귀족가의 한 사람을 마음에 품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 하시면 대체 폐하께서는 저 같은 백성들을 어찌 보신단 말입니까!!”

그때, 쾅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위스턴 국왕은 새빨갛게 붉어진 진노한 얼굴로 헤르세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감히 국왕에게 그딴 망발을 지껄이다니!! 좋다! 그토록 이유를 듣고 싶거든 말해주마! 어째서 그보다 더한 것을 탐내면 안 되느냐 물었느냐? 헤르세인 왕녀! 너는 감히 일국의 왕녀의 남자를 빼앗으려 한 것은 물론, 약혼이 내정된 왕녀의 남자와 함께 도망치려 했다!”

“그게 무슨...”

헤르세인은 흔들리는 시선으로 바로 옆에 있던 루드비카를 쳐다보았지만, 루드비카조차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는지 흔들리는 눈을 하며 헤르세인의 눈과 마주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닌, 국왕의 진노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 줄 아느냐?! 일국의 왕녀의 남자를 빼앗으려던 죄! 그자와 함께 도망치려 한 죄! 그리고 감히 국왕에게 그딴 망발을 올린 죄!! 헤르세인 왕녀! 너는 크나큰 중죄를 지었다! 그저 내가 친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라네아 왕비의 딸이라 불쌍히 여겼거늘!! 감히 내게 가르치려 들다니!! 여봐라! 병사들은 무엇 하느냐! 어서 죄인 헤르세인 왕녀를 감옥에 투옥하라!”

국왕의 명으로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움직여 헤르세인을 강제로 일으켜 감옥으로 끌고 가려 하자, 헤르세인은 아직도 국왕이 방금 전에 외친 그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었다. 어떡해서든 안간힘을 써, 병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단상의 계단 근처까지 앞으로 나온 헤르세인은 버티겠다는 일념하나로 무릎을 꿇어 국왕을 향해 크게 외쳤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왕녀의 남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녀의 남자란… 아니, 그 왕녀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헤르세인의 절박한 외침이 회장을 크게 울렸음에도 국왕은 싸늘히 내려 보고 있을 뿐,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국왕을 대신 해, 그 이유를 설명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리자 헤르세인은 돌아가지 않은 고개를 기어이 돌려 그녀의 동선과 맞춰 고개를 움직였다. 그리고 한 걸음 차이로 벌어진 그 간격에 멈춰선 케시아가 짙게 입꼬리를 올리며 헤르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나란다. 헤르세인. 라인하르트 공자… 아니, 이제 루드비카 공자라 부르는 게 낫겠지? 루드비카 공자는 이제 곧 나의 약혼자가 될 것이란다. 그리고 머지않아 혼인을 치룰 것이지. 그러니 그는 내 남자고, 내 연인이지. 또, 너는 감히 나의 연인을 빼앗고, 내 연인을 홀려 함께 도망치려던 죄인. 이제 알겠니? 그는 이제 ‘네 사람’이 아니야. ‘내 사람’이지.”

“…거짓…말….”

“병사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죄인 헤르세인을 감옥에 투옥하라는 폐하의 명을 듣지 못한 것이냐!!”

케시아의 목소리가 퍼지자 병사들은 다시 헤르세인 주변으로 몰려와 억지로라도, 질질 끌어서라도 데려가고자 양팔을 붙잡아 회장 바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헤르세인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루드비카를 완전히 지나치기 전에,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자 헤르세인은 그제 서야 정신을 차려 몸을 처절히 움직이며 거세게 저항했다.

“시, 싫어… 놔! 이거 놔!! 아, 안 돼! 루카! 루카!! 루카!!!”

“헤세! 헤세!!”

닿지 않는 루드비카와의 거리. 그를 향해 닿지 않는 손을 뻗듯, 루드비카 역시 헤르세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절대로, 이 두 손을 놓지 않겠다던 약속.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붙잡겠다는 맹세. 하지만 아무리 그 손을 뻗으려 해도 손끝을 움직여 잡으려 해도 엇갈리듯 서로의 손은 끝내 닿지 않았다. 점점 멀어져가는 거리와 핏발이 서도록 한 없이 외치는 서로의 이름.

“루카아아!!”

그가 저곳에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저토록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왜 이 손은 이렇게 짧기만 한 걸까.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닿을 수 있도록 바라고 또 바라는데, 왜 이 손은 그에게 닿지 못하는 걸까.

서서히 문이 닫혀갔다. 문과 문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그 문틈 너머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진 순간, 헤르세인은 더 이상 그 이름도, 그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굳게 닫힌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완전한 시야를 차단했을 때, 헤르세인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편이 아님을. 자신은 그 어떤 욕심도 낼 수 없음을. 그리고 이것이 이별임을….

위스턴 국왕의 전갈을 받고서 급히 국왕의 집무실에 도착한 후작은 그 전에 만난, 어딘지 정신을 놓아버린 루드비카의 모습에 놀랄 기세도 없이, 국왕의 갑작스러운 또 다른 선언에 다른 의미로 당혹스러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케시아 왕녀전하와 루드비카의 약혼을 진행하시겠다니….”

루드비카를 선처하겠다는 국왕과의 거래로 후작은 아직 귀족들에게 확정을 내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혼담을 국왕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혼담의 주인공은 당연하게도 장남이자 후계자인 클로드였으며, 누구보다 국왕은 케시아 왕녀의 짝으로 클로드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반 정도 거래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본격적인 혼담을 진행하고자 했건만, 어째서인지 클로드가 아닌, 뜬금없이 루드비카로 바꾸자는 국왕의 말이 후작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작과 달리, 케시아의 또 다른 모습과 후작의 둘째 아들이 아니면 제 목숨을 스스로 끊을 케시아의 지독한 행동에 국왕은 결국, 제 딸을 살리고자 딸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위스턴 국왕은 작게 한숨을 토해내며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유를 설명해야 했기에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마시며 국왕은 알코올에 적셔진 떫은 입을 열었다.

“말 그대로라네. 짐은 그대의 장자인 클로드 경이 내 딸의 짝으로 가장 적합한 짝이라 생각했네만, 정작 딸은 클로드 경이 아닌, 차남에게 마음을 줬더군.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 말씀은….”

“내 일생에 그런 딸아이의 모습은 처음 봤다네.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 아이라 생각했지만 워낙 왕녀로서 제 몫은 잘 하는 아이이기에 그저 귀엽게만 보였지. 허나, 그 광기가, 그 집착이 케시아 본인의 목숨을 내 놓을 정도로 그대의 차남을 간절히 원하네. 케시아를 살리기 위해선 케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네.”

“그것이… 루드비카와 케시아 왕녀전하의 약혼… 입니까?”

국왕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후작은 쓰리게 눈을 감으며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만져줘야 했다. 작은 두통에 소리 없이 신음을 삼키는 후작과 달리, 어느새 위스키 병의 반을 마신 국왕은 또 다시 빈 잔을 내려놓고서 다음 말을 이어갔다.

“혼인이 성사 되도, 그대의 가문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니 걱정 말게. 비록, 클로드 경을 케시아의 짝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어떡하겠는가. 케시아가 그토록 루드비카 공자를 원하는 것을. 나머지 얘기는 해가 뜨면 그때 다시 얘기합세. 그러니 오늘은 대충 상황만 알고 돌아가 주게. 그대의 아들과 함께 말이네.”

국왕의 집무실에서 나와 병사의 안내를 따라, 어느 한 응접실에 도착한 후작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또 다른 한숨이 나오고 말았다. 지팡이를 중심으로 삼아 걷고 있다지만, 어쩐지 손에 쥔 지팡이를 내던지고 싶을 만큼 오늘따라 후작에겐 지팡이의 무게는 커다란 돌처럼 무거웠다.

“…루드비카.”

“...”

마치 영혼이 없는 빈껍데기처럼 눈동자에서 모든 생기를 잃은 루드비카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인형과도 같았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오고야 말았을까. 후작은 지금의 루드비카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처음으로 어려움을 느껴야 했다.

“로하네님… 이것을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헤르세인을 그렇게 보낸 후로 왕비는 바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잠이 오지 않아 몇몇의 시녀들을 대동하고서 마차를 타고 굳이 하늘의 신전을 찾은 왕비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몸과 마음의 생각을 정리했다. 기도를 올린 탓인지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 왕비는 하늘의 신전에 오기 전, 급하게 준비한 작은 상자를 들고서 기도가 전부 끝난 후, 추기경인 로하네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그동안의 미련을 떨쳐내려 했다.

“그 상자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저의 미련과 제 욕심, 그리고 과거가 묻어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물건들의 집착을 버리고 과거를…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려 합니다. 저를 위해, 빈센트를 위해….”

“왕비전하께서 직접 건네주셨으니,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하시는 겁니까?”

왕비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작게 떨자, 로하네는 인자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고개를 숙였다.

“감히 한 사람의 영혼이 깃든 물건을 제가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이 상자를 제게 맡기실 정도면 그만큼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언제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으나,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무언가를 뒤돌아보는 그날이 오면 왕비전하께서 다시 이것을 찾아오시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는 곳에 제가 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배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로하네님.”

로하네의 배웅까지 받으며 마차에 오른 왕비는 즉시 왕성으로 향했다. 왕성으로 향하고 있을 쯤, 어느새 비가 그쳤는지 하늘의 동이 트면서 그림자로 물들었던 하늘이 붉은 여명을 비추고 있었다. 유독 오늘따라 아름답게 보이는 여명의 빛을 보며 금방 왕성에 도착한 왕비는 마차에서 내려 이제 숨을 돌리고자 자신의 궁전인 아비카 궁전으로 향했다.

아비카 궁전에 도착하기 전, 이상하게도 왕성의 입구에서부터 서둘러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과 하녀나 시녀들 할 것 없이 보이는 부산함. 그러나 그 부산스러움이 궁전에 도착하면서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왕비는 침실에 들리기 전, 이제 막 교대를 하려던 시녀를 붙잡아 이 부산스러움을 알아내고자 했다.

“거기 너, 이쪽으로 오거라.”

“와, 왕비전하!”

“대체 무슨 일이기에 왕성전체가 이리도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 그것이….”

왕비는 재촉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겠다면 벌을 내리겠다는 서늘한 눈빛으로 시녀를 쭉 내려다보고 있자, 그 눈빛에 얼어붙었는지 시녀는 말을 더듬으며 왕비가 자리를 비우고 있던 시간에 벌어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 그게 왕비전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왕성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란? 소란이니? 그게 무슨 말이냐? 상세히 말해 보거라.”

“저,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국왕폐하의 엄명으로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 붙잡히시어 현재 감옥에 투옥중이십니다.”

“투옥이라니… 그게 무슨─!”

왕비는 아직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 좀 더 채근하려 했지만, 시녀를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일단, 감옥에 투옥된 헤르세인의 상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왕비는 곧바로 몸을 돌려 발걸음을 서둘렀다.

모든 죄인들이 투옥되는 왕성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면의 지하 감옥. 썩은 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지하 감옥의 입구에 다다른 왕비는 아직 입구에 완전히 들어가기도 전, 긴 창으로 자신이 들어가길 허락하지 않는 문지기의 모습에 왕비는 문지기들을 노려보며 이것을 당장 치울 것을 명했다.

“비켜라.”

“왕비전하께선 들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감히 일개 문지기들 따위가 나를 막는 것이냐?”

왕비의 싸늘한 목소리에 제법 겁을 먹었는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두 명의 문기지가 서로 눈치를 봤지만 그럼에도 문지기로서의 규칙을 지키고자 문을 막아선 엇갈린 창에는 그들의 굳은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송구합니다, 왕비전하. 들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아니, 송구 따윈 필요 없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나는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오늘부로 나를 감히 능멸한 죄로 폐하께 아뢰어 벌을 내릴 것이니.”

“와, 왕비전하!!”

왕비는 거칠게 입구를 막은 두 개의 창을 거칠게 밀고서 지하 감옥의 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급히 서둘렀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왕비는 여러 개의 쇠창살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드디어 그토록 찾던 헤르세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치마밑단은 흙탕물에 얼룩지어 너저분해 보일 정도였으며 드문드문 찢겨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발목과 두 손목에 단단히 속박되어 있는 족쇄. 이미 헤르세인의 모습은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채로 눈을 감고서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헤르세인… 헤르세인!”

분명 눈앞에 바로 헤르세인이 축축한 맨바닥에 누워있음에도 왕비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차디찬 쇠창살과 그저 쇠창살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깝고도 멀기만 한 거리. 왕비는 조심스럽게 차가운 쇠창살을 잡아 다시금 헤르세인을 불러보았다.

“헤르세인… 헤르세인….”

하지만 헤르세인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을 뿐, 이렇게 가까이 부르고 있음에도 눈을 뜨지 않았다.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과 새파랗게 질린 생기 없는 입술. 그 모습이 완전히 눈에 들어온 순간, 더 이상 왕비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순 없었다. 몸을 완전히 돌려 왕비는 굳은 걸음으로 서둘러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와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었다.

한참이나 걷고 나서야 도착한 굳게 닫힌 문이 보이는 이곳. 왕비는 오직 문을 향해 빳빳이 고개를 들어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에게 알렸다.

“문을 열거라. 폐하를 뵈러 왔다.”

감옥과는 다르게 경비병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자, 왕비는 곧바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있는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왕을 보고자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왕비와 달리, 국왕은 갑자기 나타난 왕비의 모습에 놀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왕비 이곳까지 무슨 일이오.”

“폐하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내게 말이오? 늘 궁전에 꼼짝 않던 그대가 나를 찾을 정도라면 급한 일인가 보오? 어디 한번 들어나 봅시다.”

다 알면서도 여유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왕비는 짐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왕비는 국왕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헤르세인의 감옥행의 이유를 반드시 들어야 했다.

“어째서 헤르세인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 왕비는 단지 헤르세인을 언급했을 뿐임에도 얼굴을 구기는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나 능청맞도록 제게 화 한번 내지 않던 국왕. 그러나 뭐가 그리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지 국왕은 생전 짓지 않던 노기에 찬 얼굴을 하며 어째서 그것을 묻는지 도리어 되물었다.

“어찌하여 왕비가 그것을 묻는 것이오. 내가 알기론 왕비는 헤르세인 왕녀에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소만. 혹, 헤르세인 왕녀에게 정이라도 들은 것이오? 그대조차 버린 사생아 따위를?”

왕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헤르세인에겐 평소에도 관심조차 없던 위스턴 국왕. 그런데 저런 언급을 할 정도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적의를 가득 드러내며 굳이 사생아라 표현하는 국왕의 말투가 영 거슬려 왕비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밉다, 밉다 생각하니 미운 정이라도 들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미운정도 결국 정이겠지요. 하지만 폐하,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헤르세인 왕녀가 감옥에 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혹, 제게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국왕은 한참동안 왕비의 모습을 쭉 살폈다. 어느 곳 하나 흔들림 없는 얼음 같은 푸른 눈동자. 그리고 언제나 보았던 제게 미소한번 그려주지 않던 무표정.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국왕은 작게 한숨을 쉬며 어차피 왕비도 알아야할 일이기에 차근히 설명했다.

“그대에게 말 못할 이유라도 있겠는가? 어차피 곧 있으면 케시아 왕녀의 약혼식이 치러질 테니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야 지금 아는 편이 낫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케시아 왕녀의 약혼식이라니요? 그거랑 헤르세인이랑 무슨 연관이….”

그때, 문이 열리면서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카타리아 왕후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서 우아한 걸음과 함께 나타났다. 부채를 팔랑이며 금방 두 사람 사이에 서게 된 왕후는 자신감에 찬 눈짓으로 왕비에게 설명을 덧붙였다.

“연관이 있지, 왜 없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폐하.”

“…왕후. 여긴 어쩐 일이오.”

어째서 왕후가 이 시간에 찾아왔는지 국왕은 심기불편한 눈으로 왕후를 쳐다봤으나, 왕후의 시선은 오직 왕비에게만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호의도 아닌, 재미난 것을 발견한 눈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왕비의 표정을 일그러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증오였다.

“서운합니다, 폐하.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케시아의 어미인데 딸의 약혼식을 위해서라면 제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혼식을 치루기 전에 이 일도 어서 매듭을 지어야지요. 왕비, 지금부터 내말 잘 듣게 어째서 케시아의 약혼식과 헤르세인 왕녀가 연관되어 있는지 잘 듣는 것이 좋을 걸세.”

“...”

촤락, 하고 팔랑이던 부채를 단숨에 접어버린 왕후는 언뜻 비소가 섞인 붉은 입술로 입꼬리를 올리며 왕비를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헤르세인 왕녀에 관해 말하기 전, 한 가지 왕비가 알아야할 것이 있네. 그것은 바로, 왕비도 알게 된 약혼식에 관한 것.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왕녀로서 갖춰야할 덕목을 지닌 내 딸 케시아는 모든 공녀들의 표본이라 할 정도로 왕실을 위해 왕녀로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귀족들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왕비도 잘 알고 있을 거네.”

“…예,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런 케시아에겐 원래 따로 정해진 혼담이 있었으며, 왕녀로선 당연하게도 그 정략혼담을 받아들여야 했지. 왕실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하지만 그 아이도 결국 여인으로 태어난 운명. 한 사내를 사랑하게 되었지.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에 슬퍼하며… 결국 케시아는 그 사랑을 견뎌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잠길 쯤, 폐하께 간청했네.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었으니 정략혼인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누구보다 케시아를 어여삐 여기신 폐하는 케시아의 더 이상 시름에 잠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였고, 케시아는 드디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네. 그런 케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가, 왕녀의 남자가 될 가문이 어디인줄 아는가?”

“어느 가문입니까.”

표정하나 없이 담백히 묻는 왕비의 물음에 왕후는 더욱 짙게 웃으며 왕비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귓속말을 하듯 나직이 대답했다.

“라인하르트 가문일세. 라인하르트 후작의 차남인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그자가 우리 케시아의 남자가 될 이이자, 약혼자, 후에 혼인을 하게 될 왕녀의 남자이지.”

“!!”

“그리고 헤르세인 왕녀는 감히 일국 왕녀의 약혼자를 빼앗아 도망까지 치려던 죄인. 이제 알겠는가? 그대의 딸이자 그대가 그토록 멀리하던 사생아가 감히 내 딸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말일세. 그야말로 대역죄가 아닌가?”

왕후가 한발 물러서며 자신이 말하고도 흡족했는지 상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그리며 다시금 부채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왕후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던 왕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왕후가 했던 그 말들을 곱씹을 뿐.

어째서, 무엇이 어떻게 이토록 엉킬 수 있단 말인가.

보듬어주지 않았다. 딸로서는 커녕 그저 필요조차 없는 허울뿐인 딸로 여기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끝내 도망치는 모습을 외면했다. 붙잡지 않았다. 그토록 한 사람에 목매는 모습에 외면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어미로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것이 외면이 전부이기에 도망치는 그 모습조차 지켜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다. 헤르세인은 감히 왕녀의 약혼자를 빼돌렸다는 죄로, 그와 함께 도망쳤던 중죄로 죄인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중죄의 결말이 얼마나 참담한지 알기에 왕비는 저도 모르게 드레스자락을 꽉 붙들 수밖에 없었다.

“폐하, 어찌되었든 헤르세인 왕녀는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를 빼앗으려던…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중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러니 헤르세인 왕녀에게 형벌을 내려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형벌이라니? 만약 헤르세인이 그 형벌을 받게 된다면 버틸 수도, 쉽게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특히나 중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형벌이란 것이 얼마나 가혹한 벌이던가. 왕비는 더 이상 계산을 하고 여기서 더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닿기까지 찰나의 시간임에도 왕비에겐 유독 그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굽혔던 이 무릎은 그녀가 그토록 방관하며 외면하고자 했던 헤르세인을 구하기 위해, 온전히 숨이 붙어있는 채로 살리기 위해 굽혀야 했다.

“왕비!”

“세상에나.”

그 누가 제 자신의 무릎이 굽혀지는 날이 오리라 생각했을까.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을 가장 고대하고 있던 사람은 왕후가 유일할지도 몰랐다.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국왕의 표정과 흥미로운 눈을 하며 왕비를 쳐다보고 있는 왕후의 표정. 그들이 각각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던 왕비는 완전히 굽혀진 무릎위로 공손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힘겹게 떨어진 입을 모아 국왕과 왕후에게 간곡히 청했다.

“헤르세인을…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그 형벌…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감옥에서 꺼내진 헤르세인의 모습은 쇠창살 너머로 보던 모습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다. 간신히 헤르세인을 레인 궁의 침실에 옮겨 궁정의사를 불러들인 왕비는 헤르세인의 상태를 살피는 의사를 향해 침착히 물었다.

“상태는 어떠한가?”

헤르세인의 이마의 열을 제고 입술이나 얼굴색, 눈꺼풀을 살짝 열어 상태를 진찰하던 의사는 곧바로 왕비에게 고개를 숙여 현재의 상태를 설명했다.

“아무래도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신경들이 한순간에 정신적으로 풀려버려 극심한 고열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찬 곳에 비를 맞은 탓인지 거기에 열이 더해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갈 것입니다.”

“부탁하겠네. 헤르세인을 제발… 무사히 치료해주게. 부탁일세.”

“성심을 다해 왕녀전하께서 무사히 완쾌하실 수 있도록 치료하겠습니다.”

그로부터 4일째가 되던 날. 궁정의사의 처방과 시녀들이 틈틈이 교대하며 극진히 보살핀 덕분에 헤르세인은 점차 안정된 모습으로 창백하던 얼굴에 생기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오래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헤르세인의 모습에 왕비는 의사에게 물었으나, 의사는 다행이도 큰 문제는 없음을 알렸다. 단지, 오래도록 깨어나지 않는 건, 약해진 심신과 정신 때문이므로 길어도 3일 이내에 깨어난다는 소식에 왕비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시녀도 의사도 아무도 없는 단 둘뿐인 조용한 침실의 안. 이 침실 안에 있는 것이라곤 옷장하나와 침대, 그리고 책상과 테이블이 전부인 보기에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의 거의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장소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헤르세인이 잠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왕비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려 아주 천천히 이마위로 흩어 진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고자 했다.

“...”

하지만 왕비의 손은 끝내 닿지 않았다. 몇 번이고 망설이던 손은 주먹을 꽉 쥐며 다시 제 무릎위로 포개어 애꿎은 또 다른 빈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차라리 널 그곳에서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왕성에서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사람의 몰골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넝마자락을 입은 채, 자신의 앞에 서있던 한 아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을 증오하고 분노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모습. 차라리 그날 다시 돌려보냈어야 하는 것이 옮은 정답일지도 몰랐다. 비록, 처참하고도 궁핍한 생활에 돌아갈지라도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때만큼 헤르세인의 생기 있던 모습은 더 이상 이곳엔 없었다. 어쩌면 그토록 생기 있던 모습이 제게 보인 첫 모습이자 마지막이었던 모습. 결국, 헤르세인을 그렇게 만든 것도 그렇게 내몰아 버린 것도 이렇게까지 변한 것도 전부, 자신의 탓이었다.

“너를 이곳에 데려온 나를… 원망하렴. 너를 이렇게까지 만든 나를… 원망하렴. 용서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증오하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렴. 다만, 많이는 아니라도 좋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너에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왕비는 한동안 서있는 채로 헤르세인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전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전부 담아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비는 아주 오랫동안 헤르세인의 곁에서 그저 지켜본 채로 그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없이 서 있기만 했다.

카타리아 왕후가 기거하는 제1궁 라비아 궁전에 도착한 왕비는 복도를 걸으며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새 눈앞의 문이 열려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꼿꼿이 피고 앉아 있는 왕후를 향해 왕비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왕후폐하.”

“그래, 아라네아 왕비. 나를 찾으러 온 것이면 결정을 한 것이로군.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왕비의 모습에 고개를 돌리지 않음에도 제게 숙이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는 왕후는 입 꼬리를 진하게 말아 올렸다. 붉게 칠해진 손톱이 유난히 눈에 띄는 손을 들어 올려 왕후는 근처에 있는 전속시녀에게 지금부터 티타임을 가질 것을 알렸다.

“차가 마시고 싶구나. 적당히 뜨거운 차가 좋으니 어서 올리도록.”

왕후의 명령에 시녀가 서둘러 차가담긴 이동식 트레이에 다가갔다. 그리고 차를 재조하기 위해 독특한 문양이 그려진 찻잔 도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가며 찻물을 우리고 있을 쯤, 찻물이 우러날 때까지 왕비는 아직까지 허리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상태였다. 왕후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들어 올려선 안 되는 허리와 고개. 벌써 허리가 저릿해질 정도로 버티고 있음에도 왕비는 미동조차 없이 왕후의 명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어느덧 찻물이 우러나고 시녀는 조심스럽게 빈 찻잔을 왕후의 앞에 놓아 찻물을 담아내자, 노란 빛깔의 찻물이 먹음직스럽게 모락모락 김을 풍기며 더욱 향긋한 차 내음을 뿜어내고 있었다.

“곱기도 해라. 찻물의 색이 아주 보석만큼이나 곱구나.”

여유롭게 찻물의 고운 색을 감상하던 왕후는 드디어 차를 시음하고자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들이켰다. 혀에 감기는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차의 맛을 만족스럽게 만들었으나 왕후는 그럼에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지 살짝 눈썹을 꿈틀거리다가 마치, 잊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돌려 여전히 허리를 숙이고 있던 왕비에게 명을 내렸다.

“언제까지 내게 허리만 숙이고 있을 텐가? 아라네아 왕비. 그러지 말고 내 곁으로 와보게.”

“예, 왕후폐하.”

드디어 허리를 필수 있게 된 왕비는 조심스럽게 왕후의 곁으로 다가가 그 근처에 서자, 왕후는 작은 비소를 머금으며 왕비에게 당장 무릎을 꿇을 것을 명했다.

“이제 무릎을 꿇게. 그만한 각오를 했기에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안 그런가? 왕비?”

“...”

보란 듯이 굴욕을 주려는 왕후의 명령이 떨어졌으나, 생각만큼이나 왕비는 그 전처럼 쉽게 무릎이 꿇리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울지라도 두 번째는 쉽다고 누가 그러던가? 왕비는 신음을 삼키며 결국 그 맨바닥에 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꿇려진 왕비의 모습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던 왕후는 이내 헛바람을 들이키더니 실내가 울릴 정도로 찻잔이 깨질 정도의 웃음을 대놓고 왕비에게 드러냈다.

“아하하하하!! 지금 자네의 모습이 어떤지 아는가? 아주 볼만해! 겉으론 고상한 척 하고 있을지 몰라도 속에선 아주 나를 씹고 뜯고 있겠지! 자네에게 굴욕을 준 내가 너무도 증오스럽겠지! 내가! 이, 내가! 천하의 귀하디귀한 자네의 무릎을 꿇렸으니!!”

한참이나 왕비를 향해 깔깔 웃던 왕후는 순간,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듯 웃음기가 싹 빠진 얼굴을 드러내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서서히 왕비 쪽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듯, 왕후는 잔인한 미소와 함께 왕비의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찻물을 전부 쏟아 부으며 물었다.

“어떤가? 기분이 나쁜가? 아니, 기분이 나쁘겠지. 그토록 세상에 전부 제 것인 줄 알았던 자네가 그것도 가장 하찮게 생각한 나에게 이런 호된 꼴을 당하니 기분이 안 나쁠 수야 없겠지. 왕비. 뭐라고 말 좀 해보게. 자네가 그토록 입을 다물고 있으니 괜히 내가 괴롭히는 꼴이지 않는가?”

“제가 감히… 왕후폐하께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왕후폐하보다 아래인 사람. 왕후폐하께서 꿇으라면 꿇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꿇으라면 꿇는 것이 당연하다라… 과연 자네다운 말이군.”

찻잔에 담긴 찻물이 완전히 한 방울 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왕후는 싱겁다는 눈으로 하며 일부로 깨지듯이 찻잔을 쌔게 테이블 위로 찍어 내리듯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왕비의 모습에서 재미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자, 왕후는 싸늘히 눈을 내리깔아 왕비를 노려보며 왕비가 그토록 국왕에게 간청했던 부탁을 허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내게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릎을 꿇었으니, 그 노고를 친히 여겨주어야겠지. 좋네. 자네가 그토록 원하는 형벌… 헤르세인 왕녀대신 아라네아 왕비, 자네가 대신 받도록 하게.”

“…제 청을 들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왕후폐하.”

“흥, 자네의 속없는 감사 따위 들어서 무얼 하나. 진심이 아닌 것을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늘.”

왕후는 코웃음을 치며 이젠 꼴도 보고 싶지 않아 아예 왕비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나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린 왕후와는 달리, 왕비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 치의 거짓이 담겨있지 않은 진심이었다.

“저는 정말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후폐하께서 저를 어찌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제 청을 들어주신 것에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알고 있나? 나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자네가 제일 증오스럽다는 것을.”

그녀만 없었더라면 국왕의 사랑을 누구보다 듬뿍 받았을지도 몰랐다. 그녀만 없었더라면 평화롭고도 행복했을 시간 속에 함께였을 텐데. 끝내 그 자리는 왕비에게 빼앗겨 버렸으나, 어디까지나 마음만 빼앗겼을 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그녀와 달리, 지금의 자신은 이 나라의 왕후이자 모든 것이 제 손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신만의 세상이었다.

한 없이 관리하고 물 한번 묻힌 적이 없던 빈손을 쥐었다 폈다 하길 반복하던 왕후는 마지막 주먹을 그러쥐는 것을 끝으로 메마른 입을 모아 천천히 입을 떼어냈다.

“폐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네. 설사 폐하께서 자네를 위해 나선다 해도 이것은 엄연히 왕실의 안주인인 내 역할이자 왕후로서 해야 할 나의 일. 폐하께선 절대로 나서실 수 없으실 것이네. 자네를 위해서라면 더욱….”

“...”

“설령, 그 형벌로 인해 자네가 죽을 지라도 난 멈추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안심하게. 폐하의 손이 닿지 않도록 내가 직접, 헤르세인 왕녀의 형벌을 대신 받는 자네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

“…예. 왕후폐하.”

아주 어린 시절. 헤르세인은 딱 한번 지독한 고열에 시달린 경험이 있었다. 계속되는 굶주림과 지독한 추위에 몸이 버티지 못해 결국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고열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런 헤르세인을 창부는 그저 방관했을 뿐, 걱정을 하거나 돌보는 것을 거의 손에서 포기한 상태였다.

아픈 헤르세인을 내버려둔 채, 창부는 싸구려의 지독한 술과 약에 찌들어 살기를 반복하던 매일.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은 유독 창부는 늦은 밤이 되어서도 낮에 집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분명 몸은 천근만근 무거우면서도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인데 헤르세인은 창부가 늦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불안했었다. 그리고 아픔과 겹쳐진 극심하게 몰아치는 불안감.

혹시 창부까지 자신을 쓸모없다 생각하여 버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그 불안감에 몸은 열이 펄펄 끓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창부가 제 곁에 있어줬으면 했다. 비록 갖은 학대와 욕설을 퍼붓던 창부이긴 했으나, 모순적이게도 헤르세인은 여태까지 함께 살고 있는 창부가 곁에 있어주길 원했다. 챙겨주지도, 약 따윈 더더욱 바라지 않았다. 그저 떠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그저 눈에 띄는 근처에 있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

그저,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을 하늘이 이뤄준 것일까? 헤르세인은 희미한 시선 속에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파서인지, 아님 유독 그 향기가 포근하게 느껴져서 인지 창부에게서는 늘 술에 찌든 냄새가 났건만, 정말 바람에 실려 사라질 정도의 희미한 향기임에도 헤르세인은 그 향기가 무척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향기의 주인은 창부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이토록 기분 좋은 향기를 창부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비록 제대로 앞을 분간하기가 힘든 눈이었으나 창부는 저토록 자신을 슬픈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이상하게도 이마에 얹힌 그 차가운 손길이 열을 식혀주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힘겹게 입을 떼며 물었다.

"…혹시, 천사… 님… 이세요?"

제 자식에게까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슬럼가의 현실. 이토록 누군가를 그것도 한 사람을 챙겨주는 이는 극히 드물기에 어린 헤르세인은 당연하게도 그림자 속에 가려진 이가, 좋은 향기를 희미하게 풍기고 있는 이가 하늘에서 내린 천사님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이토록 상냥히 자신의 이마에 손을 직접 얹혀주는 천사님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그저 천사님이 이마에 손을 올렸을 뿐인데, 마치 그 손길이 치유를 해주는 것처럼 헤르세인은 냉기와 온기사이의 손길을 느끼며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지독히 시달리던 고열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헤르세인의 몸은 멀쩡히 돌아올 수 있었다.

얼굴도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던 천사님. 어쩌면 자신을 가엾이 여겨 하늘에서 내려온 지도 모를 천사님.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헤르세인은 그날의 작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느새 손에서 흩어지는 모래알맹이처럼 헤르세인은 더 이상 그 따뜻함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기억의 조각조차 맞추지 못할 만큼 이미 손에서 흩어진 모래알맹이들은 헤르세인의 손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너를 이곳에...나를… ...하렴. 너를 이렇게까지 ...나를… ...하렴. ...말고 처음부터... 그대로 나를...하고...하며…하고 ...하렴. 다만, 많이는 아니라도 좋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너에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좋겠구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임이 분명한데 왜 그 목소리에선 저토록 슬픔이 묻어있는 것일까. 이상하게도 그 슬픔이 심장의 깊숙한 곳까지 닿아 깊은 어둠 속에 있던 헤르세인을 조금씩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들였다.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이 그 목소리를 듣고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귀에 담아내고자 헤르세인을 빛을 따라 뛰었다. 그러나 빛의 고지가 코앞 이였거늘, 어둠 속에 가려진 벼랑이 헤르세인의 헛발을 딛게 하면서 땅이 없는 어둠이 헤르세인을 깊이, 아주 깊이 끌어들였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절망뿐이 없는 어둠 속에만 있기를 마치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헤르세인은 완전한 현실에 깨어날 수 있었다.

“헉!!”

절로 오한이 느껴질 정도로 헤르세인은 식은땀을 흘렸다. 대충 소매로 이마에 흐른 식은땀을 닦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둠 속에 끌려간 그 생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지 심장은 계속 요동쳐 헤르세인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하아… 하아… 여긴….”

거친 숨을 내쉬며 잔뜩 경계어린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던 헤르세인은 어느 정도 심장이 진정될 대쯤 이 장소가 익숙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꾸민 것조차 하나도 없는 실내와 있는 거라곤 침대와 책상, 작은 테이블과 옷장하나가 전부인 침실. 이곳은 틀림없는 자신의 침실이었다. 어째서 감옥에 있던 자신이 이곳에 누워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던 헤르세인은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녀의 모습에 더욱 경계어린 눈을 하며 시녀의 화들짝 눈과 마주칠 수 있었다.

“세, 세상에! 와, 왕녀전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어서 이 상황을 설명해줬으면 하는 헤르세인의 눈이 시녀를 향해 계속 응시해있자, 먼저 의사를 부를지 아님 상황을 설명해야할지 입을 다물지 못하던 시녀는 결국, 의사가 아닌 헤르세인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조심스럽게 헤르세인의 곁으로 다가간 시녀는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어떤 사실을 말한다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껴야 했다.

“저어, 왕녀전하. 왕녀전하께서 감옥에 나오 실 수 있었던 건 왕비전하께서 왕후폐하께 간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왕비… 전하께서?”

“예. 그리고… 왕녀전하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대신, 왕녀전하께서 받으실 형벌을 왕비전하께서 대신 받으신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왜, 왕비가 자신을 대신해 형벌을 받는 것인지 헤르세인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언제나 자신을 외면하던 그녀가, 자신이 딸임을 부정하던 그녀가, 치부라 생각하던 그녀가 어째서… 어째서 왕비가 아닌 어머니로서 그 형벌을 그것도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는 현실이 아닌, 지옥임이 분명했다. 끝없이 나락으로 떠밀어 죽지도 살지도 못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잔인한 그런 지옥의 나락이….

클로드는 루드비카가 이토록 열에 시달린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 열은 물론이고 사경을 헤매듯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모습까지. 어떡해서든 루드비카의 상태를 낫게 하고자 후작은 수도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문 의사를 불러 진찰을 맡겼지만 열이 내려지기는커녕 루드비카의 상태는 도무지 진전되지 않았다.

“도대체 루드비카는 언제쯤 눈을 뜬단 말인가!”

왕성에서 돌아온 날부터 눈을 뜨지 못한 루드비카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과도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택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병을 붙였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루드비카는 다음날 쓰러지고 말았다. 뜨거운 숨과 잠깐 손을 댔음에도 화상을 입을 듯한 뜨거운 열. 그리고 열기로 인해 계속해서 흐르는 식은땀까지.

한 번도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병자가 나온 적이 없기에 힘없이 쓰러진 루드비카를 뒤늦게 목격한 순간 후작은 그때부터 루드비카가 무사히 일어나주길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눈을 뜨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혹시, 또 다른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후작은 의사를 추궁했지만 의사의 대답은 똑같았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공자님의 열을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억눌린 심적인 문제와 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대한 공자님의 열을 내릴 약을 올리겠으나 공자님이 완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열은 내릴지라도 몸은 약해지실 겁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진찰이 어디 있냐며 후작은 소리치고 싶었으나, 끝내 잡고 있는 지팡이에 힘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지금의 루드비카의 모습은 그녀, 로자르나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알아채 한동안 폐인 짓을 하던 그때보다 더 심각했다. 차라리 병나발을 불정도로 술을 끼고 있다면 말릴 수라도 있지만 아파 누워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후작은 깊게 한숨을 쉬며 근처에 있던 클로드에게 루드비카의 곁에 있어주기를 부탁했다.

“클로드, 당분간은 루드비카의 곁에 있어줬으면 하구나.”

“예, 아버지.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나가보마.”

원래라면 클로드가 아닌, 루드비카의 곁에 있을 사람은 후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이 곁에 있다면 루드비카가 평생을 눈뜨지 않을 것 같아 후작은 끝내 클로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후작이 힘겨운 걸음으로 나가고, 의사마저 진찰이 모두 끝나 어느덧 침실에는 고통으로 작게 신음을 삼키는 루드비카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클로드만이 남아있었다. 루드비카의 상태를 가까이서 지켜보고자 의자를 끌어 침대의 근처에 앉은 클로드는 언제쯤이면 눈을 뜰지 알 수 없는 루드비카를 보며 나직이 입술을 모아 움직였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너도, 나도, 아버지도… 모두가….”

깍지를 껴 이마에 손을 맞댄 클로드는 그대로 눈을 감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 애초에 루드비카를 위해,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본 적조차 없던 클로드에게 배려심이란 것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가문을 져버리면서까지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려던 루드비카의 모습.

그 어느 것 하나 바라는 것 없이 한 여인에게만 목숨을 바치겠다던 루드비카의 모습이 결국 클로드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것이 형제의 정인이지 아님,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이 하도 가엾어 보여 물러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건 루드비카로 인해 클로드는 물러서는 것을 배웠고, 루드비카에게서 보지 못한 진심을 발견한건지도 몰랐다.

천천히 눈을 떠,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클로드의 잿빛 눈동자에 담겼다. 그리고 여전히 그 꿈속에서 무엇을 꿈꾸는지 고통어린 작은 신음을 삼키는 루드비카를 보며 클로드는 굽히고 있던 상체를 반듯하게 다시 세워 기사의 눈이 아닌, 형제의 눈으로서 루드비카를 향해 어서 깨어나길 바랐다.

“어서, 일어나도록 해라… 루드비카.”

눈이 부시도록 내리쬐는 햇살이 루드비카는 익숙하지 않았다. 분명 매일 눈으로 보고 가득 몸에 쬐던 따뜻한 햇살 임에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혀 다른 따뜻함 이여서 인지 루드비카는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치 햇살이 인도하듯 그 빛을 따라 걸은 지 한참이 돼서야 도착한 어느 장소. 멍하니 햇살을 따라 걷던 루드비카는 서서히 맑아져오는 정신을 느끼며 서둘러 주변을 살폈다.

“여기는….”

이곳은 분명 익숙한 장소임이 틀림없었지만 루드비카가 알고 있는 라인하르트 저택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었다. 긴장도, 추위도, 절제도 느껴지지 않는 따뜻함만이 가득한 이곳. 큰 등나무가 인상적이며 빨간 지붕이 유독 눈에 띄는 2층의 저택. 루드비카는 이곳이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마르세유 가의 저택….”

그때, 어디선가 꺄르륵 웃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리자 루드비카는 서둘러 그 장소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서두를수록 마치 저 너머에 익숙한 누군가가 있음을 알기라도 하듯, 심장이 쿵쾅거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잘 다듬어진 수풀을 지나 어느덧 잔디가 깔린 작은 정원에 도착한 루드비카는 땅에 한발을 내딛기 전, 발끝에 부딪치는 작은 공으로 인해 잠시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어? 저기 죄송하지만 공 좀 주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근처에 아이가 있었는지 아이의 맑은 음색에 루드비카는 바로 허리를 숙여 공을 줍고자 했다. 가뿐히 공을 들어 올린 루드비카는 아이에게 공을 건네주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 루드비저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키고 말았다. 지금 두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넌...”

어째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바로 눈앞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눈을 하고 있는 루드비카와 달리, 아이는 공이 다시 제 손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미소를 보이며 힘껏 허리를 숙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주워주셔서! 아참, 그리고 형!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셔야 해요?! 어머니가 아까부터 형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잠깐!”

하지만 아이는 제 말만 하고는 공을 가지고 루드비카를 지나쳐 어디론가 훌쩍 가버리자, 미처 아이의 말을 듣지 못한 루드비카는 정면으로 몸을 튼 순간, 그대로 몸을 굳히고 말았다. 하얀 테이블 위로 찻잔을 움직이며 정원의 꽃내음을 그대로 만끽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붉은 머리를 가졌으며 태양보다 더 빛날 해바라기 같은 눈동자를 지닌 여인. 여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루드비카의 시선을 느꼈는지 찻잔을 내리곤 미소를 그리며 다정히 몇 년 만에 아들의 이름을 다시금 불렀다.

“어서 오렴, 루드비카.”

“…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를 향해 루드비카는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움직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이것은 꿈인 걸까? 아님, 현실인 걸까? 그것도 아님 지독한 악몽인 걸까. 루드비카의 믿기지 않는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자, 그 모습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던 로자르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루드비카의 뺨을 어루만졌다.

“많이 컸구나. 내 아들. 정말로… 많이 컸어.”

“…어머니.”

“살아 있었더라면 멀리서라도 쭉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그것이 못내 아쉽구나.”

어느새 로자르나의 뺨에는 투명한 애틋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로자르나를 따라 루드비카 역시 눈물을 흘러내렸다. 원치 않은 이별로 평생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루드비카에게 있어서, 커다란 한 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볼 거라 생각지 못한 루드비카는 제 뺨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혹시라도 환영이지 않을까하는 불안함에 재차 확인하고자 했다.

“이건 꿈인가요? 아님, 제가 악몽을 꾸는 건가요?”

“…루드비카.”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모른 채, 혼자 마음 편히 살았지요. 어머니…. 정말로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이… 제 어머니가 맞는 건가요?”

헤어지기 전의 변하지 않은 그때의 젊은 모습 그대로, 로자르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루드비카가 어미의 품을 찾듯 강하게 품에 찾아들어가자, 로자르나는 이젠 한없이 훌쩍 커버린 루드비카의 등을 따뜻이 다독여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

“내 아가, 내 아들 루드비카.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너무나도 간절히….”

언제 잊혀 질지 모를, 또는 언제 깨어날지 모를 꿈속의 세계. 비록 현실이 아닌 꿈임에도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나타난 어머니를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더 옆에 남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고 싶었다.

로자르나와 루드비카는 두 모자는 어느새 반가운 눈물을 지워내며 자리에 앉아 금방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눈을 반짝이며 자신이 겪던 모든 일들을 로자르나에게 들려주는 루드비카와 런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그리고 한 없이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로자르나. 비록 꿈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밤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루드비카는 변하지 않는 꿈속의 시간 속에 어느새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자랑하듯 자신의 자랑거리를 하나도 빼놓음 없이 전부 들려주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입이 마르도록 한가득 한 꾸러미에서 이야기를 전부 들려준 루드비카가 서서히 진정되는지 얼굴에서 한결 여유로움이 보였을 쯤, 계속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로자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카.”

“네, 어머니.”

“사랑하는 이의 곁에 계속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니?”

“...”

“비록 육신 없는 영혼이 되어 너를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지만, 네가 한 사람을 위해 전부를 바치고 있는지 이 어미는 지켜보고… 또 알고 있단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이제는 세상에 없는 육신. 그러나 영혼만큼은 언제나 아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또한 루드비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잘 알고 있는 로자르나는 고개를 틀어 어느새 그림자가 드리워진 루드비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지만, 다정히 루드비카의 손을 꼭 잡으며 로자르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참으로 어여쁜 아가씨더구나. 역시 내 아들이 선택한 여인이라 할 정도로 얼굴도, 마음씨도 어여쁜 사람… 하지만 그 아가씨도 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힘이 들겠지.”

“저는… 이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어느새 헤세는 제 손에 닿지 않고 있어요. 손을 다시 뻗어 잡았다 생각하면 또 다시 헤세는 제 손에 없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헤세를… 그녀를…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헤세와 제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아가씨를 많이 사랑하니?”

로자르나의 물음에 루드비카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무릎 위에 있던 손에 힘을 주어 루드비카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은 그녀가 자신의 세상임을 대답했다.

“헤세는 저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저의 전부이자 사랑으로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저만의 세상. 헤세가 없으면 저는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텅 비어버린 인간 루드비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너에게 있어 그 아가씨는 네가 숨 쉬고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었어.”

이런 점까진 닮지 않았으면 했다. 자신처럼 지독한 사랑에 목을 매지 않기를 바랐건만,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그저 평범히 사랑을 키워가길 바랐지만, 루드비카는 끝내 자신처럼 험난한 가시밭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것도 자신보다 더 힘든 가시밭길을. 그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로자르나 조차 알지 못했다.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본인이 알아내는 것 뿐. 로자르나는 루드비카를 잡고 있던 손을 떼어 자신의 무릎위로 포개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마치 석양이 지기라도 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응시하며 로자르나는 입을 뗐다.

“이 어미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는 대답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루드비카. 이것만은 알아두렴. 아무리 힘들어도 상처받고 견딜 수 없어도 너의 신념 그대로 나아가렴. 그리고 사랑을 쟁취하려 하지 마렴. 사랑이란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닌, 극복하는 것이란다.”

“…어머니.”

하늘과 땅의 경계를 멀리 응시하던 로자르나는 몸을 틀어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젠 자신보다 몇 배는 커진 루드비카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켰다.

“어머니?”

“돌아가렴. 이제 꿈에서 깨어나 네가 가장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그 아가씨의 곁으로 돌아가렴. 이곳은 루드비카 네가 오랫동안 있을 곳이 아니니까.”

루드비카의 두 손을 잡고 있는 로자르나의 손에는 놓고 싶지 않은 아쉬움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이별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만 완전히 놓아주어야만 했다. 끝까지 잡고 있던 루드비카의 두 손을 먼저 놓아버린 로자르나는 루드비카의 어깨를 살짝 밀어내 루드비카의 중심을 무너트렸다.

“어머니? 어머니!”

그저 살짝 밀어낸 것으로 중심이 흔들렸을 뿐인데 루드비카는 점점 로자르나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제자리에 미동조차 없이 자신을 끝까지 배웅하듯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루드비카는 아직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손을 뻗었지만 로자르나는 멀리서 고개를 저으며 루드비카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겨 내렴 루드비카. 그리고 행복해지렴. 이 어미가 바라는 것은 그것 뿐 이구나.”

“어머니!”

“너를 만나서… 이토록 훌륭히 성장한 너를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기뻤단다.”

태양처럼, 또는 해바라기처럼 또는 소녀처럼 해맑게 미소를 짓던 로자르나의 모습이 어느새 빛이 되어 사라지고 꿈의 세상이 전부 무너지는 순간, 루드비카는 완전히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로자르나의 목소리는 루드비카의 귓가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보물이자, 나의 아들 루드비카. 나는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단다.』

“물을 부어라!”

카타리아 왕후의 명령으로 근처에 있던 병사가 바구니에 물을 퍼, 누군가에게로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 핏물로 물들어 사람몰골이라 할 수 없는 한 여인이 거의 기절을 하고 있자, 병사는 바로 여인을 향해 물을 거침없이 끼얹었다.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 했었는지, 물이 안면에 끼얹어지자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인은 고개를 들어 힘없이 왕후를 응시했다.

“…여기… 는...”

“아라네아 왕비. 정신이 드는가?”

서로 간의 거리는 멀었으나 마주보며 앉고 있음에도 왕후의 드레스에는 그 어떤 더러움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반대로 하얀 속옷차림의 드레스로 이미 핏물로 가득 물들어진 아라네아 왕비의 모습은 전체가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터진 입술과 정돈되어 있지 않은 머리. 의자위로 양쪽 팔을 속박한 족쇄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두 발목을 걸어둔 족쇄는 왕비가 벌써 며칠 째, 지독한 형벌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열실이 보여주고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벅차하는 왕비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왕후는 거의 춤을 추듯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왕비의 모습에 다시금 되물었다.

“왕비. 내 말이 들리는가?”

“...”

“이젠 대답할 힘조차 없는 거군.”

왕후는 슬슬 질린다는 눈으로 왕비를 보며 손을 올렸다. 다시 고문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그 신호를 다시 내리기 전, 왕후는 한참 동안 왕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헤르세인 왕녀를 대신해 받고 있는 형벌. 비록 무엇을 실토하거나 하는 죄는 없었으나 어찌되었든 왕비의 자식이 그것도 1왕녀인 케시아의 약혼자를 가로채려 했다.

거기다, 함께 도망까지 치려하지 않았던가. 그 죄가 너무나도 헤르세인 왕녀에게 내린 벌이나, 왕비는 그 벌을 대신 받았으며 보는 사람이 질릴 만큼 목에서 핏대가 세워질 만큼 왕비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마치, 소리를 억지로라도 죽이는 것처럼 이를 악문 작은 신음소리만 간간히 들렸을 뿐, 그 힘든 고문을 왕비는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었다.

독하디, 독한 여인. 얼음의 왕비라 불릴 정도로 누군가에게 감정한번 드러내지 않는 그녀였으나 설마 이런 고문에조차 얼음보다 더할 만큼 버텨 낼 거라 생각지 못했다. 그야말로 대단한 정신력. 하지만 고문이 심해질수록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버틸 수 없는 쪽은 왕비였다. 거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된 반응을 듣기가 어렵던 왕후는 결국 신호를 물리겠다는 손을 내려버렸다.

“국왕폐하 납십니다!!”

때를 잘 타고 왔는지 갑작스레 고문실에 다짜고짜 들어온 국왕의 모습에 왕후는 심기가 불편한 눈으로 국왕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폐하께서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왕후! 언제까지 이 고문을 계속 할 생각이오!!”

“또 그 말씀을 하시러, 이곳까지 친히 발걸음을 하신 겁니까? 왕비가 그렇게나 걱정이 되어?”

“카타리아!!”

국왕의 거친 외침에 왕후는 미간을 구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진절머리 날정도로 고문을 그만두라며 외치는 국왕의 모습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알고는 있었다. 국왕이 저를 향한 마음이 한 톨 조차 없음을. 자신의 딸을 아끼고 사랑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사랑만큼은 모래알맹이보다 못한다는 것을 왕후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권력에 더욱 집착하고 재물에 더 욕심을 내어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순순히 접어지지 않았다.

접으려 할 때마다, 국왕이 왕비를 향한 지독한 총애를 보일 때마다 왕후는 미치도록 질투가 났다. 제 아무리 권력가 재물을 다 가졌음에도 국왕의 사랑만큼은 가질 수 없던 자신의 신세. 그렇기 때문에 왕후는 국왕도, 왕비도 가만둘 수 없었다.

“이것은 폐하께서 나설 일이 아닌, 엄연히 왕실의 안주인으로서 제가 나서야할 일이며,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왕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일입니다. 폐하께서 바깥일에 책임을 져야 하시듯 집안일 역시 저의 소관이자 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왕실의 집안일 역시 내가 나서야겠소. 그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나설 수밖에!!”

“폐하!!”

“여봐라! 뭣들 하느냐! 어서 왕비의 족쇄를 풀지 않고!!”

국왕의 명이 떨어지자 국왕을 따르는 병사들이 왕비의 곁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고자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족쇄를 풀기도 전에 왕후의 찢어지는 외침이 그들의 행동을 막아섰다.

“멈추지 못할까! 누구 마음대로 죄인의 족쇄를 푼단 말이더냐!! 내 명이 있기 전까진! 그 족쇄를 풀을 수 없음이다!!”

“왕후의 말에 귀 기울지 마라! 어서 족쇄를 풀라!!”

“풀지 말거라!! 푸는 순간 너희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야!!”

국왕과 왕후의 끝없는 대립. 결국 말싸움에 치가 떨린 국왕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는지 왕후를 지나쳐 성큼성큼 걸어가 왕비의 손에 채워진 족쇄를 직접 풀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왕후는 더욱 얼굴을 일그러트려 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폐하!!”

“그대가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니, 짐이 직접 손으로 풀 것이오!!”

“폐하!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시란 말입니다!!”

왕후의 분노어린 외침에도 국왕은 끝내 왕비의 모든 족쇄를 풀어 두 손에 직접 안아 올렸다. 병사들의 손에 맡겼어도 이 분노가 풀리지 않을 텐데, 이제는 작정하고 직접 안아 올린 국왕의 모습에 왕후의 눈은 결국 뒤집어 지고 말았다.

“지금 제 두 눈앞에서 무슨 짓입니까! 폐하께서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왕후야 말로 내게 이럴 수 없는 법. 만에 하나 왕비가 죽기라도 한다면 난, 왕후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내 경고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왕비를 이렇게 만든 왕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폐하! 폐하!!”

왕비를 안고서 국왕은 매정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열려있는 고문실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버리자 왕후는 제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내리쳤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이, 지아비가 저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정실왕후는 자신인데 이 왕국의 국모가 자신뿐인데 어째서 이토록 국왕은 저에게만 모질 수 있단 말인가. 그토록 깨끗하던 왕후의 드레스는 결국 국왕이 나타남과 동시에 왕비와 떠남으로서 더러워지고 말았다. 먼지에 뒤덮여 손이 더러워졌음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왕후는 고문실이 떠나도록 국왕만을 불렀다.

국왕의 덕분에 고문실에서 풀려난 왕비는 이틀이 지나서야 간신히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제정신을 차리자 그녀의 눈에 비친 건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은 국왕의 모습과 훌쩍이며 곁에서 잠든 어린 아들인 빈센트의 모습.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어 꼼짝할 수 없으나 그나마 입을 뗄 수 있는 것이 고작이기에 왕후는 힘겹게 곁에 있던 국왕에게 부탁했다.

“…폐…하….”

“왕비! 정신이 드는 게요? 몸은? 몸은 어떻소?!”

“…폐…하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내 왕비의 말은 그 어떤 것이든 들어주리다.”

“…헤르…세인…. 헤르…세인에게… 꼭… 해야 할 말이…있습니다. 그러니…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이 아닌, 이름조차 듣고 싶지도 않은 헤르세인 왕녀를 언급하는 왕비의 힘없는 목소리에 국왕은 저도 모르게 질투가 섞인 음색으로 물었다.

“내겐… 나에겐 할 말이 없는 것이오?”

그러자 일말 망설임 없이 바로 나오는 왕비의 대답에 국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부탁…드립…니다… 폐…하….”

국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비의 시녀들에게 명령을 내려 헤르세인 왕녀를 이곳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을 내렸고,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서 떠나지 않던 국왕은 금방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난 빈센트와 같이 자리를 비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자리를 비켜, 홀로 침대에 누워 한참을 기다리던 왕비의 곁에 헤르세인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시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회복 되었음에도 국왕의 명령이 떨어져 거의 감금되어 꼼짝할 수 없었던 헤르세인은 다시금 떨어진 국왕의 명령으로 왕비의 궁전으로 향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헤르세인은 어째서 왕비가 자신을 대신해 형벌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자신은 그저 사생아에 불과했고 늘 치부라 단단히 못을 박았기에 더욱이 왕비의 그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서 왕비가 누워 있는 침실가까이 도착한 순간, 헤르세인은 헛숨을 크게 들이켰다. 거의 사람몰골이라 할 수 없는 왕비의 모습. 입술은 다 터져버려 짓물러져 있었고, 얼굴은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다. 시체라 착각할 만큼 창백히 질린 얼굴의 색과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 모습이 전부 눈에 담긴 순간, 헤르세인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헤르… 세인…?”

인기척을 느꼈는지 왕비가 무거운 눈꺼풀을 뜨며 고개를 서서히 헤르세인 쪽으로 돌렸지만, 왕비의 눈동자에는 이미 산 사람의 생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어 있었다. 손목에 시퍼런 멍 자국이 만연한 손을 무겁게 들어 올려 왕비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자, 헤르세인은 천천히 왕비의 곁으로 다가가, 바로 근처에 있던 의자에 앉아 간신히 입을 뗄 수 있었다.

“대체… 뭣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셨습니까.”

“...”

“동정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니까요. 왜… 제가 받아야할 벌을 왕비전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까.”

설마 왕비가 미운 정이라도 들었을 리가 없었다. 누구보다 왕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자신 이였고, 하물며 동정에 마음을 움직일 그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 이토록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 형벌을 대신 받겠다는 생각을 한 걸까? 무릎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헤르세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도 모르게 치마 주름이 진하게 생길정도로 꽉 잡고 있음을 못 느낄 정도로 헤르세인은 더더욱 힘을 주었다.

그리고 한참에서야 힘겹게 입을 뗀 왕비의 말은 헤르세인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너를… 너를… 죽게 할 수…없었다…. 지켜…줄 사람이… 나 밖에… 없었으니까….”

죽게 할 수 없다니. 누구를? 자신을 말인가? 그 순간, 헤르세인이 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올라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드레날린이, 모든 감정이 헤르세인의 몸을 견뎌내지 못하고 화산처럼 폭발해버렸다.

“저를 죽게 할 수 없었다고요? 지켜줄 사람이… 왕비전하 밖에 없다고 하신건가요? 거짓말… 누구보다 나를 그토록 멀리했으면서. 누구보다 나를 치욕스럽고 치부라 말한 것이 당신이면서!! 지금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건가요?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말은 저를 딸로 인정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미안… 하구나...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단… 다. 너를…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대체 무엇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 왕비는 지금 벌을 받아 정신이 온전치 않기에 자신을 이토록 더욱 상처 내는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던 헤르세인은 자리를 떠나고자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왕비의 힘겨운 목소리가 다시금 헤르세인을 붙잡았다.

“…헤르… 세인… 내가 완전히 눈을… 감기 전에… 네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단다… 내 숨이… 이제 얼마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 들어다오….”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곧 불러올 테니 잠시만─!”

꼭,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왕비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의사를 부르고자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없는 힘을 끌어 모아 헤르세인의 손끝을 간신히 붙잡은 왕비는 곧 바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이것만은 들어… 주렴…. 하늘의 신전에 가면… 너의… 지위식을 도운… 로하네님이 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꼭, 그것을 네가… 네가… 돌려… 받으렴… 그것은 본디… 내 것이 아닌… 네 것이었으니까….”

“싫습니다. 제가 왜 왕비전하의 말을 들어야하는 겁니까.”

모난 마음처럼 헤르세인은 일그러진 얼굴로 실소를 뱉었다. 왜 죽을 사람처럼, 왕비는 자꾸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인가. 왜 이토록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목소리로 이젠 자신을 붙잡으며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일까. 헤르세인은 이번엔 정말로 돌아가기 위해 매정히 왕비의 손을 밀어내며 나아가려 했지만, 바보 같게도 끝까지 침실의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헤르… 세인… 하나만… 딱 하나만 물어 보마… 아직도 나를… 증오…하고 있니…?”

“...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왕비전하를 증오합니다. 이곳에 저를 데려온 왕비전하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헤르세인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어, 미처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대답을 예상한 왕비의 얼굴은 처음으로 가장 편안한 옅은 미소를 그리며 눈물을 떨어트렸다.

“…그래… 그렇게…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렴. 하지만… 너를... 사랑… 했단...다...”

툭, 하고 무언가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에 헤르세인은 숨을 멈춰버렸다. 뻣뻣하게 돌아가는 몸을 돌리니 여전히 누워있는 왕비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졌다. 하지만 힘겹게 내쉬던 숨은 어느 순간 멈춰 버렸는지 왕비는 더 이상 숨조차 쉬지 않고 있었다. 완전히 눈을 감아 영혼이 빠져버린 빈껍데기처럼 왕비의 목소리도, 숨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다.

“와… 왕비 전하?”

혹시나 싶어 헤르세인은 왕비의 손을 잡고서 올렸지만, 왕비의 손은 힘없이 헤르세인의 손에서 빠져나와 밑으로 무너져 내렸다. 어린 시절. 자신의 두 눈앞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어버린 창부처럼, 비록 그 모습은 똑같지 않더라도 왕비는 눈을 뜨지 않았다. 홀연히 눈을 감아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떠나가 버렸다.

“…안 돼…. 눈 떠 보세요. 왕비전하. 눈 좀 떠보세요. 의, 의사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뭐라고… 뭐라고 말 좀 해보시라고요! 거짓말… 거짓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또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데!! 당신이 날 데려왔잖아! 날 이곳에 데려와 놓고선! 당신이 멋대로 날 멀리하고선!! 이제 와서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건 뭔데!? 이제 와서 날 대신해 고문을 받고! 이제 와서 날 사랑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고!! 제발 눈떠! 눈떠 보라고요!!”

빈껍데기인 왕비의 몸을 크게 흔들며 헤르세인은 어떡해서든 왕비를 깨우고자 했지만, 이미 왕비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다. 죽은 육신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 왕비는 마지막 눈물과 함께 눈을 감아버렸다.

유난히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얀 눈의 세상으로 만들던 겨울의 담요가 사라지고 봄의 계절이 다가와 서서히 푸른 새싹의 담요로 뒤덮으려 했지만, 유일하게 한 곳만은 여전히 겨울 속의 세상이었다.

침대 위로 곱게 누워 있는 왕비의 모습. 창백한 피부색이 더 도드라질 만큼 눈처럼 새하얀 순백의 드레스로 전신이 치장된 왕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없었다. 그런 왕비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던 위스턴 국왕은 결국 재상의 재촉으로 마지막, 왕비의 머리를 장식할 왕관을 두 손에 전달 받을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왕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자, 왕비와 너무도 잘 어울릴 만큼 왕관은 유난히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왕관의 빛나는 자태. 특히나 왕관의 중심에 박혀 있는 푸른 사파이어는 이보다 더 왕비와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왕비의 머리에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는 것을 끝으로 국왕은 조심스럽게 왕비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이젠 목소리조차 닿지 않을 왕비에게 나직이 물었다.

“그렇게도 내 곁이 싫었소? 이토록 매정히 떠날 만큼… 내가 싫었던 거요?”

하지만 돌아온 건 죽은 자의 침묵의 대답 뿐. 국왕은 뺨을 어루만지던 손을 떼어내며 끝내 주먹을 그러쥐었다.

“그대는 끝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료. 끝까지….”

못내 얼굴을 일그러트리던 국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몸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관속에 들어가기 전, 국왕은 한때 과거에 수도 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던 그때처럼, 그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사랑했소, 아라네아. 그대는 날 증오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라네아. 그대뿐이었소.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이제는 완전한 이별. 국왕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왕비의 시신을 옮겨라.”

비록 권력은 없을지라도 국왕의 총애를 끊임없이 받았던 왕비이기에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왕비의 시신을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히 옮겨, 준비된 하얀 관속으로 왕비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시작된 왕비의 성대한 장례식. 사브레 왕국의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던 왕후만큼이나 더 특별한 장례식이기에 이 의견이 국왕에게서 처음 나왔을 땐, 가장 경악한건 신하들도 아닌 카타리아 왕후였다.

왕가의 일족은 대대로 주신의 축복을 받고자 장례식을 가장 성대하게 치루는 전통이 있었으나, 그 어떤 선대왕들의 첩들조차 왕후만큼이나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순 없었다. 그것은 왕실의 법이었으며 애초에 ‘첩’은 특별한 위치가 아니기에 그녀들은 여느 귀족들의 장례식과 똑같은 평범한 절차 식을 받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위스턴 국왕은 왕후보다, 아라네아 왕비를 극진히 총애하며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특히나 아라네아 왕비는 ‘첩’이 아닌, 특수한 ‘왕비’의 위치이기 때문에 국왕은 갖은 설명을 덧붙여 지금의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다.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했으며, 왕후도 아닌 왕비의 장례식이기에 이토록 성대하게 장례식을 할 이유가 없다며 귀족들과 왕후는 크게 반발했지만, 국왕은 고집으로 끝까지 무시하며 왕비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장례식 행사까지 직접 명을 내리고 움직였다.

왕비가 누워있는 관과 발을 맞춰 어느새 본성의 입구까지 도착한 국왕은 바로 맞은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교황과 눈을 마주치며 눈인사를 나누곤 몸을 정면으로 돌려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국왕의 서 있는 수 십 개의 계단 아래로 왕비의 관이 지나갈 하얀 비단길이 쭉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서 있는 검은 예복을 차려입은 수 백 명의 귀족들을 내려다보며 국왕의 그 길을 따라 앞장서기 시작했다.

관이 실린 화려한 마차가 하늘의 신전에 당도하기 까지, 수많은 백성들은 왕비를 애도하며 하얀 꽃잎을 뿌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차의 뒤를 따라 검은 드레스를 입고서 긴 침묵 속에 빈센트와 함께 하늘의 신전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예배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교황의 기도문을 들어야 했다.

교황의 기도문이 끝나고, 관의 뚜껑을 열어 왕비에게 받치는 헌화가 진행되자 신전을 따라온 귀족들이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어 관이 꽉 차도록 왕비의 주변으로 국화꽃이 쌓이고 있었다. 귀족들의 모든 차례가 끝나고 어째서인지 제일먼저 왕비에게 꽃을 받치게 된 헤르세인은 신관에게서 건네받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왕비의 관이 있는 근처로 다가갔지만, 관과 가까워질수록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이 유난히도 헤르세인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왕비전하의 죽음이 저 사생아 왕녀 때문이라면서요? 그러게 분수에 맞을 짓을 해야지.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니… 쯧쯧.”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요? 저 사생아 왕녀가 감히 케시아 왕녀전하의 약혼자를 빼앗아 함께 도망치려고 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약혼자를 빼앗은 건 물론이고, 함께 도망치지 않는다면 협박까지 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세상에, 그게 정말인가요? 제 버릇 못 고친다고 하더니, 슬럼가 출신이라면 말다했네요. 누가 슬럼가 출신에다 사생아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그리 저급할 줄이야. 정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검은 미사보가 있어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 듬뿍 담긴 시선을 헤르세인은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열렬한 관심을 갖는 시야를 차단했다 해도, 열려있는 귀 만은 헤르세인 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하든 기어코 왕비의 관 앞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왕비의 눈감은 모습을 보며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꽃을 왕비의 얼굴 근처에 정중히 내려놓았다.

“...”

천천히 입을 열어 왕비를 향해 헤르세인은 어떠한 단어를 뱉어내고 싶었으나, 그 단어는 끝내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막상 입을 연 순간 목구멍에서부터 콱 막혀버리는 망설임. 그리고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은 그 생소한 단어가 끝내 헤르세인의 입을 도로 닫게 만들었다.

결국 망설임에 그 짧은 시간을 놓친 헤르세인은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국왕을 지나치곤 도로 구석진 자리를 찾아가 자리에 앉았다. 헤르세인의 차례가 끝이 나고 빈센트의 차례가 찾아왔다. 역시, 감정이 풍부한 아이답게 빈센트는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며 왕비의 관에 국화꽃을 내려놓았지만 성인들처럼 제 감정을 억누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그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 빈센트는 눈에서 홍수가 쏟아지듯 눈물을 계속 흘렸지만, 울부짖지도 너무나 아이처럼 울지도 않았다. 의젓한 어린 왕자의 모습으로 눈물을 훌쩍이며 빈센트는 왕비를 향해 부디 평안한 꿈을 꾸길 바란다는 어엿한 목소리로 빈센트는 왕비에게 꽃을 받쳤다.

빈센트의 차례가 끝이 나고, 왕태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윌리스 왕태자는 국왕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케시아 왕녀와 카타리아 왕후는 끝내 왕비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후작은 짧게 시간을 내어 꽃을 헌화한 후 바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왜, 왕실의 모녀와 후작의 아들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하늘의 신전에 모여든 귀족들은 서서히 입을 모아 자기들끼리 망상을 피웠지만 헤르세인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들이 있든 없든, 오직 헤르세인의 눈은 하얀 꽃들 아래에 잠든 왕비의 모습만이 눈에 닿고 있을 뿐이었다.

헌화식이 전부 끝나고 관을 옮겨 왕가의 사람들만 잠들 수 있다는 왕가의 무덤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가까이서 직접 흙을 뿌리는 빈센트와 다르게 아주 멀리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다.

“헤르세인 왕녀는 왕비의 무덤에 흙을 뿌릴 자격 따윈 없다. 그러니 물러나라. 이건 명령이다.”

헌화는 했어도 무덤에 다가가 흙을 뿌리는 것까진 용납할 수 없는지 국왕의 싸늘한 명령으로 헤르세인은 아주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새하얀 관이 점점 흙속에 파묻힐수록 점점 흙밖에 보이지 않을수록 헤르세인은 이 현실이 점점 와 닿고 있었다.

만약 왕비가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이 그대로 벌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저 관속에 묻힐 사람은 왕비가 아닌, 자신이었을 텐데. 왕비는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왕비는 그 앞의 죽음을 예상하고도 대신 죽음을 받아들인 거나 다름없었다. 한낱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위해. 왕비는 고작 자신을 살리고자 그 죽음을 대신 맞이한 것이다.

어느덧 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평평한 흙 위로 세워지는 대리석의 묘비와 그 밑으로 다시 쌓이는 하얀 화환가 국화꽃들이 수북이 쌓여갔다. 마지막으로 성수를 뿌리는 것을 끝으로 장례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사들과 기사들 그리고 국왕과 왕태자조차 돌아가기 위해 움직이기 있음에도 헤르세인 만은 그저 멀리 떨어진 무덤을 덩그러니 보며 꼼짝하지 않았다.

“…누님.”

누군가의 발소리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발소리가 빈센트일거라 헤르세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은 미사보속에 멀리 있는 무덤만을 응시하며 헤르세인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가… 밉니? 내가… 원망스럽니?”

“누님, 어찌 그런 말씀을….”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받아야할 형벌을 대신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차라리 화를 내고, 증오 섞인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며 왜 대신 벌을 받게 했냐며 빈센트가 그렇게 행동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착한건지, 아님 순진한 건지, 그것도 아님 대체 무엇 때문인지 빈센트는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떨어트릴 뿐,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어찌 누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저는 끝가지 누님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겁니다. 누님은 제 형제이고 제 가족이자… 어머니께서 가장 누님을 사랑하신 분 이시니까요.”

“왕비전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예. 누님을 아끼고 사랑하신 마음이 있었기에 어머니께선 누님을 대신해 그 힘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사랑이라니. 오히려 그 말은 빈센트에게 더 어울린 말이었다. 누가보아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역력한 빈센트. 반대로 그런 사랑을 받긴 커녕, 불신과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보던 왕비였다. 그런데 그것을 왕비의 사랑이라 착각한 빈센트의 말에 헤르세인은 작은 실소가 나왔다.

“빈센트. 난...”

“왕자전하!”

빈센트를 향해 할 말이 있던 헤르세인을 입을 떼려 했지만, 저 멀리서 우렁차게 찾고 있는 기사와 병사들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대체 자신은 무슨 말을 빈센트에게 하고자 했던 걸까. 끼어든 목소리 덕분에 입 밖으로 하고픈 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말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여전히 무덤을 응시하며 빈센트가 그들과 돌아가기를 원했다.

“저들이 너를 찾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렴.”

“하, 하지만 누님. 저랑 같이 돌아가시는 편이...”

“난 아직… 여기에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싶구나. 그러니 먼저 돌아가렴. 빈센트.”

“…네, 누님. 그래도 저 만은 누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아닌, 자신을 기다리겠다는 빈센트의 말이 꼭 무언가 불안한 것처럼 느껴져 헤르세인은 대답대신 고개만을 작게 끄덕였다. 빈센트까지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이제는 정말 홀로 남게 된 헤르세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아주 멀리서 왕비의 무덤 흔적이 보이는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서서히 날이 저무는지, 노을이 질 때까지 제자리에 박힌 나무마냥 한참을 서있던 헤르세인은 이제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왕성으로 돌아가고자 몸을 돌리려던 때였다. 한발자국 나아가기도 전에 스무 걸음 쯤 족히 떨어진 길에는 노년의 신관이 기다린 듯 서있었다. 걸음을 걸어 금방 신관의 앞까지 도착한 헤르세인은 그제야 눈앞에 있는 신관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기억해낼 수 있었다.

“신관님은….”

“저를 기억해주고 계셨군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추기경인 로하네 라 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그때처럼 편히 로하네 신관이라 불러주십시오.”

“제겐 무슨 일로….”

한때 지위식을 돕던 그가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헤르세인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그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로하네는 편한 미소를 보이며 헤르세인에게 따라올 것을 권유했다.

“왕녀전하께 전해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제게 전해 줄 것이라고요?”

“예, 왕녀전하.”

이제 막 두 번째로 얼굴을 본 사이인데 자신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정중히 고개를 숙여 부탁하는 로하네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듣고자 그를 따라가기로 고개를 끄덕였다.

로하네를 따라 하늘의 신전에 다시 들어온 헤르세인은 작은 예배당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신관의 부탁에 일단 기다리고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제일 맨 앞줄에 앉아 신관을 기다리기로 했다. 미사를 올리는 시간이 끝났는지 사람 없는 작은 예배당임에도 실내가 넓어 보일 정도로 빈자리가 빼곡하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곳은 주로 생명과 땅의 신, 아르테가르에게 기도를 올리는 예배당이라 그런지 단상의 뒤로 하얀 날개를 펼쳐 한 그루의 나무를 품고 있는 여신의 모습은 한 없이 자애로웠다.

멍하니 신이 조각된 석상만을 보며 눈 한번 깜박이지 않던 헤르세인은 뒤에서 들리는 로하네 의 목소리에 멍한 정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제가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로하네가 내민 것은 성인 남성의 손바닥 보다 면적이 큰, 작은 상자였다. 언뜻 보면 보석함 같기도 한 상자의 모습에 일단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든 헤르세인이 물끄러미 보고 있자, 로하네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 상자는 아라네아 왕비전하께서 며칠 전 제게 맡긴 물건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왕비전하께선 그것을 제게 맡기실 때 이런 부탁을 하셨지요. 처리해달라고. 미련과 욕심이 담긴 과거를 끊어내고자 제가 처리해주시길 부탁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과욕과 지나친 욕심이 담긴 과거라면 정말로 제가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이 상자를 건네신 왕비전하의 얼굴을 본 순간 금방 알 수 있었지요. 이 상자에는 그동안의 추억이 가득 담긴 상자였음을. 추억이 담긴 것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저는 왕비전하께 처리하지 않고, 언젠가 왕비전하께서 다시 찾아가시길 바라며 소중히 보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는 왕비전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 헤르세인 왕녀전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군요.”

“...”

“왕비전하께선 생전에 깊이 생각할 일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자주 오시어 기도를 올리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왕비전하께서 신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니 평안히 잠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왕녀전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비전하의 육신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긴 하나, 영혼만은 언제나 왕녀전하의 곁에 머물고 계실 겁니다.”

로하네에게서 받은 상자를 가지고 왕성으로 돌아가려던 헤르세인은 당연히 자신을 기다릴 마차 따윈 없을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왕성으로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는지 빈센트의 명령을 받았다며 어서 마차를 타길 권유하는 마부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편하게 왕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아무도 없는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와 침실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어둑한 침실의 촛불 하나를 켜, 불을 밝히곤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안에는 초승달 문양과 태양의 문양이 새겨진 백금의 펜던트와 손 떼가 가득 묻은 두 권의 작은 두터운 노트가 들어있었다.

제일먼저 펜던트를 들어 펜던트의 생김새를 물끄러미 보던 헤르세인은 펜던트를 도로 내려놓고서 이번엔 가장 낡아 보이고 손 떼가 가득한 두터운 노트 하나를 들어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적고 있을 나의 과거, 이 글을 보고 있을 나의 미래. 그리고 언젠간 이 일기를 보고 있을 나의 딸 헤르세인에게.』

“이건...”

언제부터 적었는지 알 수 없는 글씨.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정확히 자신을 지목하는 ‘헤르세인’이란 이름이 적혀있는 글을 볼 순간, 헤르세인은 손은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떨리고 있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긴 헤르세인은 긴 글이 적혀있는 글씨들을 보며 천천히 따라 읽기 시작했다.

“왕국력, 탄생의 날. 아이아의 4월의 열두 번째의 날….”

『왕국력, 탄생의 날. 아이아의 4월의 열두 번째의 날.

미르세니안 공작가에서 태어나 아직 세상을 모르던 어린 내가, 감정이란 것을 모르던 내가, 지금의 나의 남편이자, 나의 반려, 그리고… 왕국의 모두가 칭송하는 왕태자 에른스트를 만난 건, 13살의 어린 시절이었다.』

미르세니안 가문. 그리고 미르세니안 가문에서 귀한 핏줄로 태어난 외동딸, 아라네아 드 라니아 미르세니안. 미르세니안 공작부부는 왕실에서도, 사교계에서도 굉장히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워낙 부부사이가 원만한 것을 넘어 애정이 넘칠 정도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다보니, 가끔씩 시기가 심한 귀부인들 사이에선 괜스레 공작부인을 향해 대놓고 질투를 드러내는 귀부인들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천성이 밝고, 성격이 호쾌하던 공작부인은 그녀들의 질투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했지만, 정말로 심한 질투로 인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선처를 구하는 건 질투로 인해 일을 벌인 귀부인들 쪽이었다. 공작부인에겐 든든한 버팀목인 공작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미르세니안 공작부부는 특히나 38대 국왕, 바로크 국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고 있기에 웬만한 눈치 있는 귀족들이라면 감히 공작부부를 건드릴 엄두는 내지 않았다.

바로크 국왕의 총애와 모든 귀족들의 부러움과 시기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공작부부. 그런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바로, 부부가 극진히 아끼고 사랑으로 키운 사랑의 결실 아라네아. 분명 사랑으로 듬뿍 어여삐 키웠음에도 어째서인지 아라네아는 부부가 생각한 어린 공녀들과는 달랐다.

인형놀이나 눈을 즐겁게 할 드레스를 보며 매번 사 달라 조르는 여느 어린 공녀들과는 다르게, 아라네아는 분명 어린 나이임에도 너무도 조숙한 면이 있었다. 아이답지 않은 간결하고도 짧은 말이라던가, 인형놀이나 드레스엔 전혀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얼음 같은 눈. 거기다 말투도 감정이 묻어있지 않다보니 아라네아에겐 꽃 같은 이야기를 나눌 공녀들이 거의 주변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아라네아의 미소나 활달한 모습을 보고자 부부는 아라네아가 좋아할만한 것들을 전부 사주거나 보여주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부가 무안할 정도로 간결했다.

“필요 없어요.”

워낙 아이답지 않게 차가운 성정마저 있다 보니 부부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던 때였다. 어느 날, 부부의 고민을 듣게 된 바로크 국왕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그대의 여식과 나의 두 아들을 서로 친교를 맺는 게 어떻겠나? 요즘 들어 나도 고민이 있다네. 어째서인지 두 자식들이 내말을 영 듣지 않아서 말이네. 왕후라도 있었으면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했겠지만, 어쩌겠는가. 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렇게라도 아비로서 두 자식들이 큰 사고 없이 잘 성장해 줬으면 하는 것을. 특히나 이 나이 때는 전부 철부지일 시기이지. 그러니 내 부탁하지. 공작의 여식인 아라네아와 나의 두 왕자들을 서로 만나게 하여 서로가 잘 클 수 있도록 이 인연을 통해 서로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교를 맺고 싶다네."

왕의 자식과 귀족의 자식 간에 친교를 맺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부부를 총애하듯 두 사람의 자식인 아라네아도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국왕이었다. 결국 공작부부는 국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라네아는 당분간 왕실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왕성에서 아라네아는 국왕의 두 왕자들을 처음 대면할 수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라네아 드 라니아 미르세니안 이라 합니다. 두 왕자전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정하나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로 아라네아가 작은 고개를 숙이자, 각자의 호위기사를 대동하며 아라네아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왕자가 눈을 빛내며 자신의 소개를 제일 먼저 했다.

“아라네아? 와아! 이렇게 예쁜 사람은 난생 처음 봐!! 아 맞다! 내 이름은 위스턴! 제2왕자인 위스턴이야! 잘 부탁해!! 있잖아, 공녀는 올해 나이가 몇이야?”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로 제잘 거리는 위스턴 왕자의 모습에 아라네아는 여전히 무표정을 고수하며 간결이 대답했다.

“올해, 열 셋이 되었습니다.”

“열 셋이라고? 거짓말! 나보다 3살 위였어!!”

부부의 손에 떠밀려 왕성에 오긴 했지만, 위스턴 왕자의 시끄러운 모습을 보니 아라네아는 벌써부터 지친 느낌이었다. 3살 연상이든 아니든, 위스턴 왕자는 이미 아라네아의 머릿속에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인물로 찍힌 지 오래였다.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기도 했지만,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 건 사실이었다. 아라네아는 이번엔 살짝 고개를 틀어 위스턴 왕자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왕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다시금 인사를 전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라네아──.”

“됐어. 한번 소개하면 됐지, 뭘 또 귀찮게 소개하는 건데?”

위스턴 왕자만큼이나 시끄러운 형제일 듯싶어 아라네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막상 인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먼저 말을 끊는 왕자의 목소리에 아라네아는 저도 모르게 뻘쭘히 대답하고 말았다.

“…아, 예… 죄송… 합니다.”

눈을 느릿하게 깜박이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왕자의 눈과 아라네아의 눈이 마주쳤다. 왕실의 진한 혈통이라 할 수 있는 마치 벌꿀을 바른 금발머리와 눈부신 금빛의 머리칼 사이로 녹음이 가득한 에메랄드빛의 눈동자. 분명 위스턴 왕자와 똑같은 형제임이 틀림없음에도 어째서인지 지금 눈앞에 있는 왕자의 눈은 만연한 귀찮음이 가득 배어있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서로 입을 꾹 다문채로 쳐다만 보기를 십 여분. 왕자는 작게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

“…에른스트. 에른스트 칼 레자르 라그디알. 올해로 열한 살이 되었고 제1왕자이지. 이제 소개는 전부 끝난 거지?”

“…예?”

“소개도 끝났으니 나는 가볼게. 어차피 너도 폐하의 강요로 끌려온 거잖아? 그러니 내가 대충 폐하께 설명할 테니 이만 돌아가도 좋아. 위스턴 돌아가자.”

이제 막 11살이 된 왕자답지 않게 귀찮음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며 에른스트가 그대로 돌아가려 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위스턴이 오히려 당황하고 말았다.

“형님! 정말로 돌아가시게요?! 에른스트 형님!! 공녀! 그럼 나중에 봐! 나는 형님 따라 갈 테니까! 그럼 안녕!!”

“...”

두 왕자를 따라 호위 기사들도 서둘러 뒤쫓아 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어느새 복도에 홀로 남겨지게 된 아라네아는 처음으로 미간을 작게 찌푸리게 되었다.

“…뭐지. 저 두 사람은.”

결국 에른스트 왕자의 말대로 계속 복도에 우두커니 있을 순 없는 노릇이기에 아라네아는 공작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라네아를 보낸 공작부부는 아라네아가 왕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가득 궁금증을 담아내며 눈빛으로 물었지만, 아라네아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부부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이 아니었다.

“피곤해서 그러는데, 자고 일어날게요. 그럼.”

언뜻 강렬하면서도 뭔가는 애매한 왕자들과의 짧은 만남. 아라네아는 그 만남을 끝으로 왕자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애초에 아라네아 자신조차 왕자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지만, 특히나 1왕자인 에른스트 왕자는 더욱 귀찮음이 가득한 모습이었기에 이것으로 전부 끝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아라네아의 착각에 불과했는지 다음날이 돼서도 아라네아는 왕성으로 향해야 했다.

“저는 왕자전하께서 귀찮다 생각하시어 더는 부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위스턴 왕자는 어디에 갔는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에른스트 왕자 혼자였다. 그리고 여전히 무료하고 귀찮음이 가득 배인 눈을 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에른스트 왕자는 흘긋 아라네아를 보고는 간단히 대답했다.

“폐하께서 한사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

뭘까. 이 왕자는 대체. 정말로 국왕폐하께 그 사실을 아뢰어 끝까지 거절당했는지, 아니면 귀찮아 대답을 막무가내로 뱉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에른스트 왕자의 모습을 보건데 아무래도 에른스트 왕자는 더더욱 귀찮은 일에는 깊이 관여할 생각이 없어보였다. 지엄하신 국왕폐하의 명령. 그리고 폐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등을 왕성으로 떠민 아버지와 어머니.

언제까지 왕성에 계속 드나들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폐하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태일 것이 눈에 보였기에 아라네아는 에른스트 왕자를 보며 입을 열었다.

“왕자전하.”

“…응.”

“전하께서 제가 있든 없든, 이런 상황을 귀찮아하시는 것 같으니 이건 어떻습니까?”

“…뭘?”

“국왕폐하의 명령대로 저는 계속 이 응접실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왕자전하께서 이곳에 오시는 대신 왕자전하께서 하시고픈 일을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만 채우도록 하죠.”

“한 시간? 왜 한 시간인데?”

어째서 한 시간이냐 묻는 에른스트의 질문에 아라네아의 대답은 별거 없다는 투로 간결하고 어찌 보면 오해를 사기 좋은 무심한 대답이기도 했다.

“왕자전하께서 이 상황을 귀찮아하시듯, 저 역시 공작저로 빨리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아라네아의 대답에 잠시 뚫어질 만큼 응시하던 에른스트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아라네아 만큼이나 간결하고도 짧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비록 13살이란 어린 나이일지라도 직위가 높은 가문에 태어난 이상, 아라네아는 일찍이 귀족들의 사회를 빨리 받아들여야 했다. 공작부부는 아라네아가 귀족들의 돌아가는 세상을 빨리 깨닫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으나 아라네아의 관심사는 오직 책이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더욱 아라네아의 아이 같은 관심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국왕의 장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로 태어난 에른스트 역시, 겉으론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있으나 이미 제왕학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었다. 왕위라는 것은 언제 선대의 국왕이 병으로 급사하거나 또는 전쟁이 터져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후계자로 태어난 왕자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제왕학을 일찍이 깨우쳐야만 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제왕학을 배우며 일찍이 사회를 알아야했던 에른스트는 제왕학을 배우지 않는 위스턴을 내심 부러워했다. 코피가 터지도록 밤을 새서라도 수많은 책들을 정독해야하는 자신과 달리, 밤이 되면 일찍이 잠드는 위스턴. 그리고 자신이 검을 들고 있을 때면 검 대신 공놀이를 하는 위스턴을 볼 때면 에른스트는 나름 후계자란 위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에겐 엄한 아버지인 국왕폐하의 잔소리를 들으며 그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던 에른스트에게 미르세니안 공작의 딸과 친교를 맺는 교류를 한다는 건, 뜻밖의 일이었다. 비록 11살이 되었음에도 동성친구 한명조차 없던 에른스트에게 특히나 이성인 미르세니안 공작의 딸과 친교를 맺는 건 더욱 어색한 일이었다.

왕자로 태어났기에,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태어났기에 누구에게나 극진히 대접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위치. 지금까지 동성친구나, 이성친구가 없는 건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언제나 ‘왕자님! 왕자님!’하며 강자에게만 유독 빌붙듯 재력이 없는 가문에겐 한없이 강자 행세를 하려는 귀족 자제들을 볼 때면 에른스트는 그들이 한심해보였다. 더불어 밑도 끝도 없이 ‘왕자님!’거리며 자신이 누구 꺼니 하고 멋대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공녀들을 볼 때마다 에른스트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특히나 공녀들에겐 이미 그런 인식이 박혀있던 에른스트는 당연 미르세니안 공작의 여식도 그런 공녀일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 사춘기가 이르게 찾아온 것이 아님에도 에른스트는 고작해야 이제 11살이 된 아직까지 어린 왕자. 때문에 제 나름의 방법으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아버지의 엄격한 모습에 나름 반항을 하고 싶어 요즘 들어 귀찮음으로 시종일관 책과 검에 손을 떼고 있었으나, 설마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움직일 줄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 더욱 귀찮음으로 아라네아 공녀를 상대한 것인데, 그녀의 반응은 참 뜻 밖이었다.

일부로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녀 쪽에는 전혀 시선을 주고 있지 않음에도 전혀 관심조차 없는 무심한 눈으로 오히려 멍하게 있는 그녀를 흘긋 볼 때마다 신기해 보일정도였다. 혹시 연기가 아닐까 싶어,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기를 어느덧 일주일. 에른스트는 이젠 자신이 있든 없든 마음 편히 책을 읽기까지 하는 그녀의 모습에 에른스트은 이내 결정을 내렸다.

어디 한번 아버지가 원하는 그 친교를 해봐도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에른스트는 여전히 책에 시선을 몰두하고 있는 아라네아를 향해 입을 열었다.

“미르세니안 공녀.”

“...”

역시나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저 무반응에 물러설 기미가 없던 에른스트는 일부로 그녀의 이름을 멋대로 부르며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길 기다렸다.

“아라네아 공녀.”

뜬금없이 저의 이름을 멋대로 부르는 왕자의 목소리에 책에 시선을 주고 있던 아라네아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는 에른스트를 보았다.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에른스트의 얼굴에 아라네아는 책을 덮어 왕자를 향해 물었다.

“말씀하세요. 왕자전하.”

그리고 에른스트에게서 나온 대답은 뜻밖의 말이었다.

“아라네아 공녀. 우리 친구하지 않을래?”

언제 작은 구멍 속으로 전부 빠져나갈지 모를 모래알맹이처럼 세월의 모래시계는 몇 번이고 흘러갔다. 성인식을 치루고 이제는 어엿한 미르세니안 공작가의 아가씨가 된, 아라네아의 나이는 18세. 공작부부에게 등 떠밀리듯이 왕성으로 다녔던 때가 마치 엊그제 같았건만, 처음에는 익숙지 않던 왕성으로 향하는 걸음도 아라네아에게는 이제 또 다른 익숙한 곳이기도 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채 되지 않아 원하지 않은 친교를 맺기 위해 왕성으로 가는 것도 금방 날거라 생각한 아라네아는 벌써 몇 년째 왕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끝마칠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자칭 ‘친구’라 불리는 이가 왕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서와. 네아. 오늘은 좀 늦었네?”

눈길한번 돌리지 않고 책에 집중하고 있는 에른스트의 모습이 보였다. 시간의 흐름은 아라네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에른스트에게도 해당하듯 이제 11살적의 에른스트는 이곳에 없었다. 비록 아직까지 16살인 어린 나이임에도 에른스트는 여느 성인답지 않게 훌쩍 성장하여 긴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책을 보고 있었다.

언뜻 보면 왕자다운 오만함의 모습이 얼핏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늘 보던 익숙한 모습이기에 아라네아는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대꾸했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애칭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시라고.”

“흐음, 엄연히 우린 친구사이인데 친근하게 부른 게 뭐가 나빠?”

“막무가내로 친구가 되자한 쪽은 왕자전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정말로 친구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이로 따지자면 제가 연상인데요.”

그때, 탁 소리를 내며 책을 덮은 에른스트는 여전히 문 앞에 서있는 아라네아에게 시선을 돌려 피식 웃고 말았다.

“연상이라 해도, 내가 친구하자면 하는 거지.”

“권력행사라 이건가요?”

“아니. 그냥 왕자의 쓸데없는 권력남용. 내가 친구하자고 하면 하는 거야. 설령 연상일지라도.”

계급의 먹이사슬 중, 가장 최상위로 우뚝 서있는 왕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제멋대로인가 싶었다. 아라네아는 작게 한숨을 내쉬곤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왕자의 시선을 무시하곤 다리를 움직여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 앉은 아라네아는 에른스트의 한곳을 지적했다.

“여전히… 억지에다 제멋대로시네요.”

“원래 그래. 왕실의 사람들은. 제멋대로에다 없는 억지까지 잘 부리지. 그러니 왕실을 유지 하는 게 아니겠어?”

“국왕페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면 크게 노하실 겁니다.”

“상관없어.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그 노하는 것도 얼마가지 않으실걸?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쓸 틈이 없는 분이시니까.”

에른스트의 모습은 태평하기 짝이 없었다. 벌써 몇 년째 그의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아라네아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못 느껴 테이블 위에 있던 티포트를 들어 차를 마시고자 찻잔에 좁은 주둥이를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아라네아. 잠시만.”

“…예?”

차를 따르다말고 갑자기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아라네아는 여전히 티포트를 기울인 상태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언제 다가왔는지 서서히 자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에른스트의 모습이 눈에 담기면서 이젠 그의 손과 그의 얼굴이 점점 얼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왜 갑자기 에른스트가 몸을 기울이는지 알 수 없던 아라네아는 그저 눈을 깜박이며 에른스트를 물끄러미 보고 있을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위스턴이 들어왔다.

“형님! 저 왔─!”

갑자기 노크도 없이 들어온 위스턴의 행동에 에른스트는 아라네아 만큼이나 변화가 없는 표정으로 몸을 기울인 채로 손은 여전히 아라네아를 향해 닿고 있었다. 누가 봐도 오해하기 좋은 두 사람의 모습. 위스턴의 얼굴이 어째서인지 조금 창백히 질려 있자, 에른스트는 그것을 오해한 것이라 생각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곤 손을 높게 들어 아라네아의 머리 위에 있던 분홍빛의 꽃잎을 직접 떼어 주었다.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라네아의 머리 위에 있는 꽃잎이 영 거슬려서. 아라네아는 은근 바보라니까. 이런 게 붙어있는 줄도 모르다니.”

“바, 바보….”

아라네아는 살짝 미간을 좁히며 에른스트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깟 꽃잎하나 머리위에 잠깐 붙은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바보라니. 거기다 꽃잎이 바람에 실려 머리에 붙은 걸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아라네아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으로 에른스트를 봤지만, 정작 에른스트는 꽃잎을 아무렇게나 버리곤 제자리에 멀쩡히 앉아 버렸다.

“까, 깜짝 놀랐잖아요. 형님. 저는 또 형님께서 아라네아에게 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줄 알고….”

“아라네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 이유는 없잖아. 애초에 아라네아는 ‘친구’이지 ‘이성’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걸.”

두 형제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던 중, 그 순간 아라네아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 에른스트의 말처럼 ‘친구’사이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 왜 ‘이성’으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함이 느껴진 것일까. 애초에 ‘친구’라 말하기도 애매한 관계이긴 했지만 아라네아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라네아? 왜 그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라네아에게 있어, 에른스트는 희한한 왕자와도 같았다. 다른 사람들조차 자신의 표정변화를 크게 느끼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언제나 무표정이기에 이제는 질리도록 듣는 말이 ‘얼음 공녀’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표정조차 지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에른스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지 자신의 여전히 변함없는 표정을 보며 은근 걱정하는 목소리에 아라네아는 손끝으로 뺨을 만지려다, 이내 관둬 버렸다.

“아뇨. 저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 돌아 가냐는 에른스트의 물음에 아라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벌써 두 시간이 지났는걸요. 그럼.”

처음에는 그저 별거 아닌, 귀에 익지 않을 단순한 말이라 생각하며 지나갔지만 아라네아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상하게 심장이 좋지 않았다. 평소엔 괜찮다 생각하면 어느새 에른스트와 같이 있을 땐 뭉글뭉글한 기분과 또 다시 바늘로 쿡쿡 찌르는 따끔한 기분이 들었다. 18살이 되면서 단 한 번도 감기조차 걸린 적이 없음에도 생소하게 아픈 그 느낌에 아라네아는 아무래도 공작부부에게 솔직히 털어놔야할 것 같아, 앞뒤 없이 요점만 대답하는 일을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심장에 자꾸만 바늘 같은 것이 찌르는 게 따끔해서 아파요.”

아라네아의 그 한마디에 미르세니안 공작가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마냥 잠시 충격을 받은 공작부부는 멍하니 있다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는 수도에서 실력이 난다 긴다 하는 의사들을 전부 모아 아라네아를 진찰하게 만들었다. 이제 꽃피우는 젊은 나이이건만 제 딸이 시한부라니? 심장이 아프다니? 공작부부는 어떡해서든 아라네아를 살리고자 치료하고자 가문의 숨겨진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아라네아를 살리려 했다. 하지만, 공작부부의 불안한 마음과 달리 아라네아를 진찰한 모든 의사들은 입을 모아 똑같이 진찰 결과를 대답했다.

“아가씨께선 아무증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무척 건강하실 정도입니다.”

공작부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 제 딸은 심장이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의사들은 하나같이 증상이 있기는커녕 건강하다고 하다니. 혹시 돈만 꿀꺽하기 위해 일부로 고의 진찰을 한 것 인지 부부는 한껏 의심을 하며 의사들을 추궁했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변함없었다.

“정말입니다. 아가씨께선 그 어떤 잔병조차 없으십니다. 저희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기에 병이란 병의 증상들은 전부 꿰고 있습니다. 희귀병조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아가씨께서 희귀병이 아니실까 하여 진찰을 더 자세히 했지만, 아가씨께선 정말로 건강하십니다.”

간간히 몇몇 의사들은 말했다. 혹시 아라네아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한 의사들은 없었지만 은근히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대답하는 의사들은 있었다. 결국 의사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멀쩡한 딸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공작부부는 결론을 내렸다. 아라네아는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을. 어째서 아라네아가 심장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쩌면,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며 공작부부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아라네아는 아직 약혼도, 혼인도 올리지 않은 여전히 미혼인 젊은 공녀였다. 일반적으로 고위 귀족 가문의 자제일수록 약혼과 혼인하는 속도는 빨랐으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귀족가의 공녀들은 대부분 17~19세에 혼인을 올리는 것이 적정한 시기였다. 하지만 벌써 아라네아는 그 적정한 시기가 지난 스물 둘의 나이. 이미 아라네아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공녀들은 전부 혼인을 하여 아이까지 있었지만, 아라네아는 여전히 공작부부의 귀한 외동딸로서 그 흔한 정략 약혼자조차 없이, 마차를 타고 왕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매번 질리도록 오는 왕성이건만 아라네아는 왕성의 복도를 걸을 때면 지나가는 시녀나 하녀들의 수다 떠는 이야기들이 매번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요즘 시녀들과 하녀들의 관심사는 이번에 왕태자로 책봉된 에른스트인지 우연히 시녀무리들을 지나던 도중, 발걸음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라네아를 멈추게 했다.

“너 그거 들었어? 이번 연회에서 글쎄, 왕태자전하가 어떤 공작가의 공녀님에게 춤을 신청하셨다고 하잖아! 거기다 그 공녀님이랑 꽤 깊은 사이인지 혼담 이야기도 오고간다고 하더라.”

“어머! 그게 정말이야?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부럽다. 나도 왕태자전하와 춤 한번 춰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야, 꿈 깨! 우리 같은 일개 시녀가 왕태자전하의 눈에 차기라도 하겠어?”

“그래도 꿈은 크게 가지라잖아! 혹시 모르지. 왕태자전하께서 나중에 왕위를 이으시고 국왕폐하가 되신다면 우리 중 누군가가 신분 상승할지 어떻게 알겠어?”

“신분 상승이라 해봤자, 첩 자리인 백작부인 자리밖에 더하겠어?”

꺄르르 웃으며 어느덧 귀에서 멀리사라지는 시녀들의 목소리에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던 아라네아는 멍하니 발밑만을 보며 눈을 깜박였다.

“공작가의 공녀...”

시녀들이 지목한 공작가의 공녀가 자신이 아니란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에른스트의 왕태자 책봉식을 축하하고자 바로크 국왕이 친히 열은 왕성연회. 하지만 아라네아는 그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성에 오는 발걸음은 여전했지만 예전만큼 그 횟수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많아 봤자 한 달에 두 번 꼴. 귀족들의 부담스러운 시선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에른스트. 아라네아는 예전만큼 에른스트를 대하기가 어려웠다. 반대로 에른스트는 여전히 자신을 친구처럼 그리고 평소처럼 대하지만, 아라네아는 그럴 수가 없었다.

에른스트를 볼 때면 점점 이제 그의 곁으로 감히 가까이할 수 없는 사람임을 느꼈다. 마치 후광에서 빛이나 눈이 부신사람처럼, 에른스트는 더욱 빛이 났다. 벌꿀을 바른 금발머리는 이제 단정히 빗어 올려 그의 인상을 강직하게 만들었고, 녹음과도 같던 에메랄드빛의 눈동자는 여전히 빛이 나고 있음에도 어렸을 적의 그 빛나는 눈동자와는 확연히 달랐다. 진중하고도 숲에 빠진 것처럼 깊어진 눈동자. 그리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정도로 차이가 큰 신장의 차이와 검술로 단련된 탄탄한 그의 몸을 보면 이젠 완전히 왕자의 티를 벗은 왕위의 다음 후계자의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건 자신의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의 따끔함이 가라앉기는커녕 그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또 이상하게 에른스트의 곁에 있으면 에른스트조차 자신을 보며 뭐에 들뜬 것이냐고 말 할 정도로 감정은 들떠 있었다. 고통을 주었다가 감정을 들뜨게 하는 제멋대로의 심장. 에른스트의 곁에만 있으면 심장이 하루 종일 진정되질 않아 결국 아라네아는 스스로 발길을 점점 줄여야만 했다.

오늘조차도 원래 왕성에 올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기어이 여기까지 온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에른스트 때문이었다. 친구로서 자신의 왕태자 책봉을 축하해주러 안 오냐는 에른스트의 투정. 다른 이들에겐 전부 축하의 인사를 받았으나, 유일하게 자신에게만 그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에른스트의 엉뚱한 요구에 아라네아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책봉을 축하해주고자 왕성으로 와야 했다.

아라네아는 쓸데없는 생각을 지우고자 얼른 에른스트에게 가기위해 그가 기다리고 있을, 제3궁, 제논 궁전으로 향하려 할 때였다.

“아라네아!!”

에른스트만큼이나 어엿한 왕자의 모습을 갖춘 위스턴 왕자의 모습을 보며 아라네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다.

“위스턴 왕자전하.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아라네아. 그동안 잘 지낸 거야? 한동안 아라네아의 얼굴이 뜸해서 많이 걱정했어. 내가 편지라도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왕자란 신분 때문에 대놓고 아라네아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형과 한 살 차이인, 열여덟의 왕자임에도 신기할 정도로 에른스트와 위스턴, 두 형제는 전혀 닮지 않았다. 분명 돌아가신 왕후폐하의 한 배에서 태어난 피가 진하게 이어진 형제임에도 두 형제는 성격도, 외모도 천차만별일 만큼 그 개성이 뚜렷했다. 어렸을 때는 그토록 재잘재잘 떠들던 왕자였건만, 시간이 흘러 성숙해진 탓인지 위스턴 왕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더 이상 눈앞에 없었다. 그 모습은 그저 아라네아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

“그보다, 어디 가는 길이야? 설마 나 보러 온 거야?”

“아니요. 에른스트 왕태자전하께서 부르시어, 제논 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 형님….”

어쩐지 자신을 보러 와주길 기대한 위스턴 왕자의 얼굴은 아쉬움이 가득 배어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지 입술을 몇 번이고 움찔하던 위스턴 왕자는 끝내 자연스럽게 미소를 그리며 아라네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어차피 나도 형님께 볼일 있던 참이었으니까.”

어쩌다보니 위스턴 왕자를 만나,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제논 궁전에 도착한 아라네아는 곧 에른스트를 불러오겠다는 시녀의 말을 따라, 응접실에서 위스턴 왕자와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아라네아.”

“예, 왕자전하.”

위스턴 왕자가 따라주는 찻잔을 받아들여 아라네아는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 살짝 입을 벌려 갈증 나던 목을 축이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혀가 차를 음미하기도 전에 곧이어 들린 위스턴 왕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라네아는 지금 자신이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다.

“좋아해. 아라네아,”

“...예?”

“형님과 똑같은 친구로서가 아닌 너를 이성으로서, 여인으로서 너를 좋아해. 아니, 사랑하고 있...”

그때, 무슨 일인지 달칵하는 문소리가 들려 아라네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음으로 어떤 표정이라 말하기가 어려운 에른스튼이 아라네아와 위스턴 왕자를 보며 서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방해한 것 같군.”

방해를 했다며 도로 문을 닫고 나가려는 에른스트의 모습에 아라네아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에른스트를 붙잡으려 했다.

“왕태자 전──.”

“아라네아!”

에른스트의 뒤를 따라가려던 아라네아. 그리고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잡은 위스턴 왕자. 아라네아는 손목이 꼼짝없이 붙잡혀 에른스트의 뒤를 끝내 따라갈 수 없었다. 굳이 에른스트의 뒤를 따라갈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위스턴 왕자가 제게 고백한 그 말들을 아라네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그 말을 들은 에른스트의 뒤를 아라네아는 쫓아가고 싶었다.

“아라네아, 형님을 쫓아가지 말아줘. 지금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고백을 했는데도 형님을 쫓아가겠다는 거야?”

위스턴 왕자가 잡은 손목이 저릿할 만큼 꽉 잡는 악력에 아라네아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좁히고 말았다. 그 고통이 상당해 아라네아는 손목을 붙잡은 그의 손을 떼어놓고자 있는 힘껏 손목을 끌었으나 떨어지기는커녕, 순식간에 바로 앞까지 점점 다가오려는 왕자의 모습에 아라네아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왕자전하. 잠시 손목을 놓아주시면….”

“아라네아. 좋아해. 사랑해. 처음 너를 본 그 순간부터 줄곧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

“와, 왕자전하.”

“아라네아. 아라네아!!”

이 손을 떼어놓지 않으면 마치 미쳐버린 괴물에 집어삼켜질 것 같아 아라네아는 다가오려는 위스턴 왕자를 있는 힘껏 밀쳐냈다. 갑작스러운 밀침으로 아라네아를 단단히 붙잡고 있던 손이 떼어진 위스턴 왕자는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그 자리에, 파도처럼 흔들리는 눈으로 아라네아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라네아의 표정은 위스턴 왕자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었다.

“왜 저 같은걸 좋아해주시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왕자전하를 이성으로서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 그 마음조차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위스턴 왕자전하.”

더 이상 위스턴 왕자와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던 아라네아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위스턴 왕자가 정확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아라네아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갑작스레 저돌적으로 변해버린 위스턴 왕자가 무서워 아라네아는 어서 빨리 공작저로 돌아가고픈 마음 뿐 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라네아는 저에게 온 위스턴 왕자의 편지 한통을 받을 수 있었다. 거친 행동을 보였던 사과와 고백에 거절당했음에도, 그래도 끝까지 저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다는 위스턴 왕자의 마음. 아라네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위스턴 왕자가 보낸 편지를 도로 접어 책상 서랍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곤 완전히 닫아버렸다.

“사랑… 이란 건 대체 뭘까….”

어쩌면 평생을 풀지 못할 제 자신을 향한 문제일지도 몰랐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도, 하물며 그것보다 더 충만한 사랑이란 감정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얼음 공녀. 모두가 저를 그렇게 불렀다. 감정이 없기에 표정이 늘 무표정이기에 감정 따윈 없는 북풍설한의 얼음 같은 공녀라고, 모두가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것을 아라네아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제 자신을 가장 잘 알기에 아라네아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 따위 평생 생겨나지 않을 거라 자신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없기에 누구보다 무뚝뚝하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가 없기에 더더욱 자신했다. 하지만 그 예외를 깬 건 위스턴 왕자. 위스턴 왕자가 대체 자신의 무엇을 보고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지 아라네아는 알지 못했다. 또, 알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무심히 가버린 에른스트의 뒷모습만이 아라네아의 기억 속을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다.

“다시, 축하인사를 드리러 가야겠지? 그리고…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해야 하고….”

분명 오해할 상황은 아닌데, 어째서 자신이 그날의 일을 굳이 변명해야하는지 아라네아는 이젠 제 자신의 마음조차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라네아는 다음날 다시, 왕성으로 향했다. 어찌됐든 그가 친구로서 축하의 인사를 받길 원하니 아라네아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다. 하지만 에른스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아라네아가 생각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다.

“아라네아. 우리… 이제 친구 그만할까?”

아라네아는 혹시 그의 심기를 거슬린 행동을 했나 유심히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러나 에른스트의 녹음의 눈동자는 한 없이 진중했고, 그 진중한 눈빛이 친구 사이에서 확연한 거리를 벌리는 그저 왕태자와 공작가의 공녀 사이를 바라는 것 같아, 아라네아는 ‘왜’냐고 반문할 수 없었다.

쿵, 하고 다시 심장이 아팠다. 하지만 평소의 따끔거림이 아닌, 마치 거대한 못이 심장의 중심을 향해 쾅, 하고 박아버린 아릿한 고통이라 아라네아는 끝내 고개를 숙여 에른스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간신히 입을 떼어냈다.

“왕태자전하께서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태자자리에 책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날 이후, 아라네아는 왕성에 가는 일이 없었다. 완전히 끊어낸 발걸음. 시간이 흐를수록 왕성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들어들긴 했지만, 에른스트의 선언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개인적으로 갈일은 전혀 없었다. 아라네아는 혹시나 저를 걱정할 공작부부에게 깊은 이야기까진 하지 않았지만, 적당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실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그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공작가의 공녀로서 자꾸만 발을 들이는 것을 귀족들의 입에 입방아 오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더욱이 부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가장 마음을 움직일 이유로 설명을 했고, 다행이도 부부가 이해해준 덕에 아라네아는 완전히 왕성에 발길을 끊어낼 수 있었다.

다시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저에게 보내는 위스턴 왕자의 절절한 고백이 담긴 편지는 끝이 없었고, 간간히 참석한 사교모임에서 아라네아는 이제 혼인해야지 않겠냐는 귀부인들의 작은 오지랖을 들어야만 했다. 이제는 거의 혼인 적령기가 지나버린 스물넷의 나이. 바로크 국왕의 신임과 총애를 가득 받는 미르세니안 공작가의 딸임에도 아라네아를 원하는 귀족가의 자제들은 없었다. 여전히 입바른 말로 외모만을 추켜세우는 귀족자제들은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아라네아 보다 한참 연하이거나 혹은 약혼녀가 있는 자제들. 어디를 가도 공녀들이나 공자들에겐 저마다 반려가 있었지만, 아라네아는 언제나 혼자였다.

여느 때처럼 사교모임에 조용히 참석하고 있던 아라네아는 십 분만 더 참고 공작저에 돌아갈 생각을 하며 지루한 시간 속에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다.

“공녀,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바르토벨른 공작가의 공녀 말이에요.”

“그 공녀가 왜요?”

“어머, 아직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바르토벨른 공녀랑 왕태자전하의 혼담이 진행 중이래요! 조만간 왕태자 전하의 태자비는 바르토벨른 공녀가 된다는 이 말이죠!”

“뭐, 뭐라고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그 순간, 아라네아는 제 심장에 거대한 말뚝이 단단히 박혀 빠지지 않는 옥죄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이제 더는 아프지 않을 심장이라 생각했는데, 왜 이토록 그의 이야기만 들리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걸까.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아라네아는 고통에 신음을 삼켜야 했지만, 어찌됐든 한때는 그의 친구였던 이로서 축하해야할 일이 아니던가. 그가 드디어 반려를 맞이해 혼인을 한다 생각하니, 두 손을 벌려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로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아라네아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내려 무릎위에 다소곳이 있어야할 자신의 두 손을 보았다.

가만히 있어야할 두 손은 어째서인지 드레스가 찢어질 만큼 꽉 붙잡고 있었다. 박수를 쳐주긴 커녕 이 두 손은 드레스를 갈가리 찢어버릴 것 같아 아라네아는 자신의 두 손이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간신히 사교모임을 마치고 공작저로 돌아온 아라네아는 공작의 부름에 침실이 아닌, 집무실로 향해야 했다. 집무실에 들어가 잔뜩 쌓인 서류를 작성하는 공작을 보며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어느 정도 일거리를 마쳤는지 공작은 아라네아에게 왕실 인장이 찍힌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다.

“아라네아 받거라. 너에게 온 초대장이란다.”

“초대장… 이요?”

“그래. 이번에 폐하께서 특별히 왕태자전하를 위한 탄생일 연회를 직접 주최하신다 하더구나.”

“그럼 이 초대장은 폐하께서 보내주신 건가요?”

당연히 국왕이 보낸 초대장이라 생각한 아라네아는 여전히 흥미가 가지 않는 눈길로 초대장을 물끄러미 봤지만, 공작에게서 나온 대답은 의외의 말이었다.

“아니. 왕태자전하께서 직접 나를 통해 건네주셨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지. 너에게 이 초대장을 전해주라고. 네가 오길 원한다고.”

“어째서… 왕태자 전하가….”

“어찌 하겠느냐. 연회에 참석하겠느냐?”

공작은 성급히 아라네아를 재촉하지 않았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딸의 신중한 선택을 기다리고자 그것이 몇 분이 되었든 공작은 조용히 아라네아의 기다렸다. 공작의 시선이 줄곧 자신에게 닿고 있음에도 한참 동안 초대장에서 시선을 뗄 수 없던 아라네아는 끝내 결정을 내렸다. 어째서 그가 자신에게 직접 이 초대장을 전해주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만남일 수도 있기에 아라네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연회에 참석할게요.”

연회가 열린 당일. 아라네아는 공작부인이 심열을 기울여 꾸민 장신구와 드레스를 입고서 마차를 타고 왕성으로 향했다. 연회라고 해봤자 아라네아의 목적은 에른스트와의 짧은 만남이라 생각했기에 그저 적당하고, 가장 단정해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서 에른스트를 만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왕성의 연회란 이유만으로 공작부인의 지휘 아래에 거의 인형처럼 입혀진 아라네아는 처음으로 입은 화려한 드레스차림으로 한껏 치장하여 왕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왕성에 도착해, 연회장에 들어간 아라네아는 그저 남들의 눈을 피하고자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에 앉아 연회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구석진 곳에 앉았음에도 어째서인지 유독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줄지 않아 슬슬 이 자리가 불편해지려던 아라네아는 이젠 테라스에 숨고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우리의 위대한 태양이신 국왕폐하와! 작은 태양이신 에른스트 왕태자 전하 납십니다!!”

국왕과 왕태자의 등장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을 크게 울렸다. 굳게 닫혀있던 회장의 문이 열리며 대리석 바닥으로 길게 이어진 붉은 융단위로 국왕을 선두로 그 뒤에 왕태자인 에른스트가 뒤 따르고 있었다. 가장 최고 서열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등장으로 자리에 앉아있던 귀족들은 물론,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귀족들 모두 허리와 무릎을 굽혀 국왕과 왕태자를 향해 예를 갖췄다.

예를 차린 귀족들처럼 아라네아 역시 귀족의 본분을 다하고자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살짝 드레스 자락을 붙잡아 허리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곧이어 자세를 피라는 국왕의 목소리에 아라네아는 고개를 들어 에른스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년 동안 못 본 그의 모습은 2년 전보다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그 어느 것 하나 감정이 담겨있지 않는 서늘한 눈매와 표정조차 없는 얼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지만 너무나도 달라진 그의 모습에 도리어 아라네아는 어색히 느껴졌다. 그가 정말로 에른스트 왕태자가 맞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2년 전의 에른스트의 모습은 이곳에 없었다.

국왕의 짧은 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면서 장내는 악사들의 잔잔한 연주가 연회의 분위기를 한껏 돋게 했지만, 아라네아는 선뜻 에른스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멀리서도 전부 보일만큼 귀족들에게 둘러 쌓여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특히나 공녀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에른스트의 모습에 아라네아는 더욱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어찌됐든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그가 보낸 초대장 덕이었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 어쩌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기에 어색한 드레스를 입고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에른스트에게 인사를 하고자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던 아라네아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공녀들을 저절로 물리며 그의 앞에 나타난 한 공녀로 인해 아라네아의 발걸음은 다시 제자리에 서고 말았다.

“어머, 바르토벨른 공녀가 아닌가요? 역시 소문대로 바르토벨른 공녀와 왕태자전하의 혼담이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인가 봐요.”

“이렇게 보니,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라네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이곳의 공기가 숨이 턱턱 막히고 다시금 아라네아의 심장을 아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아라네아의 고개를 완전히 돌리게 한건, 에른스트의 미소 때문이었다. 그 미소가 그려지기 전, 아라네아는 아주 찰나의 순간 에른스트의 눈동자와 분명히 마주쳤었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아라네아에겐 관심조차 없는지 바르토벨른 공녀에게로 향해, 시선이 사로잡을 미소를 덧그렸다.

그 모습을 아라네아는 더 이상 온전히 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혼담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어째서인지 아라네아는 축하하고 싶은 마음보단 서운하고 생전 있지도 않던 미운감정이 휘몰아쳐, 머릿속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렸다. 더는 이곳에 있다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아라네아는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 조용히 연회장에서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 이제 정원을 지나려 할 쯤 이었다.

“미르세니안 공녀.”

한발자국 땅에 내딛던 아라네아의 발걸음이 멈춰버렸다. 익숙하면서도 이젠 익숙히 들리지 않는 그의 목소리가 아라네아의 귓가를 붙잡았지만, 아라네아는 뒤돌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를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이번엔 성이 아닌, 다정히 이름으로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아라네아는 결국 그를 향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라네아.”

“…왕태자… 전하….”

“바보같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요?”

에른스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라네아는 알지 못했다. 눈물을 흘릴 만큼 서글픈 감정을 느껴본 적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에 아라네아에게 있어 슬프다는 감정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에 나올법한 생소한 단어였다. 그러나 에른스트의 흔들림 없는 눈과 목소리에 혹시 저에게 일부로 장난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아라네아는 손끝으로 눈가를 만진 순간, 이제야 알아 챌 수 있었다. 정말로, 그의 말대로 자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왜… 제가 눈물을 흘리는지 저는 잘….”

“너의 눈물이 나올 만큼, 무언가에 상처받아 슬픈 감정이 북받쳤으니까.”

“…제가요?”

“아라네아, 날 사랑하고 있어?”

“...예?”

남들에겐 쉬운 단어일지 몰라도, 아라네아에게 있어선 어색하고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머나먼 단어와도 같았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어색한 단어에 아라네아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아니, 말을 정정할게. 아라네아가 날 좋아하지 않던 사랑하지 않던 더 이상 상관없으니까. 아라네아,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왕태자전하….”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 든 건 아니었어. 그저 언제부턴가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눈이 너를 계속 쫓고, 내 가슴이 유독 너에게만 뛰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건, 2년 전… 위스턴이 너에게 고백을 했던 그날이지. 나도 참 바보 같지? 나보다 먼저 너에게 고백한 위스턴이 선수를 친 게 분했지만, 그것보다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놨어. 왜 그 감정을 누군가로 하여금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나는 그 감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너에게 먼저 내 마음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너를 친구로서 두기가 어려웠어. 그리고 더 이상 친구로서 있기도 싫었고. 너를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여인으로 계속 보게 될 테니까.”

2년 전 그날. 아라네아는 그가 더 이상 친구의 관계를 그만두고 싶어 내린 결정이라 생각했다. 어차피 친구라 불리기에도 애매한 관계였지만, 그날 친구 관계를 그만두길 선언하던 에른스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고, 어서 이 관계를 끊고 싶은 모습처럼 보여 아라네아는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의 착각. 에른스트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더 이상 잇고 싶지 않았을 뿐, 이성으로서 한 사람의 연인으로서 그저 아라네아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너는 그 2년 동안 왕성에 한번 발을 딛지 않았지. 이해해. 그때의 난 너에게 앞뒤 설명도 없이 그저 친구관계를 끊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넌 그저 그렇게 받아들인 것뿐이고. 하지만 네가 계속 오지 않을 때마다 조금은 미웠어. 나도 감정이 둔하지만 너도 감정이 둔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내 곁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으니까.”

“...”

“그래도 유일하게 진심으로 내 생일의 축하의 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너였어. 아라네아. 또 지금에 와서 그때의 일을 사과하고 싶었지. 만약 네가 나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왕태자로 보고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너의 친구로 다시 남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네 모습을 본 순간 그럴 수가 없었어. 너는 지금도 내 눈엔 가장 아름답고 여인으로 보이니까. 나는 이토록 너를 여인으로 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왕태자로서 보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심술이 나, 바르토벨른 공녀를 이용하고 말았지. 조금이라도 질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에게 보여주지 않던 억지 미소를 보였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울리고 말았어. 나… 너무 쓰레기 같지?”

“…왕태자 전하.”

“아라네아, 다시 한 번 말할게.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아라네아는 가슴의 옷깃을 꼭 쥐었다. 여전히 아릿하게 아파오는 심장의 아픔. 그러나 에른스트가 바르토벨른 공녀에게 보여주었던 미소가 진심이 아닌, 거짓임을 알게 된 순간 희한하게도 그 아픔은 사라지고 없었다. 단지 아픔만이 사라졌을 뿐, 여전히 심장 속에 잔잔히 남아있는 아릿함이 지워지지 않았지만 아라네아는 그 아릿함이 전부 에른스트를 향한 고통과도 같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저는 왕태자전하의 말처럼 감정이 둔하죠. 사랑이란 달콤한 감정도 모르죠. 하지만… 왕태자전하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이 심장이 아팠어요. 왕태자 전하의 곁에 있으면 언제나 가슴이 평소보다 더 두근거렸죠. 왕태자 전하. 지금 제가 느끼고 이 감정이 왕태자 전하가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건가요? 저는 왕태자 전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너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어. 네 마음은 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면 믿어. 그리고 네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해.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두근거린다면, 날 볼 때마다 아프다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건 사랑이라고. 날 사랑하는 거라고.”

꽃잎이 흩날리는 어느 연회의 날. 아라네아에겐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다. 처음엔 금방 지나갈 고통이라 생각했지만 그 고통은 아라네아에게 있어 평생을 지워낼 수 없는 고통이자,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이기도 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 했지만, 아라네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아라네아는 이미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아라네아의 마음은 서서히 에른스트를 향해 한 사람을 향한 꽃봉오리를 서서히 피고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찾아오는 봄과도 같은 ‘첫사랑’의 꽃. 아라네에게 있어, 에른스트는 첫사랑이란 감정을 갖게 한 꽃의 주인이자 마지막 사랑의 주인이기도 했다.

왕국의 최대의 스캔들이자 모두가 놀란 왕태자의 혼인. 바르토벨른 공녀와의 혼담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귀족들 사이에 퍼지면서 모든 귀족들은 당연히도 왕태자비는 바르토벨른 공녀라 단언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왕태자는 ‘얼음 공녀’라 불리는 미르세니안 공녀를 선택했으며, 왕태자에게 굉장히 엄하기로 소문난 국왕조차 두 사람의 혼인을 적극 추진했다.

워낙 얼음 공녀란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아라네아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겉으론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줬음에도 속내는 달랐다. 국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미르세니안 공작.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공작과의 인연을 확고하게 맺고자 귀족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정치적인 정략혼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라네아와 에른스트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눠가지며 어서 식을 올릴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초록빛과 분홍색의 꽃잎이 만연한 따뜻한 봄의 계절. 아무래도 왕태자의 중요한 혼인식이기에 국왕과 공작부부는 준비기간을 1년을 거쳐 가장 성대한 혼인식을 봄이 되어야 열 수 있었다.

공작부인이 심열을 기울여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몇 달을 걸쳐 만든 새하얀 드레스. 신부를 위한 완전한 순백의 드레스는 아니지만, 왕태자비로서의 기품과 우아함, 그리고 생에 단 한번뿐인 혼인식이기에 공작부인은 특별한 드레스를 아라네아에게 선물했다.

“세상에, 너무 아름답구나. 아라네아.”

신부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붉은색. 하얀색과 붉은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드레스는 걸작이라 할 만큼, 눈이 부시도록 빛났으며 아라네아의 몸에 맞춰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부 드레스였다. 백금과 순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둥근 티아라에는 12개의 가넷이 박혀 있었고, 티아라 밑으로 고정되어 발밑까지 내려온 하얀 면사포는 오직 에른스트만이 볼 수 있도록 불투명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아라네아.”

“네, 어머니.”

부케를 들고 있는 아라네의 두 손을 다정히 잡은 공작부인은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 새로운 미래로 출발할 딸의 얼굴을 보며 감격의 눈물과 동시에 아쉬운 눈물을 맺혀야 했다.

“그렇게 어리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거늘, 어느새 어엿한 여인이 되어 너는 한사람의 반려가 되었구나.”

“…어머니.”

“이제는 내 딸이 아닌, 왕태자비전하로서 너를 공경히 대해야 하지만 만약, 그 자리가 힘들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면 이 어미한테 오도록 하거라. 이 어미는 언제든지 미르세니안 공작저에서 내 딸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전부 표현하렴.”

저를 향해 이토록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라네아는 본적이 없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리게 다가와 눈물이 맺혔지만, 이 기쁜 날 신부의 눈물을 결코 흘리게 할 수 없다는 그녀의 목소리에 아라네아는 그 눈물을 참으며 어떡해서든 미소를 지어보려 노력했다.

왕성에서 열리는 성대한 혼인식. 본격적인 식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참석하고자 공작부인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신부대기실을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나 홀로 남은 신부대기실에 혼자남은 아라네아는 동시에 입장할 에른스트를 누구보다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똑똑, 하는 노크소리에 아라네아는 드디어 에른스트가 도착했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이 열려 아라네아는 요즘 들어 에른스트에게 자주 보여주는 미소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 미소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위스턴… 왕자전하….”

“…아라네아.”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면사포에 가려진 것에 다행이라 생각한 아라네아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마음을 절실히 고백한 위스턴 왕자. 3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토록 거절했음에도 끈질기게 고백을 멈추지 않은 위스턴 왕자의 행보를 아라네아는 잘 알고 있었다. 수백 통에 달하는 그의 편지. 그리고 편지가 쌓일수록 무섭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집착에 아라네아는 더 이상 위스턴 왕자를 평범하게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이도 바로크 국왕은 자꾸만 옆으로 빠지려는 위스턴 왕자를 내심 걱정했는지 위스턴 왕자의 안정을 찾아주고자 1년 전, 에른스트와의 혼담 스캔들로 유명했던 바르토벨른 공녀와 혼인을 맺게 되었다. 바르토벨른 공녀와의 혼인으로 위스턴 왕자는 거세게 반발했으나 에른스트만큼 권력이 없던 2왕자에 불과한 그는 국왕의 압력으로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위스턴 왕자의 혼인을 가장 정치적인 정략혼인이라며 위스턴 왕자와 바르토벨른 공녀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들을 많이 보내곤 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 차츰 정략혼인에 적응이 된 건지 위스턴 왕자는 바르토벨른 공녀, 아니 이제는 카타리아 왕자비라 불리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왕손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엿한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카타리아 왕자비의 반려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여인으로 바라보는 위스턴 왕자의 모습을 아라네아는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선을 긋고자 아라네아는 면사포로 가려진 서늘한 눈을 하며 위스턴 왕자에게서 고개를 돌려 버렸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신부의 대기실이자, 왕태자비의 대기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왕자전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기에 전, 한 사람의 반려자로서 왕자전하와 이야기를 나눌 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알면서도 어째서 그토록 매정할 수 있는 건데! 첫눈에 반한 것도 내가 먼저였고, 너에게 고백한 것도 내가 먼저였어!! 형님보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왜 하필 형님인거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 형님이 모든 것을 가진 왕태자이기에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눈이 뒤집혀진 위스턴 왕자가 성큼 걸어가 아라네아의 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그때 문이 열리면서 호위기사들과 함께 들어온 에른스트는 차가운 눈을 하며 위스턴 왕자를 향해 외쳤다.

“위스턴!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혀, 형님.”

“네가 아라네아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널 몇 번이고 이해하려 했지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오늘부로 내 반려인 왕태자비에게 함부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나는 널 왕태자로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호위기사들은 어서 위스턴 왕자를 끌어내라.”

“형님이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누구보다 아라네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전부 가져가지셨으면서! 아라네아마저 왜 제게서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 형님! 형님!!”

양쪽 팔이 붙들려 호위기사들의 손에 끌려 나가는 위스턴 왕자의 모습을 에른스트는 돌아보지 않았다. 위스턴 왕자와 호위기사들이 빠져나간 요란스러웠던 신부의 대기실. 어느새 차분해진 실내의 정적 속에 호흡을 가다듬던 에른스트는 아라네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중히 손을 내밀었다.

“미안. 오늘같이 기쁜 날, 괜한 소란은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왕태자전하.”

“그래도 웃자. 오늘은 너와 나, 하늘이 축복해주는 가장 뜻깊은 날이니까.”

그가 내민 손 위로 아라네아는 자신의 한쪽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로의 손바닥이 닿는 각자의 온기. 제 손에 내려앉은 아라네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은 에른스트는 그녀를 이끌었다.

“가자, 아라네아. 너와 내가 서로 마주보며 걷게 될 시작점으로.”

성대하게 시작되고 성대하게 막을 내린 두 사람의 혼인식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이윽고 부부의 연을 맺어 어느덧 시간은 다시, 한 번하고 두 번의 해가 흘러갔다. 카타리아 왕자비가 낳은 윌리스 왕손이 벌써 3살이 되어 무럭무럭 건강히 크고 있을 동안, 아라네아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회임. 에른스트의 왕태자비가 된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아라네아에겐 회임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에른스트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며 아라네아를 다독였지만 왕태자비가 된 이상, 왕가의 사람이 된 이상 회임은 아라네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아직은 아이가 없는 지금이 좋다며 에른스트는 여유로웠지만, 바로크 국왕과 공작부부는 아라네아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어도 에른스트의 핏줄을 은근 바라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왕실 의사를 불러 진찰을 해봤지만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다. 정말로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주기라도 하는지 회임의 문제로 한동안 우울해진 아라네아에게 에른스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네아. 이번 기회에 당신과 나,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바람… 이요?”

“응. 계속 왕성에 있기에는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제 왕실의 일에도 적응이 되었을 텐데 한번쯤은 기분전환도 해줘야지.”

“…에른.”

이제는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더욱 부부로서 가까워진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왕성에서도 소문난 애처가라 불릴 만큼 유난히 아라네아를 극진히 챙기던 에른스트는 회임 문제로 계속 우울하던 아내를 위해 국왕에게 특별허가를 받아 3일 동안의 달콤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한 수도가 아닌, 물 좋고 바람 좋고 그리고 조용할 시골 마을의 목표로 소수의 일반인으로 위장한 호위기사들과 함께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움직였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수도 밖의 작은 마을. 그래도 간간히 여행객들의 발길이 닿는 곳인지 볼거리도 적당히 있어, 두 사람에겐 이곳은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나 다름없었다. 매번 서류더미에 쌓여 밤까지 새야했던 에른스트. 아직까지 바로크 국왕은 국정을 계속 진두지휘할 만큼 정정하기에 귀족들 사이에서도 선위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물론, 선위에 관한 민감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뿐이지 눈치가 없는 귀족들 사이에선 아라네아의 소식 없는 회임 소식을 간간히 저격하고 있었다.

왕성에 있으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될 귀족들의 할 일 없는 헛소리. 에른스트는 비록 3일 뿐이지만 최선을 다해 아라네아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몸소 움직일 작정이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3일 동안 에른스트는 충분히 아라네아를 데리고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다. 여행객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있는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 지역만의 관광 명소를 찾아가 구경을 한다거나. 또 운이 좋게도 마을에는 당시 축제기간이었는지 시골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거리를 구경하며 아라네아와 함께 에른스트는 만족스러운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당일. 수도로 출발하기 전, 근처의 여관에서 조금 떨어진 과일 가게에 들려 혹시라도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먹기 좋은 달콤한 과일을 살 생각이었다. 상큼한 향기가 가득한 알록달록 색의 과일들을 보며 신중히 고르던 아라네아에게 누군가 새빨간 작은 과일을 내밀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 맘 때쯤이면 이 마을에선 이 과일이 제철이거든요.”

아라네아는 고개를 틀어 자신에게 작은 과일을 내민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새빨간 과일처럼, 또는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유난히 붉은 머리가 인상적인 여인이었다. 그리고 유난히 태양처럼 빛나는 샛노란 눈동자에 저가 비치는 모습이 보인 아라네아는 이번엔 살짝 시선을 내려 그녀가 안고 있는 작은 생명을 볼 수 있었다.

아라네아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작은 생명에게로 향했음을 금방 알아챈 붉은 머리의 여인은 굉장히 말괄량이 같은 미소를 그리며 아라네아에게 한번 권유했다.

“한번 안아보실래요?”

“제가… 안아도 되나요?”

“으음, 원래라면 누군가에게 함부로 안기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당신이라면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자, 한번 안아 보세요. 어서요.”

여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아라네아는 조심스럽게 갓난아이의 머리를 받쳐, 다른 손은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그리고 단단히 품에 안아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작고 연약한 생명은 몸을 꼬물꼬물 움직이며 아라네아의 품을 더욱 파고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작은 등을 토닥이니, 여린 작은 생명의 심장소리가 하나의 듣기 좋은 악기처럼 아라네아의 모든 청각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어머나, 루카가 당신의 품이 좋은가 보네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워낙 감응이 뛰어나서 자신을 안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분간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아이가 울지 않는 건….”

“루카가, 당신을 착한사람이라 판단해서 울지 않는 거겠죠?”

특유의 분 냄새와 고롱고롱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이든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보였다. 이번엔 조금 자세히 보고자 살짝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니 아이는 여인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지 상당히 눈에 잊혀 지지 않는 예쁜 아이였다. 여인을 빼다 닮은 붉은 머리와 곱게 뻗어 닫혀있는 풍성한 속눈썹. 아마, 이 아이가 자란다면 여인만큼이나 아름답게 성장할지도 몰랐다.

“상당히 예쁜 아이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시집간다면 많이 슬프겠어요.”

“시집이요? 후후, 시집이라…. 아마 루카는 제가 예상컨대 시집은 못갈 걸요?”

“왜죠?”

“시집은 못가지만, 대신 장가는 갈 수 있거든요. 루카는.”

아라네아는 처음엔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잠시 동안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뒤늦게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아라네아는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로 여인에게 사과해야했다.

“미, 미안해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당연히 여자아인 줄 알고….”

“괜찮아요. 그만큼 루카가 예쁘다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때, 저 멀리서 아라네아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손을 젓는 에른스트의 모습이 시선에 닿았다. 아라네아는 안고 있던 아이를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안기며 잠시 동안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만약, 자신도 회임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저 아이만큼 예쁜 아기가 태어나게 될까? 아니, 예쁜 아이이든 아니든 아라네아에겐 중요치 않았다. 아이의 생명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을 일이던가. 아라네아는 저도 모르게 아직도 납작한 복부에 살짝 손을 대다가 이내 여인에게 인사를 전했다.

“아이를 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기다려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과일 사는 것을 잊어버린 채, 아라네아는 가게에서 벗어나 에른스트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가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기 전, 뒤에서 맑은 목소리로 외치는 여인의 작은 배웅을 받으며 아라네아는 다시 한 번 여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오세요! 그리고 그땐 둘이 아닌, 세 명에서 오길 바랄게요!!”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준 특이한 여인. 수도로 도착해, 다시 왕태자비 생활에 돌아갔음에도 아라네아는 한동안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세월이란 것은 정말로 눈 깜짝 할 사이 몇 번이고 지나갔다. 다시금 세 번의 해가 바뀌면서 아라네아에게는 여전히 회임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정작 카타리아 왕자비의 회임소식이 또 다시 들렸다. 몸은 멀쩡함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아라네아는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에른스트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뿐 이었다. 하지만 드디어 하늘이 간절한 바람을 들어줬는지 한 해가 지나서야 아라네아와 에른스트에게 너무나도 기쁜 경사가 찾아왔다.

바로 아라네아가 그토록 바란, 회임 소식. 이제 막 3주째로 접어든 아라네아는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 자신의 납작한 배를 정중히 쓰다듬는 에른스트의 손길에 부드러운 웃음이 나왔다.

“아이는 여자아이일까? 아님 남자아이일까? 네아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회임을 했다는 소식이 얼떨떨한걸요. 에른은 그럼,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면 하나요?”

“으음, 나는… 네아를 닮은 아주 예쁜 여자아이.”

“저를 닮은 여자아이요?”

아라네아가 이유를 묻는 눈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이자, 에른스트는 다정히 미소를 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모두가 날 닮은 다음 후계자인 왕자를 원하겠지만 나는 미안하게도 왕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겐 너무 미안하잖아. 모두의 관심이 첫째로 태어난 왕자에게만 향할 테니까. 그러니 가장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을 여자아이로, 왕녀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되면 남들처럼 딸 자랑을 마음껏 해보고 싶은걸.”

“…에른.”

아라네아는 에른스트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에른스트와 다르게 조금은 당연하게도 아라네아는 남자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왕족일수록, 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함을 잘 알고 있기에 아라네아는 여자아이에 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회임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다음 대를 이을 후계자를 낳는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에른스트처럼 넓은 시선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에른스트는 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시야로 넓게 보며 또, 깨닫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었다. 그의 반려이자 왕태자비가 됐음에도 아직 자신은 한참 멀었음을 생각하며 아라네아는 여전히 자신의 납작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에른스트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쳐 언젠가 태어날 미래의 아이를 위해 마음 속 깊이 사과를 전했다.

‘아가,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 하지만 너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어미는 네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저 건강히 태어나줬으면 하구나. 그리고 성별에 차별받지 않게 많이 나와 너의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러니 무럭무럭 무사히 자라만 다오. 알겠지?’

그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라네아는 집중적으로 태교에 들어가 아이가 태어날 해산달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해산달을 앞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큰 피바람이 아라네아의 눈앞에 다가오고 말았다.

해가 바뀐 겨울의 계절. 그리고 곧 다가올 해산달. 아라네아의 납작하던 배는 동산처럼 어느새 커져 있어, 제대로 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래도 곧 자신의 품에 안길 아이를 생각하며 조심, 또 조심을 기울이며 행동하던 아라네아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올해로 6살이 된 윌리스 왕손과 이제 막 2살이 된 케시아 왕손. 케시아 왕손은 이제 막 눈을 뜬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카타리아 왕자비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윌리스 왕손은 카타리아 왕자비의 옆에 앉아 물끄러미 테이블 위에 있는 쿠키를 보고 있었다.

“윌리스, 쿠키가 먹고 싶은 거니?”

비록 위스턴 왕자와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의 핏줄인 자식은 바로크 국왕의 귀한 첫손자이자 이제 곧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의 친척관계가 될 아이였다. 평소에도 윌리스를 좋게 보던 아라네아는 쿠키가 담긴 작은 바구니를 윌리스가 먹기 쉽도록 밀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자, 먹으렴.”

고사리 같은 손을 움직이며 쿠키를 먹길 바랐던 아라네아와 달리, 어째서인지 쿠키가 담긴 바구니는 다시 아라네아 쪽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윌리스를 향해 있던 아라네아의 시선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카타리아 왕자비에게로 향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왜, 윌리스가 먹게 두지 않고….”

“윌리스는 단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태자비 전하.”

“그런가요? 쿠키에 시선이 가있기에 좋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요. 윌리스 미안하구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눈을 깜박이며 저를 보고 있는 윌리스에게 아라네아는 작은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윌리스는 여전히 저를 빤히 보고 있을 뿐, 어린 아이의 귀여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윌리스에게서 시선을 떼어 카타리아 왕자비의 품에 안겨 있는 케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케시아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 이 상태로 말을 하기가 어려웠는지 왕자비는 유모를 불러 윌리스와 케시아를 맡기곤 바깥으로 내보내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왕태자비 전하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라네아가 작게 고개를 가로로 젓자, 왕자비는 붉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처음으로 아라네아를 향한 적의를 드러냈다.

“저는 왕태자비 전하가 싫습니다.”

“카타리아….”

“비록 정략혼인이었으나, 저는 제 나름대로 위스턴 왕자전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없을지라도 부부사이의 정이라도 있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결국은 여인으로 태어난 몸. 한 사람의 반려가 된 순간, 저 역시 사랑을 원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왕자전하가 모든 것을 잊고 저를 봐주길… 하지만 위스턴 왕자전하께서는 끝까지 왕태자비 전하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으시더이다.”

처음으로 알게 된 그녀의 마음. 그녀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다. 아니, 정말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전히 집착과 광기어린 눈으로 저를 보던 위스턴 왕자. 그리고 그의 옆에 서서 표정 없는 눈으로 저를 보던 그녀. 그 눈 속에는 그의 마음을 갖지 못한 여인으로서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왕자의 마음을 돌리지 원망과 적의를 깊은 내면에서 그녀는 인내하고 있던 건지도 몰랐다.

“처음에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스턴 왕자전하의 반려가 되고나서, 왕자전하의 마음이 계속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게 되면서 더더욱 왕태자비 전하를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전하껜 저라는 반려가 있는데 반려를 두고 다른 이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미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왕태자비 전하를 증오했는지 전하께선 모르실 겁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카타리아 왕자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젠 그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카타리아.”

카타리아 왕자비가 등을 지고 아라네아의 근처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곤 살짝 고개를 틀어 아라네아를 흘긋 보던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말처럼 아무런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증오도, 원망도, 미움도 없는 무감정한 눈빛.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무언가를 쟁취해 그 감정들을 표출할 가치가 필요치 않다는 눈빛과도 같아 아라네아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변화된 제 마음을 왕태자비 전하께 한번쯤은 전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곧 해산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사히 순산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말과 방문이었다. 하지만 당장 해산일이 눈앞이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라네아는 카타리아의 말을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은 금방 지나 바로 눈앞에 다가온 해산일. 며칠 뒤에 있을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자 전속시녀인 발레리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던 아라네아는 갑자기 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는 사색이 된 시녀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와, 왕태자비 전하!! 어,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왕성이! 그리고 국왕폐하께서!!”

“…뭐?”

이상하게 보일정도로 거의 칩거하듯이 자신의 궁전에 틀어박혀 한동안 잠잠하던 위스턴 왕자는 반란을 일으켰다. 소위 말하는 반 왕당파 세력의 귀족들과 합심하여 직접 반란의 주도자가 된 위스턴 왕자는 왕실 역사상에도 보기 힘든 최악의 패륜을 저지르며 제 아버지인 바로크 국왕을 직접 죽인 것은 물론, 국왕이 무너지는 동시에 자신의 세력과 왕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위스턴 왕자가 그런 생각을 품었는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왕성의 그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일어난 왕자의 반란에 바로크 국왕도, 에른스트도 대처할 수가 없었다. 왕성은 너무도 쉽게 왕자의 손에 장악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왕자의 편으로 돌아섰는지 국왕과 치열한 대립을 하던 세력이 넓은 귀족파들까지 왕자의 편으로 돌아섰으며 왕태자인 에른스트는 한순간에 벼랑으로 몰리고 말았다.

“네아!!”

“에, 에른!”

언제나 깨끗하던 그의 제복은 누군가의 붉은 피로 잔뜩 얼룩져 있었다. 그 이질적인 얼룩에 아라네아가 질끈 눈을 감아버리자, 에른스트는 서둘러 호위기사에게 받은 망토로 제복을 가려 아라네아에게 다가왔다.

“네아, 이제 괜찮아. 망토로 가렸으니까.”

“에른, 어떻게 된 건가요? 가, 갑자기 위스턴 왕자가 왜… 반란을…. 그리고 그게 사실인가요? 그가… 폐하를 정말로 죽인건가요?”

“…네아, 그것보다 지금은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해.”

발레리가 건넨 로브를 들어 에른스트는 혹시라도 아라네아가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단단히 입혀주며 손길을 서둘렀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불길함을 느꼈다. 왠지 에른스트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불안과 불길함이 아라네아의 목소리를 더욱 떨게 만들었다.

“에른, 같이… 같이 도망치는 거죠? 그렇죠?”

“...”

그러나 그 불길함이 정말로 맞아떨어졌는지 에른스트에게선 대답이 없었다.

“에른!!”

아라네아의 외침과 로브를 단단히 여미던 에른스트의 손길이 동시에 멈췄다. 제발 자신이 생각한 그 생각이 아니길 바라는 아라네아의 간절한 눈빛. 에른스트는 두 손을 들어 아라네아의 뺨을 감싸 서로의 이마를 맞대었다.

“네아, 지금부터 내말 잘 들어. 당신은 전속시녀랑 나의 호위기사와 함께 레인 궁에 있는 비밀통로로 빠져나가. 그리고 위스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쳐.”

“에른, 당신은요? 설마 나 혼자 도망치라는 건 아니겠죠? 제발… 나 혼자 가라고 하지 말아줘요! 나도… 나도, 당신의 곁에 남을게요. 그러니─!”

“아라네아, 난 당신을 위험 속에 둘 수 없어.”

“에른!!”

아라네아의 절박한 외침에도 에른스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 수 없다는 의지와 설령 제 목숨을 읽을지라도 아라네아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방패막이가 되어도 좋을 하찮을 목숨. 에른은 제 목에 걸려있던 백금의 펜던트를 빼내어 아라네아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이 펜던트는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이자 왕위 계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왕의 증표. 원래라면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직접 물려줘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에른… 제발… 제발….”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기를 바랐건만 아라네아의 두 눈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여전히 자신의 양 뺨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에른스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아라네아는 그 부드러움 속에 그도 작게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라네아가 흘리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훔쳐 주며 뺨을 어루만지던 에른스트는 한 손을 내려 이젠 로브조차 가려지지 않는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아라네아에게 대답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헤르녹스.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면 헤르세인. 폐하와 내가 요 한 달 동안 고심하여 만든 아이의 이름이야. 네아. 내가 만약, 당신이 있는 곳에 늦게 간다면 미리 아이에게 말해줘. 내가 얼마나 밤잠까지 설쳐가며 고생하여 만든 이름인지. 그리고 그만큼 사랑했다고… 알았지?”

아라네아를 감싸던 에른스트의 온기가 떨어졌다. 뺨을 어루만지던 손길도, 배를 쓸어주던 손길도 전부 떼어버린 에른스트가 두발자국 물러나 아주잠시 동안 아라네아를 응시하던 에른스트는 이내 입을 모아 명령을 내렸다.

“호위기사와 전속시녀는 듣거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태자비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라. 반드시. 그리고 지금 당장… 왕태자비를 데리고 이곳을 도망쳐라. 어서!!”

“아… 안 돼! 에른! 에른스트!!”

절규어린 아라네아의 목소리가 에른스트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지만, 에른스트는 그 모습을 전부 두 눈에 가득 담아냈다. 어쩌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아라네아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반려의 모습을 마음 속 깊이 담아주기 위해. 에른스트는 아라네아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갈 때, 눈물 한줄기를 떨어트리며 이제 제 목소리가 닿지 않을 그녀를 위해 속삭였다.

“사랑해. 아라네아.”

호위기사를 따라 발레리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눈을 피해 레인 궁전까지 도착한 아라네아는 수십 개의 계단을 계속 올라가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서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왕가의 사람이 되면 특히나 왕위 계승권 위치에 있는 왕태자나 왕태자비에겐 혹시라도 모를 암살과 전쟁으로 인한 목숨의 위협을 미리 대비하고자, 국왕에게서 직접 왕성에 있는 여러 개의 비밀통로 사용법을 익히게 된다.

왕성에는 흔히 국왕에게 많이 알려진 본성의 비밀통로가 많았지만, 이미 본성은 위스턴 왕자의 감시아래에 있기에 본성의 비밀통로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아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레인 궁전의 오랜 비밀통로를 이용해 도망쳐야 했다. 호위기사가 급한 손길로 비밀통로 문을 열, 장치를 찾아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들을 이리저리 만지자, 드디어 장치를 찾았는지 책을 살짝 빼냈을 뿐인데 단순한 서재는 순식간에 통로를 가린 문이 되어 아라네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태자비 전하, 어서 안으로.”

이 통로를 들어가게 되면 분명,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은 틀림없었다. 분명 도망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라네아는 에른스트를 그곳에 홀로 두고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초조하게 아라네아를 보는 발레리와 묵묵히 그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호위기사. 결국 아라네아는 깊은 어둠만이 가득한 통로 속으로 두 다리를 움직였다.

비밀통로 덕으로 완전히 왕성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아라네아의 첫 과제는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한명의 호위기사와 한명의 전속시녀, 이렇게 단 셋이서 최대한 몸을 숨길 곳을 찾던 아라네아는 수도 밖으로 최대한 몸을 숨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위스턴 왕자가 빠르게 손을 쓰고 있는지 수도의 경계를 지키는 검문소에는 이미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 얼굴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상, 빠져나갈 방도는 없었다.

여관주인의 입단속을 시켜 여관에 숨는 방법도 있었지만, 숨어 봤자 위스턴 왕자의 병사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발각되기 쉬웠고, 가문에서 지은 별장에 숨는 것은 더더욱 잡아가라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머릿속이 더더욱 복잡해지고 있을 때, 발레리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해결책 내놓았다.

“저어, 왕태자비 전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가족이 묵고 있는 집은 어떠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작은 남작가문이긴 하나, 겉보기엔 일반 평민집이나 다름없어 병사들 눈에 띄지도 않을 거고,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발레리. 너의 가족이 오히려 나 때문에 다치기라도 하면….”

“괘,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히려 왕태자비 전하를 만나길 무척 고대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척 좋아하세요!! 제가 전하의 전속시녀로 뽑힌 것에 늘 하늘에 감사하시는 분들인 걸요!?”

이런 큰 제안을 해준 발레리가 아라네아는 무척 고마웠다. 결국 발레리의 의견을 따라, 그녀의 가족이 머무는 수도 외곽 쪽 집에 당분간 몸을 숨기게 된 아라네아는 한 숨 돌리는 것도 잠시, 점점 아이가 차는 발길질에 신음을 삼켜야 했다.

“으윽!”

“저, 전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직 아이가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는데 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조금 아이가 차는 발길이 아프구나.”

아직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 밖을 보고 싶은지 살짝 차는 발길질에도 아라네아에겐 너무나 아픈 고통이었다.

왕성에서 도망 친지 2일 째 되던 날. 왕성에서는 여전히 에른스트에 관한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아라네아는 요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살짝 꿈을 꿨다하면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둠뿐인 깊은 악몽에 잠을 자기가 쉽지 않았고, 그 어둠속에 홀로 있고 싶지 않아 잠을 자기가 두려웠다. 결국 아라네아는 피곤한 눈을 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차를 마시기 위해 거실로 이제 막 문을 열고 나오던 때였다.

“어, 어떡해요 어머니… 우리 왕태자비 전하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는 말 못하겠어요. 내일이 아기씨를 낳는 해산일인데 저 어쩌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발레리. 무엇을 내게 말 못하겠다는 거니?”

“와, 왕태자비 전하!!”

이상하게도 온 몸의 털이 곤두선 것처럼 등골이 싸해진 느낌을 받은 아라네아는 무거운 몸을 끌고 두 모녀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차마 자신을 보지 못하는 발레리의 모와 어쩔 줄 몰라 얼굴이 사색이 된 발레리의 모습. 아라네아는 차게 식은 눈으로 발레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에른스트… 왕태자 전하께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렇지?”

“저, 전하… 그, 그게….”

“왕성… 역시 그 사람을 두고 나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왕성으로 가야겠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전하! 전하!!”

자신을 말리는 두 모녀를 뿌리치며 아라네아는 어떻게 로브를 입고 어떻게 그 집에서 나와 어떻게 수도 근처의 광장까지 도착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에른스트를 만나겠다는 일념하나로 광장까지 도착했지만, 왕성으로 가기 위해선 광장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광장주변으로 가득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무거운 몸으로 사람들을 헤쳐 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어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이봐 그게 사실이야? 위스턴 왕자가 왕위를 쟁탈 했다는 게?”

“어이, 그런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다 잡혀 들어가서 ‘저 꼴’ 날지도 모르니까. 위스턴 왕자가 그것도 직접 ‘저렇게’ 죽였다고 하잖아.”

광장의 중심에 있는 흉측한 무언가를 보기라도 했는지, 아라네아의 앞을 가로 막은 수십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눈을 돌리곤 서서히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 앞으로 가기가 수월해진 아라네아는 서둘러 다시 나아가려했지만, 정면을 향해 고개를 든 순간, 아라네아의 두 눈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나무기둥에 몸이 묶인 채, 사람의 몰골이라 할 수 없는 피칠 갑이 되어버린 하나의 시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칫 금발이 피에 물들어버린 적발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켰지만, 피에 물들어 찢긴 옷이나, 얼굴 형태. 그리고 눈도 채 감지 못한 채로 죽은 이의 얼굴은 망신창이였으나 아라네아 두 눈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답을 알고 있었다.

“…에른…스트….”

마치, 그의 시체를 밟고 왕위에 올라선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한 나라의 그것도 왕태자의 시체를 저런 몰골로 광장에 걸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지독한 악몽인 걸까? 아님 하늘이 내린 벌인 걸까. 자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토록 참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아라네아는 지금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직접 그를 만지고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아라네아는 에른스트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가려했지만 나아갈 수 없었다.

“안 됩니다!!”

언제 달려왔는지 발레리가 호위기사와 함께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라네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간곡히 말려야 했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 전하께서 위험해 지세요.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놔, 발레리.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해.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전하! 제발!”

“발레리! 어서 놓지 못─! 아아!”

그때, 아라네아는 신음과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무너지고 말았다. 또 다시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지 이번엔 몇 배나 더 큰 고통이 아라네아를 아프게 했지만, 그전처럼 이번 고통은 점점 잠잠해지긴 커녕 뱃속의 아이가 마치 지금 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듯 아라네아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었다.

“아악!”

“저, 전하! 서, 설마!”

발레리는 설마 하는 눈으로 아라네아의 배를 살피며 그 밑을 보는 순간 얼굴은 하얗게 사색이 되고 말았다.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던 양수가 터져버렸는지 아라네아의 치마 밑으로 양수가 세어 나오고 있었다.

“기, 기사님! 빨리 전하를 집으로 데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라네아를 안고서 서둘러 집으로 다시 돌아온 발레리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했고, 두 모녀는 서둘러 산파를 불러드렸다.

“아아아악!!”

예정보다 일찍 나오게 된 아라네아의 아이. 아라네아의 충격이 큰 탓에 거기다 양수까지 터져 자칫 잘못하면 아이와 산모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다. 두 모녀는 어떡해서든 아라네아와 아이를 살리고자 식은땀을 흘리며 새벽이 되도록 산파를 도와야 했다.

수 시간의 끝나지 않은 찢어지는 진통. 아라네아의 입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천으로 물려 있었지만 계속되는 산고에 입술은 짓물러지고 있었다. 아랫입술이 터질 만큼, 성대가 나갈 정도의 계속되는 비명에 아라네아의 정신이 거의 혼미해지고 있을 쯤, 산파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라네아의 정신을 다시 붙잡았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 만 더 힘을 내요!!”

“아아아아악!!”

마지막 비명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울음소리가 침실에 퍼졌다. 거의 실시하듯 혼미해진 정신으로 아라네아가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자, 산파를 통해 요를 감싸 아이를 받아든 발레리가 환희 웃으며 아라네아에게 전했다.

“왕태자비 전하. 전하를 쏙 빼닮은 왕녀전하세요.”

“…왕녀…?”

기운 없는 아라네아의 목소리가 묻자, 발레리는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서 아라네아의 곁으로 다가간 발레리는 그녀의 머리맡에 아이를 내려두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 왕녀전하세요. 정말로 전하를 너무도 닮아 어여쁘신 왕녀전하세요.”

아라네아는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 자신의 머리맡에 누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에른스트가 아닌, 자신을 빼닮은 여자아이. 오랫동안 저와 에른스트가 그토록 기다린 아이이자, 그의 핏줄, 그리고 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한 가엾은 아이. 아라네아는 금세 잠이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떨어트렸다. 혹시라도 꾹 참아내고 있는 울음소리가 아이에게 들리지 않도록, 제 손짓으로 아이가 깨지 않도록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진 아라네아는 에른스트가 지어준 그 이름을 입을 모아 천천히 불러보았다.

“…헤르…세인… 나의 딸… 헤르세인….”

사랑으로 맺어진 에른스트의 결실이 드디어 태어났다. 하지만 이토록 기쁜 날, 아라네아는 기쁨보다 슬픔에 헤어 나올 수 없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정작 사랑하는 이가 눈을 감아버린 날. 사랑의 결실을 품에 껴안고 있었으나, 아라네아를 보듬고 품어줄 에른스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입단속 시킬 거금을 들여 허름한 짐마차 속에 숨어든 아라네아는 이제 하루 밖에 품지 못한 헤르세인을 조용히 안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 있는 발레리와 달리, 아라네아의 표정은 그림자가 잔뜩 드리운 채로 세상모르고 잠이든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헤르세인.”

에른스트가 남기고 간 보물이자 세상의 하나 뿐인 이름.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부를 시간은 아라네아에게 오지 않았다. 이제 막 아이를 낳아 몸을 풀 새도 없이 아라네아는 결심했다. 그것은 복수. 자신의 마음을 다 잡게 하는 복수마저 없다면 아라네아는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복수와 함께 선택한 또 다른 것. 그것은 바로 헤르세인을 제 손에 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딸 헤르세인. 분명 어미로서 못할 짓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를 하기 위해선 헤르세인은 자신의 품에 있어선 안됐다. 그렇기에 아라네아는 헤르세인을 놓아야만 했다. 복수를 위해서, 헤르세인을 위해서라도.

앞이 보이지 않은 짙은 어둠속의 밤의 시간. 한참을 달리던 마차가 드디어 목표지점에 도착했는지 서서히 바퀴가 느려지면서 어느덧 멈춰 서자, 아라네아는 헤르세인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 바깥으로 나왔다.

싸늘한 밤공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이대로 내버려 두기엔 너무도 추운 밤공기의 날씨였다. 아라네아의 눈짓에 그녀를 따라온 발레리가 울먹이는 얼굴로 두터운 담요를 내밀자, 아라네아는 담요를 집어 혹시라도 헤르세인이 떨지 않도록 단단히 감싸주었다. 담요로 최대한 헤르세인을 감싼 아라네아는 누군가 헤르세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이 지나다닐법한 그나마 밝아 보이는 거리에 다가가 멈춰 섰다.

“아가… 헤르세인….”

작디작은 손가락을 꾸물거리며 헤르세인은 앞으로의 일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만약,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말을 하며 울며불며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상상하니 아라네아의 마음은 어느새 나약해져 갔지만 단단히 마음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딸의 어미가 아닌,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복수의 길을 택한 자신. 아라네아는 마음을 억누르며 가장 애틋한 눈으로 헤르세인을 향해 입술을 떼었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아주렴. 너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버리고, 네 아버지를 위해 떠나는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고, 평생을 원망하며, 증오하며 살아도 좋아. 하지만… 이 어미의 진심을 알아다오. 비록 너를 이렇게 안은 건 하루뿐이지만, 네가 내 뱃속에 있는 동안 너의 아버지와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아끼고 사랑했단다. 헤르세인.”

한줄기의 눈물방울이 헤르세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담요위로 떨어졌다. 눈물방울은 순식간에 흡수되어 자국이 사라졌으나 아라네아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깨지 않도록 조심히, 또 조심히 그나마 푹신해 보이는 메마른 풀숲에 헤르세인을 내려놓은 아라네아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등을 지고 돌아섰다.

“가자, 발레리.”

“…전하.”

“헤르세인이 나를 찾기 전에, 울기 전에… 어서… 가자.”

단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헤르세인이 무사히 커주기를 바라는 것. 아라네아는 그것만이라도 제발 이뤄지길 바라며, 발레리와 함께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복수를 시작할 왕성으로 돌아갔다.

왕성으로 정면 돌파하는 건 제 목숨을 끊어달라는 행동과 다름없었다. 아라네아는 발레리와 호위기사와 함께 왕성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던 비밀통로를 통해 다시 왕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위스턴 왕자의 반란으로 아직까지 왕성은 어수선한 상태인지 삼엄히 경계하는 병사들이 없어 아라네아는 무조건 위스턴 왕자가 있는 본성의 왕의 침실로 향했다.

왜, 위스턴 왕자가 머물던 궁전이 아닌, 본성의 그것도 왕의 침실인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감’ 그 ‘감’이란 것이 아라네아에게 알려주었다. 왕의 침실로 가면 위스턴 왕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느낌. 또 어쩌면 그는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의 느낌. 그리고 침실에 들어간 순간, 아라네아는 정확히 위스턴 왕자와 대면할 수 있었다.

“아라…네아? 정말로, 정말로 아라네아 인거야?”

“위스턴 왕자전──.”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을 와락 껴안은 왕자의 모습에 아라네아는 놀라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분노와 증오가 몸을 떨게 만들어 제 손에 단검이 들려있었다면, 아니 날카로운 날붙이라도 좋으니 그의 등에 단단히 꽂아버리고 싶었다.

“다행이다 살아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라네아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형님은 아라네아가 어디로 갔는지 끝내 내게 말 한 번 안 해주셨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가 형님을… 아니, 에른스트를 내 손으로 직접 죽여 버렸지. 에른스트를 죽였을 때, 한 순간 무언가 해방된 기분이었어. 그리고 드디어 아라네아를 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듯이 기뻤어. 하지만… 카타리아… 그 못된 계집이 너를 기어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병사들을 풀어 죽일 기세로 찾으려 할 때, 너무도 불안했지. 네가 그 계집의 손에 죽을까봐… 하지만… 이렇게 무사히 내 곁으로 와서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야!”

그가 직접적으로 에른스트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라네아는 심장은 멈춰버렸다. 분명 숨을 들이켰음에도 숨을 쉬기 위해선 그것을 토해내야 하는데 아라네아는 숨을 토해내기가 너무도 버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을 품에 안은 채로 온 몸에 뱀이 기어 다니듯 납작한 배를 쓸어내리던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헤르세인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분명 에른스트처럼 처참히 죽일 것이 분명했다. 에른스트의 피가 이어진 자신의 딸, 헤르세인. 그리고 너무도 가엾은 딸. 아라네아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그가 눈치 채지 않겠끔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장이 뛰지 않게 되어… 죽었습니다.”

“저런… 가엾어라.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슬펐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나는 돌아가신 선왕폐하 대신, 에른스트 대신, 내가 이 왕국을 이끌 주인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아라네아는 이제 내 품에 있으니, 내 아이를 낳으면 될 테니까.”

아라네아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는 작게 핏발이 섰으나, 아라네아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했다. 복수를 하고자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인 헤르세인을 저버리며 이곳까지 온 발걸음. 자신을 끌어안으며 놓아주지 않는 위스턴의 품이 무척이나 치욕스럽고 한시라도 붙어있고 싶지 않았으나 아라네아는 어떡해서든 신음을 삼키며 참아냈다.

“위스턴 왕자전하.”

“응?”

“제가 왜 왕자전하를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품에 안긴 아라네아의 목소리에 위스턴 왕자는 그녀를 살짝 품에서 떨어트려 고개를 기울였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왕자의 미쳐버린 두 눈. 이미, 위스턴 왕자에겐 아라네아가 어째서 목숨을 내놓을지 모를 상황임에도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 따윈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아라네아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품에 안겨있다는 것만으로 위스턴 왕자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 들을 필요도 없고. 아라네아가 내 곁에 온 것만으로도 그 말을 들을 필요 따윈 없으니까. 하지만 아라네아. 이것만은 알아줘. 너를 손에 넣고자 난 왕이 되고 싶은 거였으니까. 너를 손에 넣고자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아버지를 죽인 거니까. 이제 모든 방해꾼들은 사라졌어. 이제는 너만이 날 받아들이면 끝이야. 그러니 아라네아, 어디도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영원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아, 결국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극악무도한 패륜까지 저지르며 왕위를 쟁탈한 것은 전부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으로 인해 더렵혀진 왕위와 피바람이 지나간 왕성. 아라네아는 굳게 맹세했다. 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파멸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위스턴 왕자만은 온전히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드리라. 제 몸이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라네아는 위스턴 왕자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비틀린 사랑으로 집착과 광기에 눈이 멀어버린 위스턴 왕자. 아라네아는 시리도록 눈을 감으며 천천히 입을 모아 열었다.

“왕자전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마음 따위 주지 않겠어.’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내 손으로 파멸시킬 그 날까지.’

“오직 전하의 여인으로 있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빈껍데기로서 살겠어.’

서서히 고개를 숙여 제게 입을 맞추는 위스턴 왕자. 아라네아는 당장에라도 그의 곁에서 떨어져 그가 닿은 손길을 전부 지워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다. 그저 하나의 석상처럼, 하나의 돌처럼, 하나의 나무처럼 아라네아는 위스턴 왕자의 여인이 되었다.

어수선한 왕성을 하루라도 빨리 다스리고자 위스턴 왕자는 바로 즉위식을 가져, 국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왕관을 쓰기까지 위스턴 왕자에겐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다. 하나는 반란을 통해 그리고 패륜을 통해 얻은 왕위였으며, 또 하나는 오직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들이 갖는 왕의 증표가 없었다. 에른스트의 죽음과 함께 홀연히 사라진 왕의 증표.

위스턴 왕자를 도와 반란에 가담한 귀족들은 입바른 말로 더 이상 왕위를 잇는 것에 왕의 증표의 가치 따윈 없다며 왕위의 계승식을 증언하고 직접 주관하는 하늘의 신전에 반발을 했다. 하늘의 신전은 어떡해서든 그 두 가지의 일을 계속 걸고넘어지며 위스턴 왕자의 왕위 자격에 대해 물었지만, 하늘의 신전, 그 너머 교황은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왕위를 계승할 정통의 피를 가진 이는 위스턴 왕자가 유일했으며, 선대 국왕인 바로크 국왕은 유일한 적자였기 때문에 형제조차 없었다.

왕위를 계승할 불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위스턴 왕자만이 유일한 정통의 피. 교황은 끝내 위스턴 왕자의 머리위로 왕관을 씌우며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사브레 왕국의 제39대 국왕, 위스턴 엘 갈리암 라그디알에게 이 왕관을 전하며 부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어 만백성들을 굽어 살펴 왕국의 평화를 인도하고 기도하길 바라오.”

새로운 국왕의 탄생. 하지만 패륜으로 저지른 왕위 쟁탈이기 때문에 몇몇의 귀족들은 좋게 보지 않았거니와 백성들 또한 위스턴 국왕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귀족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먹고살 평화롭고도 안정적인 나라만 될 수 있다면야 제 아무리 국왕이 패륜을 저질러 왕위를 빼앗았다 해도, 백성들은 그 기억 속엔 금방 잊혀 질지도 몰랐다.

그리고 위스턴 국왕이 왕위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선언을 감행했다. 바로 아라네아의 ‘왕후’ 선언이 아닌, ‘왕비’ 선언. 애초에 위스턴 국왕에게는 정략혼인으로 맺어진 카타리아 왕자비가 있었으며, 위스턴이 국왕의 자리를 잇는 동시에 카타리아 왕자비 역시, 자연스럽게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사브레 왕국은 일부일처제를 지지하고 유지했으며, 역대 선왕들 사이에서도 왕후가 아닌 또 다른 내자인 ‘첩’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위스턴 국왕은 아라네아에게 지독한 집착과 광기를 품고 있었으며 어떡해서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자 귀족들과, 그리고 카타리아 왕후와 타협한 끝에 아라네아에게 첩들이 받는 ‘부인’의 자리가 아닌, 특수한 자리인 ‘왕비’의 자리를 하사했다.

과거엔 왕태자비였던 그녀가 그것도 이젠 위스턴 국왕의 첩이 되어 신분이 낮아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던가. 그래도 엄연히 왕태자비였던 과거의 그녀였기에 귀족들은 예전 왕태자비로서 예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아라네아를 왕비로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아라네아가 왕비가 되는 것에 극심한 반대를 외치던 카타리아 왕후는 끝내 위스턴 국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다만, 아라네아가 왕비의 자리에 앉히는 것에 그녀는 수많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왕실의 일원으로서 모든 예우를 갖춰 아라네아를 왕비로서 대우하되,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것.

둘째, 혹시라도 국왕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시, 특히나 왕자가 태어날 때, 그 왕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왕자로 둘 것.

셋째, 왕비는 절대로 정치적인 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어떤 내정에도 간섭할 수 없는 것.

넷째, 왕비가 관할하게 될 시녀와 하녀의 관리는 모두 왕후의 관할로 넘어갈 것.

다섯째, 국왕의 사후, 왕비는 일반 평민으로서 지위를 강등시킬 것.

이 어처구니없는 왕후의 조건에 위스턴 국왕은 강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복수를 위해선 반드시 국왕의 곁에 있어야 했던 아라네아는 순순히 왕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한때는 드높았던 왕태자비의 자리.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몸을 낮추고 이제 왕후가 된 카타리아 왕후에게 아라네아는 왕비로서 그녀를 받들어야 했다.

사랑했던 이의 채취가 묻어있고, 사랑했던 이와 몸을 섞던 과거의 자신. 그러나 이젠 누구보다 증오하고 복수의 대상인 위스턴 국왕의 품에 안겨 아라네아는 제 몸을 이젠 먹이처럼 내줘야만 했다.

“나의 왕비, 나의 연인, 아라네아. 그대를 사랑하오.”

언제나 자신의 귓가에 달콤히 속삭여주던 에른스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달콤하던 그의 목소리 대신, 증오스러운 목소리가 귀를 더럽혔으며 한없이 다정하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만져주던 에른스트의 손길 대신, 치욕스럽고 더러운 손길만이 아라네아의 감정을 더더욱 죽여만 갔다.

에른스트의 죽음과 그를 끝까지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라네아의 외가인 미르세니안 공작가문은 끝내 위스턴 국왕의 손으로 파멸당하고 말았다.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해 목숨을 다해버린 공작부부. 끝까지 저를 걱정하며 숨을 거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아라네아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이 왕성에 홀로 남겨지게 된 자신. 그리고 홀로 복수의 칼을 갈아 혼자만이 싸워야하는 외로운 싸움. 아라네아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길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으며 복수만이 다음 미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니까.

다만, 복수를 떠나, 아라네아는 간절히 바랐다. 헤르세인이 무사히 커주기를. 언젠간 이 왕성에 다시 데려올 그날만을 위해….

왕비가 되고 난 후, 아라네아에겐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펜을 들어 글을 적기까지 아라네아의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었다. 그러나 한번 손이 가는 대로,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 추억을 글로 새길 때마다 아라네아의 손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왕비가 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라네아는 그 누구보다 카타리아 왕후의 극심한 견제를 받아야 했다. 틈만 나면 연회를 열어 저를 귀부인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당연지사였으며, 마치 시녀 대하듯 이제는 차를 끓이는 것조차 저에게 시키는 왕후의 행동에도 아라네아는 그저 감내하고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도가 지나친 카타리아 왕후의 모습을 목격해버린 위스턴 국왕은 한 달이란 칩거 명령으로 왕후에게 벌을 내렸고, 왕후의 모진 행동들 덕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린 아라네아를 보던 국왕은 별장을 마련하여 아라네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긴 휴가를 보내주었다.

아라네아는 카타리아 왕후의 모욕어린 행동에 제지를 하거나 어느 정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순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것은 위스턴 국왕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자 함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싸늘하게 식어 몇 번이고 욕실에 들어가 살가죽이 빨갛게 벗겨질 만큼 아라네아는 제 몸을 깨끗이 닦길 반복했다.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그의 손길이 닿은 제 몸이 더럽게 느껴져 아라네아는 발레리가 뜯어말릴 정도로 그 흔적들을 지우고자 했다.

표정으로는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 아라네아는 한동안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늘 꿈속에서 나와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에른스트의 망령이 저를 불렀으며, 깊은 어둠 속에서 목이 터져라 우는 헤르세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라네아는 늘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카타리아 왕후의 덕에 위스턴 국왕의 지나친 배려로 한 동안 왕성에서 떨어져 별장에서 지내게 된 아라네아는 실로 오랜만에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매일 밤마다 한 장, 또 한 장씩 늘어가는 일기장의 페이지와 점점 얼굴색이 돌아와 누구보다 기뻐하는 발레리, 그리고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는 에른스트의 유일한 호위기사.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라네아는 이렇게까지 버텨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예정된 긴 휴식이 끝나갈 쯤, 아라네아는 어째서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크게 쓰러지고 말았다. 덕분에 발레리가 요란을 떨며 의사를 데려와 진찰을 하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며 당분간 더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몸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혈색도 좋지 않으실 뿐더러, 저쪽 아가씨에게 얘기를 듣자니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를 할 새도 없이 계속 무리하셨다지요? 이대로 계속 움직이신다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몸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선 더 길게 휴식을 취하셔야 할 겁니다.”

의사의 진단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국왕에게서 친히 기사까지 보내 돌아오라는 서신과 선물까지 보냈었다. 여전히 저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발레리와 호위기사 생각해 아라네아는 결국, 생각을 바꾸어 별장에서 좀 더 휴식을 취하겠다는 서신을 도로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왕성을 떠나지 못하는 국왕은 매번 돌아오라는 서신을 아라네아에게 전달했고, 아라네아는 휴식이란 명목으로 거의 1년간을 별장에서 지내며 완전한 회복을 끝낼 수 있었다.

1년간의 왕성에서 동떨어진 긴 휴식이 끝나고 계속 시간을 끌어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왕이 정말로 병사를 이끌고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라네아는 이제 휴식을 접고 왕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왕성으로 돌아 간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며칠 뒤, 아라네아는 시녀에게서 발레리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 그게…, 바, 발레리가 왕후폐하께 무례를 저질러 그 벌로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유일한 아라네아의 전속시녀이자, 아라네아의 편이었던 발레리. 긴 휴식이 끝나 왕성으로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 동안 무슨 일인지 발레리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게 너무 걱정되어 다른 시녀를 시켜 발레리를 불러오라 했지만, 시녀의 입에서 나온 건 왕후에게 벌을 받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는 발레리의 소식이었다.

카타리아 왕후가 저를 얼마나 견제하고 증오하며 미워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잘못도 없는 시녀를 몰아다가 이젠 죽이기까지 하는 왕후의 행동에 아라네아는 입술을 깨무는 것이 고작이었다.

“발레리… 네가 결국 나 때문에….”

발레리가 죽은 건 온전히 자신의 탓. 저와 엮였기에 발레리는 누가 봐도 벌레만큼 죽이기 쉬운 존재였으며 특히나 왕후에게 있어선, 자신이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이기에 그 괜한 화풀이를 발레리에게 쏟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뿐 만이 아닌, 왕후보다 더한 존재는 따로 있었다. 바로 위스턴 국왕. 그는 여전히 질투와 광기에 물들어 아라네아의 곁에 있는 사내는 그 누구든 가만 놔두지 않았으며 귀족들조차 제 손으로 직접 물릴 만큼 위스턴 국왕의 집착은 날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이젠 아라네아의 곁에 간신히 머물고 있던 호위기사에게로 가, 1년 동안 아라네아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질투에 눈이 멀어 국왕은 끝내 호위기사까지 직접 처리하고 말았다.

완전한 고독. 거의 왕성에 고립되다시피 홀로 남게 된 자신. 복수를 하고자 제 목숨의 담보로 왕성에 들어왔지만, 왕비가 되었음에도 위스턴 국왕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그의 여인이 되었음에도 아라네아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다. 권력은 왕후로 인해 차단되어 손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며, 국왕의 손으로 파멸된 외가인 미르세니안 공작가는 이제 과거에서 사라진 가문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보면 희망조차 없어 이기지 못할 혼자만의 싸움. 그럼에도 아라네아는 그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직, 방법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어쩌면 희망을 더 크게 열게 될지도 모를 단 하나의 길. 그것은 바로 위스턴 국왕의 핏줄을 잉태하는 것.

젊지 않은 나이로 인해, 또한 자신의 몸이 임신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다. 헤르세인도 얼마나 힘겹게 얻은 아이였던가. 하지만, 이것만이 아라네아에겐 마지막 방법이었으며, 이것만이 위스턴 국왕의 심장에 칼을 꽂을, 그리고 헤르세인을 다시 왕성으로 불러들일 방법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사정을 알고 있을 하늘이 제 편이 아니라면 복수를 품는 자에겐 복수의 신이 제 편이었다. 4년하고도 반이 지나, 아라네아는 위스턴 국왕의 핏줄인 빈센트를 낳을 수 있었다.

헤르세인과 다르게, 아라네아는 결코 빈센트를 제 손에, 제 품에 안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증오하는 그의 핏줄이었으며, 위스턴 국왕을 닮았을 거란 당연한 생각에 치가 떨려 아라네아는 한 달 동안, 빈센트를 유모에게 맡기곤 거들떠 조차 보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절망스럽게도 원망스럽게도 빈센트는 에른스트를 떠올릴 만큼 그를 많이 닮아있었다. 왕실의 혈통임을 상징하는 금발과 에메랄드빛의 눈동자. 분명 이 아이는 증오스러운 위스턴 국왕의 핏줄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라네아의 눈에 비친 빈센트는 너무도 연약하고 순수했다.

그리고 빈센트를 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르는 제 손으로 버린 아이, 헤르세인. 헤르세인을 온전히 안아주지 못한 여한 때문일까. 아라네아는 조심스럽게 빈센트를 품에 안아보았다. 역시나 제 품에 안겼음에도 너무도 작고 하찮을지 모를 작은 생명.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부서질지 모를 연약한 생명이었다.

“…헤르세인….”

이품에 있는 것이 빈센트가 아닌 헤르세인이었다면, 위스턴 국왕이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닌 에른스트였다면 둘이서 넘치도록 그 사랑을 주었을 텐데. 성장과정을 모두 걸쳐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두 눈에 세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일 뿐, 아라네아의 품에 안긴 아이는 헤르세인이 아닌, 현실인 빈센트였다.

아라네아는 빈센트를 안은 채, 힘겹게 입을 떼어 아직 말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이에게 제 진심을 전했다.

“아가. 미안하구나. 나는 너에게 모든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어미로서의 내 사랑은 온전히 헤르세인에게 전부 주고 와버렸으니까. 그러니 나는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

빈센트를 품에 안기 전까지 아라네아에게 있어, 빈센트의 존재는 그저 이용가치에 불과했다. 비록 왕후로 인해 왕위 계승이 불가능한 2왕자 일지라도 위스턴 국왕의 총애와 신뢰, 그의 집착어린 사랑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기에, 그것을 이용해 아라네아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볼수록 떠올리는 에른스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이용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른 채, 순수한 눈으로 빙긋 웃으며 옹알이를 하는 빈센트를 볼 때마다 아라네아는 굳은 결의는 흔들렸다.

‘증오스러운 그의 핏줄인 너를 내가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의 과거를 모를 어린 너를 이용해 복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아가, 대답해다오. 훗날 네가 성장하여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너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전부 털어 놓을 수 있을까?’

자신은 어쩌면 아이의 어미로서는 최악일지도 몰랐다. 복수를 위해, 위스턴 국왕의 핏줄을 이용해 모든 것을 되돌리고자 아이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거기다, 한 아이마저 제 손으로 놓아버렸지 않던가.

아라네아에게 있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수를 이루고자 연명하는 삶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첫 아이를 버리면서 까지,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아이까지 낳아 그 아이를 이용하기 까지, 아라네아의 결심은 서서히 흔들렸다. 여전히 저를 향해 옹알이를 하며 고사리 같은 손을 꼼지락 거리는 빈센트의 모습이 아라네아의 두 눈에 가득 담겼다. 이제는 빈센트의 모습에서 자꾸만 비치는 에른스트의 모습과 헤르세인의 모습에 아라네아는 끝내 눈을 감았다.

“아가… 네가 성장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는 분명 내가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 없을 테지…. 미안하구나. 너를 그저 이용하려 해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너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태어나 단순히 국왕의 핏줄이란 이유만으로 어린 너를 멀리하려 했던 나를…. 용서하지 말아주렴. 비록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너만은 내가 지켜주도록 하마. 아가, 내가 너의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고작이구나.”

복수의 끝은 행복이 아닌, 파멸의 끝. 헤르세인을 저버리면서까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위스턴 국왕의 품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반드시 이 복수가 이뤄질 날을 꿈꿨지만, 복수가 끝나면 그 다음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원망할 헤르세인과 그저 이용당하고자 태어났음을 알게 될 빈센트의 원망을 모두 자신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복수를 놓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빈센트를 이용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빈센트가 성장할수록,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본 아라네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갔다.

마음은 점차 복잡해져가고 복수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현실. 아라네아는 이제 말을 떼고 소년으로 성장해가는 빈센트를 본 순간, 이제 때가 왔음을 느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헤르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복수를 이루지 못해도 점차, 윌리스 왕태자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는 국왕의 움직임을 아라네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아라네아는 불현 듯 위스턴 국왕을 찾아가 헤르세인을 데려오고자 직접 정면으로 부딪쳤다.

“폐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왕비. 어서 말해보게. 그대의 말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야.”

“허면… 제 손으로 버린 딸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것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왕… 아니. 아라네아….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딸… 이라고?”

“예, 제 피가 이어진 아이. 그 아이를 왕성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수년간 빈센트를 돌보며 모든 사내가 그녀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든 그였다. 그런데 또 다른 혼외 자식이라니? 딸이라니? 위스턴 국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 아라네아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가녀린 두 어깨를 거세게 잡아 뒤집어진 눈을 하며 소리쳤다.

“누구지?! 누구의 자식이야! 아비가 누구란 말이야!! 설마, 에른스트의 핏줄인 것이야?! 그런 것이야?!”

“왜… 제게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핏줄은 그때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뜬 채, 죽었다고….”

“허면!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 설마… 내 손에 죽은 그 호위기사의 자식은 아니겠지?”

“...”

“왜 말이 없어. 어찌 말이 없느냐고!!”

아라네아는 일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완전히 착각하게끔 만들어 헤르세인이 전혀 에른스트와 연관이 없음을 만들어야 했다.

“아라네아!!”

처음엔 헤르세인을 어떻게 데려올지 아라네아 역시 막막했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았다. 최대한 계획을 짜고, 헤르세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겠끔 만들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를 흘려 헤르세인의 신분을 완전히 복귀 시킬지, 아라네아는 나름대로 왕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움직여, 권력이 없는 대신 산더미 같이 쌓인 쓸모없는 재물만으로 아라네아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때 당시 저는 왕후폐하의 의도적인 수많은 행동으로 몸도 마음도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선 말로만 저를 보고 싶다 하시곤 행동으로 보이진 않으셨지요. 왕성에서 단 한 번도 꼼짝 하지 않으셨지요. 그런 제게 그 호위기사는 한 번도 제 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한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늘 저를 지켜보고 보호해주며 따뜻이 위로해주더이다. 그래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몸을 섞었다 이 말인가!? 몸도! 마음도! 전부 그 놈에게 주었단 이 말이야!?”

“한번 뿐이었습니다. 그 한번으로 아이를 가질 거라 생각지도 못했을 뿐입니다.”

“아라네아!! 그대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어! 어찌!!”

“사생아입니다… 비록 제 핏줄인 아이이긴 하나, 왕가를 잇기에 더더욱 관련이 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꼿꼿이 허리를 핀 자세로 두 무릎을 바닥에 꿇어 국왕과 시선한번 마주치지 않은 채,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로 입을 모아 대답했다.

“하지만, 폐하께서 그토록 원치 않으시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폐하를 놔두고 한 사내와 몸을 섞었으니 그 죄를 받아도 마땅한 몸. 그런 제게 벌을 주시고 내쳐 주십시오.”

허리를 곧게 핀 당당한 자신감. 아니, 이건 자신감이 아닌 확신이었다. 십 수 년이 지났음에도 저를 절대 놓지 않는 그의 지독한 집착. 비록 그 광기는 예전보다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억눌린 것뿐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저를 향한 광기와 집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가 아무리 카타리아 왕후의 딸인 케시아 왕녀를 극진히 아낄지라도 그는 딸이 아닌, 지독히 집착하는 자신을 먼저 택할 그였다.

결국, 위스턴 국왕은 아라네아에게 2주라는 강하지도 않은 짧은 벌로 궁전에 감금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2주가 지나 감금이 풀린 동시에 생각을 정리한 위스턴 국왕은 몇 가지의 조건과 함께 헤르세인을 왕실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아라네아는 드디어 헤르세인과 마주할 수 있었다.

뼈가 앙상히 튀어나와 비쩍 마를 만큼 사람의 몰골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였다. 비쩍 마른 몸을 비켜 고개를 들어 두 눈을 마주친 순간, 그 눈동자 속에는 푸른 파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 하루 만을 품에 안고서 제 자신이 버린 가엾은 아이. 그러나 아라네아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억누르고 또 억눌러야만 했다. 헤르세인을 위해, 헤르세인을 이 왕성에서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선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 헤르세인을 향해 모질어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죽도록 지워낼 수 없는 증오와 원망을 받을지라도.

탁자 밑으로 숨겨진 아라네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을 들키지 않고자 아라네아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흉내를 내며 찻잔을 내리곤, 가장 차가운 눈으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헤르세인의 가슴에 상처의 못을 박아버렸다.

“그 눈을 보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넌 알고 있구나. 그래, 갓난아기였던 너를 슬럼가에 버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네 어미이다.”

이 왕성에서 헤르세인이 빨리 살아남으려면 왕성을 알아야 했고, 적을 분간할 수 있는 판단과 왕녀로서의 예법과 지식이 가장 중요했다. 헤르세인이 ‘사생아 왕녀’라고 낙인찍힌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귀족들은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이들을 경멸했으며 특히나 ‘사생아’에겐 유독 그 경멸과 혐오가 심했다.

사방이 적뿐인 감옥 같은 왕성. 그리고 어미인 자신조차 적일 수밖에 없는 이 가시밭 속에 헤르세인은 살아남아야 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헤르세인이 넘어야할 작은 산. 앞으로 헤르세인이 넘어야할 산은 계속 있었다.

지위식이 무사히 끝나고, 제2왕녀로서 인정받게 된 헤르세인은 위스턴 국왕이 직접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보통 연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 기간에 맞춰 제 딸을 위해 모든 귀부인들이 나서, 딸을 아름답게 돋보일 드레스를 직접 맞춰주는 것이 이 왕국의 또 다른 관례이기도 했다. 비록, 갑작스럽게 열린 연회의 일정에 아라네아는 그 촉박한 시간 속에 헤르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릴 드레스를 신중히 고르고자 했다.

헤르세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느 색감의 드레스가 어울릴지, 또 어느 장신구가 가장 잘 어울릴지 아라네아는 딸아이를 위해 옷을 고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빈센트는 왕자이기에 국왕이 직접 제복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헤르세인 말고는 딸아이에게 드레스를 골라줄 기회는 아라네아에게 전혀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헤르세인, 네가 이것을 입고 조금이라도 좋아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내 욕심일까?’

모든 드레스가 헤르세인에게 다 잘 어울려 보였다. 마음 같아선 눈앞에 있는 드레스들을 전부 사, 헤르세인에게 그동안 못 다해준 선물을 주고 싶었으나 그 수많은 드레스들 중, 아라네아는 단 한 벌의 드레스만을 골라야 했다. 가장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한눈에 보아도 수수하기 짝이 없는 파스텔 톤의 푸른 드레스.

미안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를 사줄 수 있음에도 아라네아는 가장 수수한 드레스를 택해야만 했다. 헤르세인을 철저히 사생아로서 보이기 위해, 그들의 눈에 전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치부에 불과한 사생아로서 더더욱 낙인을 찍히기 위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얼고 있음에도 아라네아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드레스를 신중히 고르던 기쁜 마음과는 달리, 그 마음을 억누르며 아라네아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리고 차갑게 드레스를 보이며 헤르세인이 입기를 강요했다. 그때마다 적의를 가득담은 눈으로 저를 보는 헤르세인의 두 눈을 볼 때마다 아라네아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래, 헤르세인. 네가 그렇게라도 버틸 수만 있다면 이 어미는 너에게 모든 원망을 받아도 상관없다. 네가 멀쩡히 살아날 수만 있다면… 너만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어미가 너의 증오를 받는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역시, 제 자식의 원망과 적의가 섞인 눈을 마주칠 때면 가슴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눈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니 목에서 쓴물이 울컥 나왔다.

헤르세인이 왕성으로 온지 시간은 꽤 흘러갔다. 다행이 왕성의 환경을 적응해 가고 있는지 처음 사람 몰골이라 할 수 없었던 헤르세인은 어느새 살이 붙고, 왕녀로서의 예절을 갖춘 것은 물론, 점차 지식까지 늘려가 한눈에 보아도 왕녀로서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처음으로 제 자식에게 손찌검을 하는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다.

슬럼가에서 험악하게 자란 헤르세인과 달리, 왕성에서 귀하게 자란 빈센트. 두 아이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고, 특히나 빈센트는 왕성에서 국왕의 극진한 총애로 자랐기에 가끔 너무도 순수한 모습을 보여 눈치가 없는 아이인가 싶을 만큼 빈센트는 너무도 해맑게 자랐다. 그 해맑음은 헤르세인에겐 가시가 되고 독이 되었는지 헤르세인의 침실에 도착했을 때, 아라네아는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분노로 눈이 뒤집혀 빈센트를 때리려던 헤르세인의 손짓. 아라네아는 그 손짓을 겨우 막아냈지만 잡고 있는 손목 위로 지금 헤르세인이 얼마나 부들거리며 떨고 있는지, 그 분노가 자신의 피부까지 전해졌다. 사이가 좋은 남매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제 아무리 분노에 눈이 뒤집혀 앞 뒤 구분 없이 빈센트를 때리게 놔둘 순 없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아라네아가 직접 저지르는 최악이 되고 말았다.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헤르세인의 얼굴. 그 누구보다 가장 상처받은 얼굴로, 가장 원망스러운 얼굴로 쓰라린 뺨을 만지며 저를 보는 딸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아라네아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조차 믿기지 않았다.

왜 더 냉정해지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말로서 말릴 수 없었을까. 왜 헤르세인에게 이런 상처와 고통을 제 손으로 남겨 버렸을까. 더 이상 헤르세인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 아라네아는 혹시라도 또 다시 헤르세인에게 손찌검을 할까 겁이나, 빈센트를 강제로 끌고서 도망치듯 나가야만 했다.

“어머니… 손… 떨고 계세요.”

빈센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아라네아는 헤르세인의 뺨을 때린 제 손을 보았다. 사시나무 떨 듯이 새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이 못난 손. 이 손이 아껴줘도 모자랄 판에 그 여린 뺨을 때리고 상처를 내며 씻을 수 없는 최악의 기억을 심어주었다. 아무리 주먹을 쥐어 봐도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떨리는 손. 아라네아는 쓰게 숨을 삼켰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헤르세인… 내가 너에게 감히….’

감히, 아껴줘도 모자를 판에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못해줄 처지에 한 없이 고운 뺨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 뺨에도, 피가 철철 넘칠 상처투성이인 그 가슴에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그리고 누님이….”

눈물을 글썽이는 빈센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라네아에겐 오직 헤르세인의 상처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린 거리. 아라네아는 작게 숨을 내쉬며 힘없이 대답했다.

“가자꾸나. 빈센트….”

“어머니….”

이 목숨이 끝나는 그 날. 과연 헤르세인에게 이 미안함을,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터져 나오는 작은 실소. 그것은 제 자신을 향한 비웃음. 아마 영원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용서를 구할 자격 따윈 없으니까. 그것이 이치였고, 더더욱 헤르세인이 저를 향한 감정을 죽일수록 아라네아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움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아라네아에겐 작은 바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헤르세인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지 않기를 바라는 것. ‘사랑’이란 감정에 눈을 뜨지 않기를 바랐다. 어쩔 땐 그 감정이 때론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만, 그 감정은 제 심장을 찌를 양날의 검이나 다름없었다. 마음을 강하게 할 순 있어도 마음을 한없이 여리고 약하게 만드는 것 역시, 사랑이란 감정이었다.

또한 여인으로 태어난 이상, 한번 그 감정이 스며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아라네아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헤르세인도 결국 여인일 수밖에 없는, 이제 막 꽃을 피울 나이. 헤르세인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헤르세인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어졌는지 헤르세인의 두 눈에선 빗물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자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했다. 격려도, 응원조차 해줄 수 없는 것이. 비참했다. 어미로서 눈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을 제 품에 안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아라네아는 처음으로 자괴감이 들었다. 딸의 이토록 힘든 모습을 보면서까지 제 자신의 복수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어미로서 최악인 자식까지 버리고 제 몸을 던져가며 이 포석을 깔기 위해 기나긴 시간을 인내했지만, 그 인내한 시간이 전부 쓸모없는 것처럼 아라네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이 지나, 아라네아는 밤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잠옷 드레스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밤새 의자에 앉아 유독 이상한 느낌이 들던 아라네아는 그 쌔 한 느낌이 헤르세인에게로 향해있어, 서둘러 헤르세인이 있는 궁전으로 향했다.

헤르세인의 궁전에 도착해, 모든 시녀들을 바깥으로 몰아내며 아라네아는 헤르세인의 작은 불안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자연스럽게 옷장의 문을 열게 된 아라네아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단단히 쌓인 짐덩이. 헤르세인은 결국 사랑하는 이와 도망을 택한 것이었다.

도망치기 위한 짐을 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연하게도 헤르세인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를 향한 사랑이 컸단 말인가. 이젠 그게 너무 가엾고 딱하기까지 해, 아라네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저토록 사랑한다는데, 저토록 사랑하는 이를 놓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를… 놓아줘야 되는구나. 네 행복을 빌어줘야 되는 구나… 이 왕성이란 감옥에서 헤르세인 너는 행복해 질 수가 없는 거구나….’

더는 지체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 아라네아는 짐을 들어 헤르세인에게 말없이 넘겨주었다. 캐묻지도 않고 그저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도망쳐, 꼭꼭 숨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라네아는 돈이 될 만한 자신의 장신구들을 모조리 헤르세인에게 떠넘겨 주었다. 지금, 헤르세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이 전부였다.

어째서 이 귀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는지 헤르세인은 믿지 못하는 눈으로 저를 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굳이 이유를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어미 노릇을 해주고 싶다면 헤르세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턱 끝까지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아라네아는 하고픈 그 말 대신, 세상 모진 목소리로 헤르세인을 떠나보냈다.

등을 보이곤 숨이 차도록 서둘러 뛰어가는 딸의 뒷모습. 고마웠다. 뒤를 돌아봐 주지 않아서. 고마웠다. 제 스스로 이 감옥 같은 왕성에서 빠져나가 주어서. 고마웠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봐주지 않아서.

문득 떠올랐다. 과거의 혼인식에서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도 지금의 자신처럼 이런 심정이었는지 만약, 살아있었으면 묻고 싶었다.

‘어머니도… 지금의 제 심정과 똑같았나요?’

평생을 꼭꼭 숨어 살아, 사랑하는 이와 오붓하게 영원히 살아주길,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다. 왕성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을 전부 잊고 새 출발을 하며 살아가길 빌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늘이 들어주지 않았다. 복수를 저버리고 그저 빈센트를 지키며 조용히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쓴 일기장과 에른스트가 남긴 펜던트를 로하네 신관에게 부탁하며 하늘의 신전에서 다시 왕성으로 돌아왔지만, 대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헤르세인의 소식에 아라네아는 당장에라도 헤르세인에게 찾아가야 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 식은땀을 흘리며 상태가 좋지 않은 헤르세인의 모습을 본 순간 아라네아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하나는 헤르세인의 정체를 사실 대로 밝혀 헤르세인을 살리는 것과, 또 하나는 헤르세인 대신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 대역죄라는 낙인이 찍힌 이상, 그것은 국왕조차 물릴 수 없는 것이며 형벌조차 피할 수 없는 심판이나 다름없었다. 특히나 죄목이 깊어질수록 그에 따른 고문은 죄인이 멀쩡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를 건드린 중죄. 왕후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언제나 차게 식던 피가 들끓었다. 누구보다도 헤르세인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르세인을 사랑하는 그 공자 또한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품고 있는지 아라네아는 그 두 사람의 각별한 사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약혼자를 건드린 중죄? 언제부터 라인하르트 공자가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가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라네아는 우선 헤르세인을 살려내는 것이 먼저였다.

선택의 길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라네아는 헤르세인이 감당하지 못할 벌을 대신 받는 길을 택했다. 복수든, 무엇이든 그것을 전부 떠나 눈앞의 딸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어미로서 헤르세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으으으윽!”

헤르세인 대신 받는 고문은 아라네아 조차 버티기 힘들만큼 너무도 힘든 고문이었다. 거기에 왕후까지 직접 지휘하는 고문이었기에 그 강도는 더욱 심했었다. 하지만 아라네아는 이 고문을 자신이 받는 것이 가장 큰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 고문을 헤르세인은 결코 견뎌낼 수 없기에, 더 이상 헤르세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이 고문으로 헤르세인 마저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다. 분명 육신은 현실에 있는데, 영혼은, 정신은 점점 다른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었다. 어떻게 고문을 버티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지 아라네아는 더 이상 머리가 새하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가 제 몸을 안아 올려 침실까지 조심히 내려준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지만, 아라네아는 완전히 눈꺼풀을 뜨기엔 너무나 힘이 부쳤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잠에서 깨어나 간신히 정신을 붙들며 아라네아는 제일먼저 위스턴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때는 그토록 치가 떨리고 증오스럽기 짝이 없던 사내의 얼굴.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가까워져서 인지 아라네아는 위스턴 국왕을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눈동자만 살짝 움직이니 근처에는 빈센트가 퉁퉁 부은 눈을 하며 저를 애타게 보고 있었다. 헤르세인 만큼이나 가엾은 아이. 반대로 헤르세인과 달리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아이. 힘없는 손을 간신히 움직여 아라네아는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은 빈센트의 뺨을 어루만졌다. 보드라웠다. 다만 눈물에 젖어 뺨이 축축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뺨을 어루만져 줄 수 없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아라네아는 갈라진 입술을 모아 힘겹게 대답했다.

“빈…센…트… 미안…하…구나….”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아라네아는 더 이상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라네아는 마지막으로 헤르세인을 보고 싶었다. 간신히 위스턴 국왕에게 간청하여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헤르세인의 모습. 자신이 고문을 받는 동안, 무사히 열이 내리고 나아졌는지 비록 얼굴은 반쪽이 되었어도 두 발을 딛고 서있는 모습을 보니, 아라네아는 더 없이 기뻤다.

하지만 저 대신 받은 고문이여서 일까. 누가보아도 헤르세인은 이해되지 않는 표정을 하며 자신을 보고 있었다.

“대체… 뭣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셨습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헤르세인이 물었다. 어째서 그 벌을 저가 대신 받았는지. 만약,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아라네아의 대답은 똑같았다.

‘헤르세인, 너를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너를 지켜줄 사람이 이 어미 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헤르세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에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흔들리는 눈동자. 핏대를 서며 거짓말이라 외치는 부정어린 외침. 그런데 그 외침이 아라네아의 귓가에 서서히 작게 들렸다. 분명 헤르세인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지 않았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눈을 감으면.’

아라네아는 등을 돌려 제 곁을 떠나려는 헤르세인을 간신히 붙잡을 수 있었다. 어떡해서든 이 손을 뿌리쳐 나아가겠다는 헤르세인의 의지가 보였으나 아라네아는 힘을 쥐어 짜, 헤르세인에게 부탁했다.

“…이것만은 들어… 주렴…. 하늘의 신전에 가면… 너의… 지위식을 도운… 로하네님이 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꼭, 그것을 네가… 네가… 돌려… 받으렴… 그것은 본디… 내 것이 아닌… 네 것이었으니까….”

펜던트의 원래 주인. 그것은 에른스트가 헤르세인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헤르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왕의 증표. 왕의 증표로 하여금 헤르세인이 어떻게 사용할지 아라네아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을 사용하는 건 온전히 헤르세인의 몫. 그리고 펜던트와 함께 들어 있는 자신의 일기장을 과연 헤르세인이 읽을지는 미지수였다.

가능하다면 그 일기장을 헤르세인이 읽어줬으면 싶었다. 그 일기장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복수를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닌, 에른스트를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었는지, 그 사랑의 결실을 에른스트와 자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그저 헤르세인이 알아줬으면 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기에 그는 자신과 다르게 얼마나 아버지로서 너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헤르세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의 고충을 전해주고 싶었다.

“…헤르… 세인…. 하나만… 딱 하나만 물어 보마… 아직도 나를… 증오…하고 있니…?”

왜 이 말이 나왔을까. 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임에도 헤르세인의 어미로서 자식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왕비전하를 증오합니다. 이곳에 저를 데려온 왕비전하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밉다고 했다, 이 못난 어미가. 너무도 증오스럽고 원망스러워 헤르세인은 결국 등을 보이며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등을 돌려 그 얼굴을 온전히 담아내고 눈을 감고 싶은데, 헤르세인은 끝내 뒤돌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했다. 자신은 못난 어미니까. 딸이 저토록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뒤돌아 달라, 차마 말할 수 있을까.

“…그래… 그렇게…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렴.”

‘너의 기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너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단다.’

“하지만… 너를... 사랑… 했단... 다...”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주렴.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나의 딸, 헤르세인.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눈을 감아도 영원히.’

세상이 암전되고 암흑이 찾아왔다.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빛 한 점 없는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 그러나 한줄기의 빛이 암흑 속에 아라네아의 길잡이가 되어 그녀를 어디론가 이끌었다. 한줄기의 빛을 따라 암흑 속을 지날수록 암흑은 사라지고 새로운 태양빛이, 새로운 녹음기 가득한 세상이 아라네아의 발밑으로 점점 퍼져갔다. 아름답게 울고 있는 파랑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푸른 잔디위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아라네아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남자가 뒤를 돌아 미소를 그리자, 아라네아는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할 한 사람의 얼굴. 수 십 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던 그이의 얼굴. 그가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라고. 이제 떠나자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라네아를 불렀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 네아.”

“에른스트...”

주인을 잃은 채, 겨울 속에 시들어가던 한 떨기의 꽃.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원망조차 하지 않으며 새로운 주인의 손에서 꽃을 피우길 기다렸지만, 원래의 주인을 잊지 못한 꽃은 끝내 몸이 말라 바람과 함께 완전한 죽음을 기다렸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꽃이 안착한 곳은 원래 주인의 손. 비록 꽃잎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른 꽃가지만이 전부였으나 꽃에게는 새롭게 태어날 씨앗이 있었다.

다시 원래의 주인 손에 땅에 묻혀 물과 태양을 양분삼아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아름다운 꽃. 꽃은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주는 사랑을 받음으로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인 역시, 꽃의 곁을 더 이상 떠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라는 하나의 꽃에 영원히 마음을 빼앗긴지 오래였기 때문에. 꽃을 사랑한 한 남자,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한 꽃은 그렇게 영원히 두 번 다시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나의 딸, 헤르세인에게.

헤르세인… 네가 이 일기장을 과연 읽을 날이 올지 알 수 없다만, 마지막은 널 위한 편지 형식으로 쓰고 싶더구나.

헤르세인. 네가 라인하르트 공자와 함께 도망치던 날, 널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 많은 생각이 들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내 욕심에 내 복수에 눈이 멀어 나는 네게 못할 짓을 한 최악의 어미임은 부정할 수가 없구나.

너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것이 언제나 미안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잘 알고 있단다. 만약, 널 그렇게 버리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네가 성장한 어여쁜 모습을 전부 눈에 담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후회가 있다면 널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너의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후회가 가장 크더구나.

하고픈 말은 너무 산더미처럼 많지만… 이 말만은 꼭 네게 전해주고 싶었단다. 네가 미워서, 너를 원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라고. 너를 뱃속에 가진 그 순간부터 에른스트와 나는 줄곧 너만을 기다렸다고.

미안 하구나 헤르세인. 어미로서 해야 할 말이 이것 뿐 이라서. 너에게 너무나 상처를 줬는데 용서를 빌어도 모자를 판에 내 죄가 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나는 네게 미안하고, 용서조차 구할 수가 없구나.』

툭, 툭 소리를 내며 투명한 물방울이 휘갈겨 써진 글씨위로 떨어져 점점 글씨를 번지게 했다. 하지만 글씨를 전부 읽을수록 헤르세인은 자신의 눈물로 얼룩진 글씨가 아님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도, 왕비도 눈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번져가는 글씨를 쓰며 이 편지를 남긴 것이었다. 헤르세인의 눈가가 점점 뿌옇게 흐려질수록, 일기장에 적힌 글씨가 점점 줄어들수록 왕비가 적어낸 내용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글귀를 본 순간, 헤르세인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내게 와줘서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내게 더없는 기쁨을 줘서,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주어 고마웠다. 헤르세인. 그리고 나와 에른스트는 너를 사랑했단다.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주어 고맙고, 평생을 잊지 않으마. 사랑하는 나의 딸 헤르세인.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어머… 니….”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한 그 이름. ‘어머니’란 이름을 언급한 순간, 헤르세인은 그녀의 존재를 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를 향해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그녀 역시, 그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누구보다 원했다면? 그 이름이 불러주길 원했다면?

“어머니… 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는데… 전부… 내가 잘못인데… 왜 당신이 미안한 건데… 내 잘못이잖아… 내 잘못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하지!! 왜, 왜!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건가요. 왜! 왜!!”

이 가슴속의 상처를 완전히 뜯어낼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멍이 들도록 주먹으로 내쳐도 긁어도 이 응어리는 고름이 되어 상처를 더욱 벌려 헤르세인을 미치게 만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의자 아래로 쓰러져 이 고통을 지우고자 헤르세인은 그녀를 부르며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몸부림을 칠수록 왜 이토록 가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인가. 머리를 쥐어뜯고, 아무리 가슴을 쳐내도 헤르세인은 지금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고 동이 틀 때까지 헤르세인은 죽은 시체마냥 바닥에 쓰러져 여전히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다만, 헤르세인의 두 눈은 고통이 힘겨워하던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고통을 죽이고자 제 스스로 끊어낸 감정.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인 초연한 눈동자.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던 헤르세인은 그녀를 그리듯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날 위해서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그 손을 놓아버리라고…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그 손을 놓을게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놓겠어요.”

감정을 죽이니 모든 것이 편해졌다. 고통도 복잡하던 정신도, 쓰라린 상처도 전부 이젠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토록 편히 숨을 쉬어본 것이 얼마만이던가. 제 감정만을 생각해, 사랑따위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이 엉망진창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 자신은 참으로 못난 딸이 아니던가.

“사랑 따위 내겐 사치였어. 불필요하고 없는 편이 더 나았어….”

두 번 다시, 사랑에 눈멀지 않으리라. 감정을 죽이고 죽여 나 홀로 살아가리라. 그것이 저를 대신해 눈을 감은 어머니에 대한 속죄이자, 헤르세인의 결심이었다.

“루드비카…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라네아 왕비가 헤르세인을 대신해 고문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는 소식에 루드비카는 당장에라도 헤르세인의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왕비의 장례식조차 갈 수 없다는 후작의 방어적인 태도와 철저한 감시, 결국. 왕비가 눈을 감은지 2주가 흘러서야 루드비카는 모든 감시와 근신처분이 풀려날 수 있었다.

서둘러 제복을 갈아입고서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당장 만날 생각으로 왕성으로 향하려 했지만, 후작이 내민 하나의 초대장으로 인해 바로 눈앞의 왕성을 두고서 루드비카는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 왕후폐하께서 만찬을 여셨다. 그러니 너도 클로드를 따라 참석 하거라.”

“싫습──.”

“싫다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넌 이제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가 될 몸. 모든 귀족들의 시선이 너에게 향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겠지?”

평소라면 강하게 루드비카를 옥죄듯 엄한 목소리로 대할 후작이었지만, 그 일이 있은 후, 후작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압적인 말투는 누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픈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 조금 누그러진 것일 뿐, 후작은 여전히 루드비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루드비카 역시 평소라면 후작의 말을 무시했겠지만, 지금으로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상황이 루드비카에게 불리했으며 지금으로선 루드비카는 저항할 어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후작이 내민 초대장을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루드비카는 저택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클로드와 함께 만찬이 열릴 본성으로 향해야 했다.

클로드와 함께 마차에 올라 어떤 말조차 없이, 루드비카는 무심한 눈으로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는 본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느덧 마차가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문 밖에는 단 한순간이라도 보고 싶지 않은 여인의 모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드비카.”

오랫동안 이곳에서 쭉 기다리고 있었는지 드레스와 장신구에 잔뜩 힘을 주며 한껏 치장한 케시아가 루드비카의 눈앞에 있었다. 흘긋 눈을 움직이며 이미 밖에 대기하고 있던 클로드의 시선이 잠깐 루드비카에게로 향했지만, 루드비카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마차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고개를 숙였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케시아 왕녀전하.”

제자리에 멈춰 그럼에도 기사의 신분을 다하고자 예를 갖춘 루드비카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점점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가는 케시아.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금방 거리를 좁힌 그녀는 환한 미소를 그리며 루드비카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루드비카.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제 딱딱한 인사는 그만둬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기사의 신분인 몸. 어찌 전하께 함부로 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표정하나 없는 루드비카의 얼굴이 보였으나 케시아는 애써 그 얼굴을 외면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의 사람. 비록 지금은 이런 관계일지 몰라도 자신이 열렬한 사랑을 주면 모든 마음을 주면 루드비카 역시 자신을 돌아봐줄지도 몰랐다. 케시아는 재빨리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얼굴을 지우며 다시금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긴, 급할 거는 없지요. 자, 그럼 루드비카 우리 어서 만찬에 참석하러 갈까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오라버니도요.”

이제는 제 멋대로 라인하르트 ‘공자’나 ‘경’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태도에 루드비카는 속이 울렁거림을 느꼈다.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이름이건만. 오직 한사람 밖에 부를 수 없는 이름이거늘, 그깟 약혼자란 이유로 제멋대로 이름을 부르는 케시아를 루드비카는 화가 났다. 그녀에게도 후작에게도,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제 자신에게도.

하지만 그런 루드비카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케시아가 이젠 멋대로 다가와 팔짱까지 끼자, 루드비카는 결국 질색어린 표정으로 케시아에게서 두발 물러섰다.

“무슨 짓입니까. 전하.”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야 우린… 곧 약혼할 사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약혼할 사이. 루드비카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약혼이란 말이 이토록 혐오스러울 줄은 몰랐다. 만약, 그녀가 아닌 헤르세인이었다면 이보다 더 기뻤을 텐데,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 루드비카의 눈앞에 있는 건 그토록 사랑하는 헤르세인이 아닌, 증오스럽고 자신과 헤르세인을 갈라놓은 케시아 왕녀였다. 그리고 힘이 없기에 고작 몇 발자국 물러서, 말로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루드비카는 싫었다.

“뒤를 따를 테니, 앞장 서주셨으면 합니다.”

끝내 루드비카의 근처도 다가가지 못한 채, 케시아는 아쉬운 작은 숨을 토해내며 앞장서 걸어야 했다. 케시아가 앞장서서 걸어가자 아직까지 제자리에 꼼짝하고 싶지 않던 루드비카는 클로드와 함께 만찬이 열릴 어느 장소로 이동해야 했다.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가슴 속. 구멍을 통해 가슴을 관통하는 찬바람은 칼바람처럼 아프면서도 차가운 한겨울과도 같아 헤르세인의 가슴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언제나 변함없는 가구조차 없는 허전한 침실. 그러나 왕비의 죽음 이후로 헤르세인이 머무는 궁전과 침실은 얼음의 궁전처럼 을씨년스러울 만큼 차가웠으며 그 어디에도 따뜻함의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

그저 하나의 석상처럼 눈 한번 깜박임 없이 헤르세인은 한 장의 초대장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 자세 그대로 초대장을 몇 시간 보고 있었는지 헤르세인조차 이젠 시간관념 따윈 어찌되든 상관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초대장을 쳐다보던 헤르세인은 드디어 내용물을 볼 마음이 들었는지 느릿하게 손을 움직여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꺼내든 종이에는 간략하면서 성의가 없어 보이는 누군가의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오늘 오후, 본성에서 만찬이 열릴 계획이니, 헤르세인 왕녀는 꼭 왕실의 일원으로서 참가토록.』

본성의 만찬. 만찬을 왜 여는지, 왜 자신이 굳이 참석해야하는지 헤르세인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비싼 종이로 만든 초대장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조차 들지 않았다.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다시 초대장 안에 집어넣은 헤르세인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 궁전 바깥조차 나가고 싶지 않았다. 이 장소가 자신을 둘러싼 한정적인 울타리처럼 그 울타리 속에 헤르세인은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침대에 눕기도 전에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헤르세인은 무심한 눈은 침대가 아닌, 문 쪽으로 향했다.

미동조차 없이 그저 문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제자리에 서 있는 헤르세인. 시선은 여전히 문을 향해 있음에도 계속 두드리는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은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노크를 하던 상대가 지쳐버렸는지 헤르세인은 문 밖에서 들리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얼핏 들을 수 있었다.

"누님… 저, 빈센트입니다. 안에 계신가요? 아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빈센… 트….”

왜 이제야 그 어린 존재가 생각난 걸까. 헤르세인을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한 발자국, 또 한발자국 계속 멈춰있던 두 다리를 드디어 움직였다. 느릿하게, 아주 천천히 문 앞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헤르세인의 시선에 닿은 건 어린 동생의 모습이 전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그녀의 모습을 가장 빼닮은 빈센트의 모습을 본 순간, 인형처럼 감정이 없던 헤르세인의 눈은 한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님.”

그동안 왜 잊고 있었을까. 어머니의 또 다른 핏줄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버지의 핏줄이 다를 지언정, 자신과 똑같은 피가 이어진 마지막 혈육. 그리고 어머니란 한 사람의 배에서 서로가 다름에도 같은 피가 이어진 존재.

헤르세인은 힘없는 나약한 손을 들어 올려 빈센트의 뺨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려보았다. 생기가 느껴지는 분홍빛의 뺨과 죽은 이에겐 있을 수 없는 살아있는 이의 온기. 이번엔 손끝이 아닌, 완전한 손으로 빈센트의 뺨을 어루만지며 헤르세인을 눈을 감고서 느껴보았다.

그토록 차갑던 자신의 손이 한순간의 온기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제 손을 완전히 지워낼 수 없어도 손바닥에 남는 미미한 온기가 헤르세인은 싫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미한 온기마저 헤르세인은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다.

“누님.”

저를 부르는 어린 목소리가 들려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을 서서히 들어올렸다.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지 눈물이 맺힌 녹음의 눈동자는 더욱 진해져 온전히 자신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 서서히 뺨을 어루만지던 헤르세인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으나,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그 손을 붙잡은 작은 손길은 오히려 두 손 가득 힘을 주어 놓지 않으려 했다.

“이제부터 제가 누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비록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런 힘은 없지만, 누님만큼은 제가 꼭 지켜낼 것입니다. 꼭 지켜내겠어요. 그러니 누님… 제발 누님마저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애써 뭇 사내들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빈센트는 더욱 힘을 두어 헤르세인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 잡은 두 손은 작게 떨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울지 않기 위해 눈물을 참아내는 모습. 그리고 눈물로 흐릿해져가고 있는 녹빛의 눈동자까지.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빈센트의 곁으로 다가가 두 팔을 벌려 그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누님?”

“따뜻해. 그리고… 너에게서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져….”

머리색도, 눈동자의 색이 다름에도 그 작은 품을 끌어안는 순간, 헤르세인은 빈센트에게서 맡아지는 그녀의 향기를 느꼈다. 이토록 다름에도 어째서 그녀의 향기가 느껴지는 걸까. 왜 이다지도 이 어린소년은 어머니를 빼닮은 것일까. 끌어안은 헤르세인의 두 팔은 더욱 빈센트를 강하게 안아 절대로 놓지 않았다.

“빈센트.”

“예….”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예?”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빈센트는 눈을 깜박였다. 여전히 헤르세인의 품에 갇혀 있어 고개를 움직이고 싶었으나 오히려 움직일 때마다 더 강하게 끌어안은 누이의 팔 힘에 빈센트는 다시 들리는 헤르세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너는 그저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으니까.”

“누님….”

“하지만… 널 지키는 건 내 몫이야. 이제 다른 이들의 감정 따윈 필요 없어. 눈치 따위 보지도 않을 거야. 사랑조차도 이젠 내게 필요치 않아. 너만으로도 난 충분하니까. 이 세상에 너와 나, 둘 뿐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어.”

저 대신 고문을 받아 결국 눈을 감은 어머니. 비록 제 손으로 끝내 지켜낼 수 없었지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대신해,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속죄하고 싶었다. 빈센트에겐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속죄를 할 수 있다면 헤르세인은 그러고 싶었다. 그리고 더는 이 어린 동생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빈센트.”

“예, 누님.”

“혹시, 너도 만찬회 초대장을 받았니?”

“예? 그, 그건….”

안겨 있는 채, 헤르세인의 물음을 받은 빈센트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다. 현재 빈센트는 왕후의 시녀를 통해 직접 만찬회 초대장을 받은 상황.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만찬회 초대장이나 그럼에도 그것이 가장 염려된 빈센트는 누이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누이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떨어져 공허한 두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빈센트는 알 수 있었다. 만찬회에 참석하려는 누이의 모습을.

만찬회 따위 헤르세인에겐 어찌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빈센트가 나타난 이후로 생각을 바꾼 헤르세인은 빈센트와 함께 만찬회가 열릴 본성으로 향했다. 본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빈센트와 걷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의 머리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아니, 그것은 상념이라기 보단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을 미래의 생각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의문의 만찬회 초대장. 그러나 그 초대장을 누가 보냈든 헤르세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찬회에 참석해, 자신을 이용하여 자리를 빛내고픈 그들의 더러운 욕심을 충족시켜주고자 향하는 걸음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그 자리를 참석함으로서 빈센트에게 괜한 불똥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과도 같았다.

그저 잠깐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며 걷고 있었을 뿐인데 빈센트가 잡는 손길이 느껴져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볼 수 있었다. 언제 도착했는지 굳게 닫혀있는 거대한 두 짝의 문과 그 안에선 귀를 어지럽히는 웃음소리가 문틈사이로 퍼져 나오고 있었다.

“누님….”

여전히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작은 손길. 헤르세인은 슬쩍 고개를 틀어 빈센트의 눈을 마주쳤다. 여전히 이 만찬회에 참석하는 자신이 걱정되는지 잔뜩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로 빈센트가 마주보고 있었으나 헤르세인은 다시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들이 저토록 내가 참석하길 원하는데 어찌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 누님은...”

“빛나라고 해. 나를 이용하여 그토록 빛나 보이고 싶거든, 마음껏 이용하라 그래.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해주는 이유는 오직하나야. 널 위해서니까. 빈센트.”

무언가 할 말이 있는지 잠시 동안 빈센트의 입술은 몇 번이고 움찔거렸지만, 끝내 빈센트는 입을 다무는 것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헤르세인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한 빈센트의 못 다한 말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에 더더욱 빈센트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들어가자 빈센트.”

“예, 누님.”

헤르세인과 빈센트가 들어갈 준비를 마치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두 짝의 문을 활짝 열어 두 사람이 회장 안으로 들어가길 기다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는 굳게 닫힌 문의 모습. 그저 두 짝의 거대한 문이 열렸을 뿐인데 안에서 비치는 눈부신 빛에 헤르세인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빛에 적응되길 기다려야 했다. 어느새 눈이 금방 빛에 적응되어 시야가 트이자 헤르세인은 빈센트와 함께 회장 안으로 들어가 만찬회가 열리는 완전한 장소로 목표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몸을 돌리자 가장 먼저 보이는 왕후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드디어 헤르세인 왕녀와 빈센트 왕자가 왔군. 이로서 전부 만찬회에 참석하게 되었어.”

붉게 칠해진 입술을 진하게 웃는 왕후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였다. 머리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커다란 보석이 박힌 왕관과 잔뜩 힘을 주어 입은 화려한 드레스까지. 왕후는 이 만찬회를 제대로 만끽할 생각인지 은근히 헤르세인과 빈센트를 본채 만 채하며 곁에 있는 윌리스 왕태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왕후의 태도가 어떻든 헤르세인은 빈센트와 함께 고개와 허리를 숙여 예를 정중히 갖추었다.

“왕후폐하. 만찬회에 초대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왕후폐하.”

헤르세인의 뒤를 이어 빈센트까지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자 윌리스 왕태자 쪽에 반 정도 몸을 돌리고 있던 왕후는 살짝 비소를 머금으며 자색의 과실주가 담겨있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헤르세인 왕녀와 빈센트 왕자는 고개를 들어도 좋다. 그리고 헤르세인 왕녀.”

헤르세인이 회장 안에 들어서기까지 줄곧 시선을 떼지 않던 왕후의 부름에 서서히 고개를 세우던 헤르세인은 왕비와는 정반대인 두 눈과 마주할 수 있었다. 언제나 서늘해 보이던 왕비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탐욕과 권력욕이 가득담긴 왕후의 갈색 눈동자. 그런데 줄곧 시선이 마주치던 왕후의 갈색 눈동자가 은근히 케시아 왕녀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자,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기던 헤르세인은 숨을 크게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비록 별거 없는 가족모임이나 다를 바 없는 만찬회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케시아를 위해 내가 친히 라인하르트 가문의 두 형제를 초대했지. 그러니 헤르세인 왕녀는 두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거라.”

케시아 왕녀의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의 전부가 보였다. 여전히 변치 않는 장미꽃과도 같은 붉고 탐스러운 긴 머리와 태양을 가득 담아낸 호박 빛의 눈동자. 하지만 그에게도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전보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

“...”

허공에 맞물려 끝내 엇갈려버린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시선. 크게 일렁이고 있는 호박 빛의 눈동자는 애정과 애틋함을 담아내며 흔들리고 있었으나, 심연처럼 깊게 가라앉아 빛을 잃어버린 청록의 눈동자는 어느새 한겨울의 바다처럼 꽁꽁 얼어 있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은 곧바로 후회가 들었다.

이 만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그를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두 번 다시 사랑 따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마음은 배신처럼 동요를 하고 다시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찌르고 또 찔러버려 도륙 내버린 심장. 헤르세인은 다시 한 번 제 마음을 한겨울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 번 다시 흔들리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더는 그로 인한 상처 따위 받지 말라고.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게 된 심장을 느끼며 헤르세인은 누구에게 조차 건네는 인사인지도 모른 채, 다시금 고개와 허리를 숙여 차분히 입술을 움직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과거의 한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케시아 왕녀전하, 그리고 라인하르트 가의 두 분.”

고개를 숙이고 있음에도 특정적인 단 한사람의 시선이 유독 느껴진다면 착각일까. 그럼에도 헤르세인은 꿋꿋이 고개를 숙여 그 시선을 무시했다. 헤르세인의 인사가 마음에 들기라도 했는지 케시아의 목소리는 한층 밝아진 상태로 그 인사를 받아들였고, 다시 고개를 들게 된 헤르세인은 빈센트와 함께 본격적인 만찬회에 참석하고자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위스턴 국왕이 참석하지 않은 카타리아 왕후가 주관한 오후의 어느 만찬회. 유독 붉은 테이블보가 도드라질 만큼, 테이블 위로 하녀들이 계속해서 요리가 담긴 접시들을 나열하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요리들과 함께 조용히 나이프 질을 하며 고깃덩어리를 썰고 있는 헤르세인과 빈센트.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꺄르르 웃음을 터트리며 왕후와 함께 만담을 나누며 요리를 먹고 있는 케시아와 윌리스 왕태자.

한 공간 안에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두 남매는 별개의 세계처럼 다른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작게 고기를 썰어 조용히 입에 넣어 턱을 움직이던 헤르세인은 도무지 고기가 무슨 맛인지 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단순히 고기의 식감밖에 느껴지지 않을 뿐, 미각은 멀쩡함에도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깃덩이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고기가 아닌, 옅은 소스가 뭍은 푸른 채소를 작게 썰어 이제 막 입에 넣으려 할 때, 헤르세인의 눈은 접시로 향하고 있으나 귀는 케시아의 목소리에 열려 있었다.

“루드비카, 괜찮다면 이거 한 번 먹어봐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인데 루드비카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보지 말라고, 머릿속이 외쳐댔지만 두 눈은 얄궂게도 결국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케시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먹기 좋은 크기로 고기를 썰어 소스가 듬뿍 담긴 채소와 함께 옆에 앉은 루드비카의 접시 위로 옮긴 케시아의 모습이 보였다.

일부러 헤르세인과 눈을 마주친 케시아는 만족어린 눈으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반대로 굳어버린 눈을 하며 헤르세인을 보고 있는 불안한 루드비카의 시선까지. 세 명의 엇갈린 시선이 그렇게 테이블 위로 뒤엉켜 있었다.

“케시아, 아무리 그래도 왕녀로서의 기품을 어디다 버린 것이냐. 네 동생들을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냐?”

그때, 왕후의 질책어린 목소리가 케시아를 맹렬히 비난 했지만 헤르세인은 왕후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알 수 있었다. 맹렬히 비난하는 목소리와는 다르게 목소리에 묻어난 오만함과 대놓고 케시아와 그의 사이를 부각시키려는 왕후의 속내를 어찌 모를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흔들린다면 왕후는 물론 케시아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헤르세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요리가 담긴 접시 위로 다시 시선을 내려 나이프 질을 시작한 헤르세인은 왕후의 귀에 똑똑히 들릴 수 있도록 아니, 이 만찬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귀에 전부 들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약혼자이신 라인하르트 경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곧 두 분은 약혼하실 사이이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르세인의 두 눈은 접시 위로 양이 줄지 않는 고깃덩이에 닿고 있었다. 나이프 질을 할수록 마치 그 고깃덩이가 제 심장의 상처를 잘라내는 이 묘한 기분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제 막 작게 썬 고깃덩이위로 포크를 찍어내기도 전에 챙그랑 소리를 내며 식기를 떨어트린 듯한 시끄러운 소리 덕에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어머, 루드비카 괜찮아요? 갑자기 나이프를 떨어트리다니… 그보다, 헤르세인 네가 그리 말해줄 줄은 생각도 못했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역시, 하나 뿐인 여동생이라 그런지 누구보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 언니는 무척 기쁘단다, 헤르세인. 이제 그만 과거의 잘잘못은 잊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너 역시 좋은 이를 만나 나처럼 행복해졌으면 하구나.”

행복? 그녀는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에겐 행복이란 건 결국 가질 수 없는 것과도 같았다. 손에 넣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그리고 평생을 가져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감정. 그때, 정적을 깨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또랑또랑히 헤르세인의 귓가에 울렸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보지 않아도 헤르세인은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그 미소를 본다면 여태까지 꾸역꾸역 먹고 있던 것이 헛구역질로 나올 것 같아 헤르세인은 그리 되지 않고자 느릿하던 나이프 질에 좀 더 속도를 주어 남은 요리를 전부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참석할 필요조차 없던 왕후의 만찬회. 무의미한 자리이자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자리. 그리고 그와의 약혼할 사이임을 자신에게 과시하고자 만들어낸 자리. 이 만찬회의 의도는 결국 이런 것이었다.

“만찬회 요리 맛있었습니다. 왕후폐하 송구하지만 조금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자리를 먼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길.”

헤르세인은 눈앞의 요리를 전부 비워내지 못한 채, 자리에서 떠났다.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지만 왕후는 순순히 보내주었고, 빈센트 역시 헤르세인이 무척 걱정되었는지 뒤이어 따라 나왔다.

“누님, 괜찮으신 거죠?”

뒤따라 나왔음에도 저가 걱정이 되었는지 빈센트의 목소리에는 한 가득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헤르세인은 걷고 있던 두 다리를 멈춰 빈센트를 보며 그 불안함을 지워내 주고자 입술을 벌렸지만, 끝내 매듭짓진 못했다.

“난 괜찮──.”

“헤세!”

왜, 지금 당장 듣고 싶지 않은 그의 목소리가 이토록 절실히 들리는 걸까. 헤르세인은 고개를 틀어 다급히 뒤쫓아 온 루드비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루드비카의 목소리를 들어서 인지, 아님 자신이 걱정 되서 인지 그 순간 제 손을 잡은 빈센트의 작은 손이 느껴져 헤르세인은 다시금 빈센트 쪽으로 고개를 틀어 어린 동생의 걱정 얼굴을 보며 대답했다.

“빈센트, 먼저 돌아가 주겠니?”

“하지만 누님….”

“걱정하지 않아 돼. 더 이상,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대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한 순간 빈센트의 두 눈이 크게 떨렸지만 결국,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님을 알기에 빈센트는 순순히 자리를 떠났다. 빈센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쯤, 다시 고개를 틀었을 땐 헤르세인의 눈앞에는 바로 가까이 루드비카가 서 있었다. 고작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거리임에도 그 거리조차 이젠 너무도 버겁고, 너무도 가까워 헤르세인은 스스로 한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헤세!”

“다가오지 마.”

그가 한발자국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헤르세인은 다시금 뒤로 한발자국 물러났다. 당장에라도 손을 뻗어 닿고 싶어 하는 그의 간절함이 담긴 표정과 손짓. 하지만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손길을 거부했다.

“헤세!”

“가까이오지 마. 당신이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난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계속 당신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뒤로 물러날 거니까.”

“어째서….”

어째서냐고, 그가 충격 받은 얼굴로 나직이 물었다. 왜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는지. 왜 이토록 간절히 내밀고 있음에도 잡아주지 않는지. 빛을 잃은 심연의 눈동자는 온전히 루드비카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정을 잃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일 뿐. 눈동자 위로 루드비카를 비추고 있음에도 이제는 담아낼 수 없었다.

“헤...”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 난 이제 당신의 헤세가 아니니까.”

처음엔 감정을 죽인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번 제 손으로 죽인 감정은 깨져버려 돌덩이가 되더니, 이젠 얼음처럼 차가워져 더 이상, 미칠 듯이 찢어지는 고통은 없었다. 감정이란 것이 밑바닥을 향할수록 제 가슴속에 사라질수록,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이토록 고통이 없을 정도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사랑 따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깟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 단 한 사람뿐인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들었다. 그깟 사랑만 없었더라면 이토록 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도, 누군가를 잃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과거로 되돌릴 수조차 없었다.

“이제야…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과 나는 절대로 인연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어져서도 안 되며 서로 보고 있는 것조차 하늘이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헤세...”

“루드비카. 당신에겐 보여? 나와 당신 사이에 절대로 가까이해서도 넘어 설 수조차 없는 선이 있다는 걸. 감정이란 것을 내 손으로 죽이기 전까진 몰랐는데… 죽이고 나서야,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야 모든 것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이란 것도. 당신과 나 사이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루드비카가 고개를 저었다. 제 말을 부정하듯, 그 어느 때보다 격하게 흔들리는 두 눈으로 저를 보며 눈물을 맺히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말라고. 이건 자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 번 제 손으로 죽여 버린 감정. 그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건 헤르세인에겐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루드비카로 인해 깨달은 사랑이란 감정. 그가 곁에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었고, 그가 사랑해 주었기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사람. 헤르세인에게 있어, 루드비카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헤르세인은 놓아버리길 택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

“당신을 전부 담아내기에 내 그릇이 너무 작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그를 감당해내기엔 제 자신의 그릇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도 작아 그의 사랑을 전부 담아내기엔 흘러넘칠 정도로 제 그릇은 낡고 보잘 것 없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나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욕심냈던 거지.”

“거짓말….”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서로가 상처받을 일 따윈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 욕심으로 인해, 눈앞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끝내 외면한건 제 자신이었다. 얼마나 이토록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깟 사랑이 뭐라고. 고작 사생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봐준 그것이 왜 그토록 흔들려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일까.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놔 버리겠어. 당신을 붙잡았던 감정도 내 욕심도 전부… 내 처지가 어떤 것인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거짓말… 거짓말….”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어. 루드비카. 이제 당신과 나는 오늘로서 끝인 거야.”

“거짓말! 인정 못해!! 그런 거 난 인정할 수 없어!!”

철저하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 감정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외침에 흔들렸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감정을 죽인 현재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처절한 외침에도 절망어린 그의 표정이 절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라나는 새싹이란 감정이란 감정은 모두 짓밟아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헤르세인은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렸다.

그에 대한 미련 따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오늘로서 그와의 인연이 끝임임을 종결하기 위해 헤르세인은 절박한 외침이 들림에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당신과 나는 정말로 여기서 끝인 거야. 여기서… 전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저택을 울렸다. 하지만 이것저것 깨지는 소리가 들림에도 하녀나 집사인 헨드릭조차 감히 루드비카의 침실 안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이 부서지는지 어떤 물건이 깨지는지 조차 모른 채, 헨드릭이 침실 바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쯤, 헨드릭의 구세주가 나타난 건 그때였다.

“클로드 도련님.”

“내가 얘기를 해 볼 테니 헨드릭은 하녀들을 데리고 잠시 물러나 있도록.”

클로드가 어떻게 루드비카를 말릴지 알 수 없으나 헨드릭은 지금당장 믿을 사람이 클로드 밖에 없기에 금방 물러나야 했다. 홀로 남은 복도 앞. 문 앞에서 노크를 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던 클로드는 이내 노크대신 문고리를 잡고서 바로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

침실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보인 광경은 바닥에 전부 조각조각 흩어진 유리조각들. 클로드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발 내디뎠지만 바로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유리조각의 소리에 금방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다. 지금 당장 바닥을 치우지 않으면 침실을 치우는 하녀들조차 다칠 염려가 있어, 클로드는 일단 헨드릭에게 부탁할 것을 생각하며 조용히 루드비카를 불렀다.

“루드비카.”

“형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겁니까?”

결국 제 풀에 지쳐버렸는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싼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작은 한숨이 세어 나왔다. 혹시나 싶었지만 만찬회에서 만난 헤르세인 왕녀 때문인지 루드비카는 거의 반쯤 미쳐 있었다. 그야말로 실속 없는 만찬회. 왜 자신까지 루드비카와 함께 만찬회에 끌어들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이유가 어찌됐든 루드비카가 약혼자임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임은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헤르세인 왕녀까지 굳이 부를 이유는 없지 않던가.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와,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자. 거기다 무슨 일인지 만찬회가 완전히 끝나기 전임에도 헤르세인 왕녀가 나가는 동시에 곧이어 뒤따른 루드비카의 모습을 클로드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는 분에 이기지 못해서 인지, 아님 제 자신을 향한 분노 때문인지 닥치는 대로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전부 던지고 부수고 있었다.

“아니… 형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다 무슨 소용 인가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건 그녀가… 헤세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클로드는 조금 놀란 눈으로 루드비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설마,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헤르세인 왕녀 쪽에서 그런 말을 하리란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루드비카가 저리 나오는 건 당연한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클로드가 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예전 폐인처럼 지냈던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두 눈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파르르 떨고 있음에도 그 눈빛 속에 드러나는 광기와 클로드조차 흠칫하게 만드는 집착. 루드비카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 쥔 채로 이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일거야. 그녀가… 헤세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 사랑스러운 입술로 날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루드비카.”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빌면 그녀가 다시 저를 받아줄까요? 다시 사랑한다고 해줄까요?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꽉 잡고 영원히 함께 하자 했었는데 갑자기 사랑하지 않겠다니… 형님, 형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분명, 왕후폐하나 케시아 왕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헤세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습니까!!”

혼이 쏙 빠진 사람 중얼거리던 루드비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클로드에게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그녀가 제게 이럴 리가 없다고. 가장 그녀를 위협할 두 사람에게 협박 받아 마음에 조차 없는 말을 뱉어냈다고. 분명 루드비카는 그렇게 외치고 있으나 클로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우의 모습이 이토록 눈에 담기가 쓰라린 건 처음이었다.

루드비카 본인은 알고 있을까?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를….

“이제 그만해라, 루드비카.”

“그만하라니… 무엇을 말입니까? 설마 형님도 결국은 케시아 왕녀의 편입니까? 그런 겁니까!? 저를 도망치라 보내 줄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간악한 왕녀의 편이―!!”

도무지 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클로드는 처음으로 주먹을 들고 말았다. 퍽 소리를 내며 루드비카의 얼굴을 치자,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진 어리석은 동생의 모습에 클로드는 주먹 쥔 손을 피며 입을 뗐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이다. 특히나 케시아 왕녀전하와 너는 엄연히 약혼할 사이. 그런데 케시아 왕녀전하를 그딴 식으로 밖에 부르지 못해? 루드비카! 정신 차려!! 이대로 정말 미쳐버리기라도 할 셈이냐!?”

클로드의 비난어린 목소리가 날카롭게 루드비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한 루드비카는 터진 입술을 움직이며 가장 절망어린 얼굴로 클로드에게 대답했다.

“예… 미쳐버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미쳐버리고 싶다고요!! 그래야 그녀가! 혹시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 제 곁으로 올 수 만 있다면 저는 백번이고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장난감을 가져본 적이 없으나, 매번 손에서 놓지 않던 목검이나 검이 망가져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것을 클로드는 몇 번이고 본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루드비카의 모습은 딱 그러했다. 망가지기 일보직전인 검 한 자루처럼. 루드비카는 저토록 부셔져 가고 있었다.

아직 깊은 밤조차 되지 않은 어스름한 저녁의 하늘. 그 하늘 아래 거대한 저택의 입구 문이 열리면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먼지 털듯 손을 털며 짐짝처럼 버려진 두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다. 무언가로 두드려 맞아 검은 하녀 복이 더러워질 만큼 엉망진창인 한 여인과 거의 피 떡이 되어 기절해버린 소년까지.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마뜩찮은 눈으로 쳐다보던 병사들은 혀를 차며 손짓을 했다.

“이쯤 했으니 빨리 돌아가자고.”

“그러게 왜 도련님을 건드리긴 건드려? 하녀가 주제를 알아야지. 쯧쯧.”

“이봐 들! 어서가자고! 주인어른께서 부르신다고!!”

쾅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힌 철제의 문. 어느새 두 사람, 아니 두 남매를 짐짝처럼 버린 병사들은 돌아가 버린지 오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여인, 라즐리는 가까스로 신음을 삼키며 상체를 일으키곤 느릿한 굼벵이마냥 무거워진 몸을 이끌며 기절한 동생의 곁으로 다가갔다.

“라…피스… 일어나… 눈 좀 떠봐… 라피스… 라피…스….”

서서히 소년티를 벗으며 성인으로서 나아가고 있던 그녀의 동생, 라피스. 하지만 제 눈엔 한없이 귀엽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멍 자국이 가득한 피 떡이 된 채로 라피스는 신음을 삼키며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나쁜 놈들… 나로 때렸으면 됐지, 왜 너까지 이 꼴로 만든 건데… 전부 내 탓이잖아…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네가… 네가…!”

이제는 남은 혈육이라곤 남동생 밖에 없는 라즐리에겐 3살 어린 라피스의 존재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하지만 한 순간의 부주의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계략적인 행동으로 인해 라즐리는 피 떡이 된 라피스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아야 했다.

“라피스...”

라즐리에게 있어, 특히나 일반 평민에게 있어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하녀’는 귀족들이 보기엔 그저 허드렛일이나 도맡아 하는 억센 직업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녀를 꿈꾸는 젊은 평민 여성들에겐 꿈의 직업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꿈의 직업이자 최고의 직업인만큼 반대로 하녀는 최고로 힘든 직업이기도 했다. 또한 더러운 욕정이 가득한 귀족들에게 있어 나약한 하녀는 그야말로 그들에겐 최고의 먹잇감이기도 했다.

하녀가 된지도 이제 어엿한 5년차로 접어든 라즐리에겐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남동생, 라피스가 곁에 존재했다. 어린 시절 병으로 부모가 모두 세상을 뜬 나머지 일찍이 가장이 되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라즐리는 14살이란 나이에 운이 좋게도 하녀가 되어 아르펜소 백작가에 들어갈 수 있었고, 3년 뒤 라즐리를 따라 라피스 역시 아르펜소 백작가의 하인으로 들어와 사이좋게 남매가 백작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아르펜소 백작의 둘째 딸인 알리샤의 하녀로서. 라피스는 아르펜소 백작의 장자이자 후계자인 로버트의 하인으로서. 서로 각자 맡은 바를 다했으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하는 유일한 가족이 있기에 라즐리도 라피스도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될 것 같던 평화는 단숨에 깨져버리고 말았다. 가문의 후계자로서 백작의 후계자수업을 차근차근 밟고 있던 장자 로버트로 인해 라즐리는 하녀에서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라즐리에게 있어 그 짧은 시간은 지옥을 오가는 악몽의 시간이기도 했다.

라즐리는 오늘도 하녀들 사이에서 철없기로 유명한 알리샤의 심부름으로 인해 어둑해진 복도를 지나 로버트를 찾아갔었다. 같은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무슨 비밀이 있는지 비밀편지를 꼭 전달해달라는 알리샤의 부탁에 라즐리는 하녀로서 그저 묵묵히 그 심부름을 마쳐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라즐리는 로버트에게 단단히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

“도, 도련님… 왜,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니? 몰라서 묻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완전한 혼담이 이뤄지기 전에 너를 안으려는 거잖아.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라비로서 알리샤에게 되도 않는 부탁을 전부 들어줬는지 알아? 하지만 역시 내 동생이야. 지식은 쌓지 못해도 이런 얄팍한 짓은 잘 생각하니 말이야. 라즐리, 이게 뭔지 알아? 바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편지이지.”

편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한 없이 상냥하던 로버트가 편지를 받자마자 욕정에 눈이 먼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에 라즐리는 이토록 소름끼칠 수가 없었다. 로버트가 하얀 백지밖에 없는 편지지를 흔들거리며 서서히 라즐리와 거리를 좁혀갔다. 점점 사이가 좁혀질수록 라즐리의 머릿속에선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도망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지만 라즐리는 미처 도망치기도 전에 다시금 로버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

“어딜 도망가려고? 알리샤가 준 이 기회를 그냥 물릴 수는 없잖아? 있잖아, 라즐리. 너도 솔직해지라고. 너도 내심 내게 안기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늦은 저녁에 그것도 대담히 알리샤가 보낸 편지를 내게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올 리가 없잖아?”

“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도련님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뭐, 아무래도 좋아. 먹잇감이 내 손에 떨어졌는데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이니!!”

“도, 도련─! 꺄아아악!!”

그 뒤로 라즐리는 어떡해서든 로버트에게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다. 저를 덮친 로버트의 음탕한 시선과 우악스럽게 하녀복을 벗기려던 섬뜩한 손짓. 맨살을 더듬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소리 지를 때마다 더 기쁜 듯이 웃는 로버트의 모습에 얼마나 소름이 돋던가. 라즐리는 그때마다 목 놓아 라피스를 찾았다.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길 바라며. 또는 자신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을 라피스가 찾아와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피스! 라피스!!!”

“누나!!”

그 순간, 정말로 하늘이 도운 것처럼 라즐리의 곁에 라피스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사색이 된 얼굴은 물론이고 로버트에게 덮쳐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이의 모습에 라피스는 당연히,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주변에 있던 꽃병을 들어 로버트의 머리에 던져 버렸다. 덮쳐지고 있는 라즐리를 구해내기위한 충동적인 행동. 그러나 그 충동적인 행동이 결국 지나가던 하녀와 병사들의 눈에 띈 것은 물론, 백작의 귀까지 들어가 라즐리와 라피스는 하녀와 하인 직에서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후계자인 로버트의 몸에 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백작의 명을 받은 병사들에게 라즐리와 라피스는 곱게 쫓겨나기는커녕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로버트가 해를 입은 만큼 집단 구타를 당해야만 했다.

완벽한 하녀는 아니더라도 하녀장이 만족할 만큼,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라즐리는 하녀로서 최선을 다해 백작가에 몸을 바쳐 일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후계자를 되려 덮치려 했던 천박한 하녀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 돈 한 푼 없이 내쫓겨나 남은 거라곤 온 몸에 새겨진 피멍들 뿐.

이렇게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적이 없었다. 자신은 헌신을 다해 백작가에 힘을 썼건만 그렇다고 큰 월급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라즐리는 제 신분이란 것에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이 났다. 평민이기 이전, 귀족들이 한순간에 쓰고 내다버릴 하녀란 위치가 이토록 보잘 것 없었던 건가?

"천박한 것. 누가 평민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천박한 꼴이라니. 하녀라 해도 결국, 평민은 평민. 어디 넘볼 것이 없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여봐라! 저 더러운 계집을 매우 쳐라!!"

아르펜소 백작가가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가문인 것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문의 무성한 소문과 백작의 행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라즐리는 아르펜소 백작가의 하녀 직을 관둘 수 없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월급을 주는 ‘고용인’이었으며 그들 밑에서 일하는 자신은 월급을 받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평민인 ‘사용인’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선 멋대로 관둘 수가 없었다.

또한 다른 가문에 이직을 하고 싶어도 백작부인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가 않았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을 백작가의 철문. 라즐리는 멍이든 눈으로 백작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은 저보다 작은 라피스를 간신히 등에 업고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앞을 나아갔다. 이곳에서 죽치고 있는 것 보다 당장, 라피스의 상태를 살펴야 했다.

“라피스… 내가 금방…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줄게. 조금만… 조금만 힘내….”

완전한 어둠이 뒤덮인 밤하늘. 저랑 같이 따라가겠다는 빈센트를 왕성에 두고서 헤르세인은 매일 같이 하늘의 신전에 들려, 로하네 신관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는 이 시간이 되면 왕성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 이제는 하나의 습관이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일과. 왕비가 눈을 감은 이후로 헤르세인은 안 그래도 잠을 제대로 잔적이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다시피 했다.

잠은 잘 수 없고, 눈을 감을 때면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몽으로 인해 눈조차 제대로 붙일 수가 없던 헤르세인이 선택한 방법은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울 기도를 드리는 것. 처음에는 신이라는 존재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편치 않았지만, 굳이 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향해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비우기에 기도만 한 것이 없다는 로하네의 조언 덕분에 헤르세인은 어느 정도 마음을 잔잔히 억누를 수 있었다.

그 일로 계속해서 저녁 시간 때마다 틈틈이 하늘의 시전에 들리게 된 헤르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비울, 상념을 지울 기도를 올리며 허름한 마차를 타고 왕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무심하기 그지없는 코발트색의 눈으로 어둡기만 한 광장의 건물들을 창밖을 통해 멍하니 쳐다보던 헤르세인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풍경이 눈앞을 지나가기 전, 한 건물에서 늙은 노인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덜커덩. 그런데 무슨 일인지 창밖의 풍경이 전부 지나기도 전에 갑작스레 멈춰버린 마차의 움직임에 놀랄 것도 없이 마차를 몰던 마부가 창문을 두드리며 바깥의 상황을 전했다.

“아무래도 앞에 마차 사고가 났는지 다시 이동하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차 길이 여기뿐이라 돌아가기도 애매해서 그러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왕성에서 고용한 마차가 아닌, 따로 광장에서 금화 하나를 주고 가장 싼 비용으로 고용한 마차인지라 금화를 더 주고 재촉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왕성의 모습은 물론, 마차 사고가 정리 될 때까지 그다지 기다리고 싶지 않던 헤르세인은 마차 문을 열고 나와 마부에게 전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가도록 하지.”

미련 없이 마차에서 멀어진 헤르세인은 느릿한 걸음으로 왕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한발, 두 발 나아갔지만 세발자국을 땅에 딛기 전, 바로 가까이 들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나아가려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다.

“돈은 드릴게요! 돈은 반드시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동생 좀 치료해 주세요!!”

“아, 글쎄 선금부터 줘야 치료할 수 있다니까? 이봐 아가씨. 아가씨의 사정이 딱한 건 알고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 그냥 함부로 치료해주다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치료비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특히 요즘 들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가씨한텐 미안하지만 선금을 주지 않으면 치료해 줄 수는 없어.”

“선생님! 제발요!! 돈 드린다고요! 동생 치료할 동안 제가 어떡해서든 돈을 구해드린다고요!!”

“미안하지만 다른데 알아봐.”

“서, 선생님! 선생님!! 이 나쁜 노인네야!!!”

매정히 문을 닫아버린 늙은 의사와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다 끝내 바닥에 주저앉은 처량한 여인의 모습. 왜 일까. 헤르세인은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여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왕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닌, 소년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박한 여인을 향해 헤르세인은 느릿하게 움직였다.

“라피스… 라피스….”

창백한 소년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목 놓아 울지 않겠다는 여인의 의지가 헤르세인의 눈에 비쳤다. 그리고 완전히 여인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 헤르세인은 어쩐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여인을 향해 오지랖일지, 아님 선의 일지 모를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그 소년을 살리고 싶으면 날 따라와.”

라즐리는 처음엔 제게 손을 내민 헤르세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란 것이, 특히나 숨을 쉬고 사는 현실이란 것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기에 거리낌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사 내민다 해도 무언가의 이득을 얻고자 내민 도움의 손길일 뿐. 그리고 당연하게도 라즐리는 헤르세인 역시 금전의 목적을 바라며 제게 손을 내민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녀를 따라 왕성에 가까워질수록, 라즐리는 오히려 그녀의 손길이 되레 무서웠다. 언제나 광장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드높은 왕성의 모습. 그리고 왕족이 아니면 자신 같은 평민은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그곳에 라즐리는 처음으로 발을 들일 수 있었다. 그것도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아직까지 정체를 모를 그녀의 뒤를 따라.

“여기에 눕히도록.”

어쩌다 보니 본성의 정문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레인 궁전에 도착한 라즐리는 헤르세인이 가리키는 눈짓을 따라 서둘러 라피스를 침대위에 눕혔다. 라피스를 온전히 침대위에 눕히자,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헤르세인의 말을 듣고서 어색히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던 라즐리는 거의 십 여분이 지나서야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는 헤르세인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 소년을 진찰해 줬으면 하네.”

아무래도 그녀가 데려온 이는 의사인지 의사가 서둘러 진찰기를 들어 라피스를 꼼꼼히 진찰하기 시작했다. 진찰기를 가지고서 금방 라피스의 상태를 살핀 의사는 바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온 의료 가방을 열어 라피스의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거의 한 시간이 다 돼서야 라피스의 치료가 끝이 났다.

“다행이 가벼운 뇌진탕으로 기절한 것뿐이니 몇 시간 뒤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몸 전체에 상당한 타격으로 내상과 외상이 심하니 당분간은 몸을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점만 주의한다면,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몸이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저 여인도 진찰해 줬으면 하네.”

“알겠습니다.”

라피스의 치료가 끝나자 이번에는 그녀의 배려로 라즐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큰 다행이라면 라피스와 다르게 큰 부상이 없었기에 라즐리는 안심할 수 있었다. 다만, 부운 눈과 더불어 여기저기 걷어차여 살짝 찢어진 팔의 피부와 무릎의 피부를 제대로 소독해야한다는 의사의 충고를 빼면 라즐리는 라피스보다 어느 정도 멀쩡한 상태였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의사가 돌아가자 어느새 침실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를 바라고 도운 건 아니야.”

“…예?”

라즐리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나 인형마냥 표정 변화가 없는 그녀의 모습에 괜히 도로 물어보기에도 어색해 라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다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흘끔 눈동자를 움직였다.

“살리고 싶은 사람은 있음에도 돈이 없어 구할 수 없는 그 처지를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멋대로 몸이, 손이, 입이 움직였던 건지도 몰라.”

상황은 다를지라도 슬럼가에서 살기를 십 여 년. 돈이 없는, 특히나 잔혹한 슬럼가의 이기적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헤르세인은 라즐리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뻗어버린 손길. 후회는 되지 않았다. 다시 아까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헤르세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시금 그녀에게 그 손을 내밀 것을.

“저어… 실례지만 혹시 왕족… 이신가요?”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신경 쓰였는지 불안한 눈으로 저를 흘끔 보는 여인의 시선에 헤르세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치 않은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가 나를 아직까지도 왕녀로 생각하고는 있으니… 그런 거겠지. 어차피 모두가 떠받드는 고귀한 왕녀는 아니지만.”

“...”

“모두가 멸시하는 사생아이자 슬럼가 출신의 제2왕녀… 헤르세인. 그게 내 이름이야.”

“헤르… 세인….”

라즐리는 점점 커지는 눈을 하다가, 이윽고 동공을 크게 흔들며 커다란 눈으로 헤르세인을 보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은 그토록 소문이 자자한 소문의 왕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셈이었다. 죽은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이자, 슬럼가 출신으로 단숨에 왕녀가 된 신분상승의 왕녀. 그리고 제1왕녀인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를 유혹하고 빼앗은 사악한 악녀 헤르세인.

아르펜소 백작가에 있을 때만해도, 아니 바로 오늘까지만 해도 하녀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입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다. 그 일이 꽤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워낙 회자될 이야기이기에 라즐리 역시 동기들은 물론, 선배 하녀들이나 후배 하녀들 사이에서 그녀가 얼마나 악독한 악녀로 그려지고 있던가. 소문의 소문은 부풀어지는 법이라고 심지어 그녀를 간악한 악마로 묘사하는 하녀들도 있을 정도였다.

더불어 워낙 소문이 장대하게 퍼진 화제의 이야기이다 보니, 라즐리는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인상을 그리자면 제법 날카롭고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를 유혹할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왕녀일 것이라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소문은 소문에 불과할 만큼 지금 바로 두 눈앞에 보고 있는 그녀는 소문과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마치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생기하나 없이 표정변화가 없는 얼굴은 물론, 악녀라 불릴 만큼 굉장한 아름다움을 가진 외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돈 다는 것이 이해가 갈 만큼 라즐리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한 겨울과도 같은 서늘함이 담겨있는 눈동자와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남색의 머리칼. 라즐리의 눈동자에 담긴 헤르세인의 모습은 겨울 속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얼음 석상과도 같은 인상이었다.

그러나 라즐리가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헤르세인은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고자 했다.

“갈 곳이 없으면 당분간 여기서 편히 쉬어도 상관없어.”

“예? 아,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도 찾지 않는 궁전이고 소문을 들었다면 알고 있겠지만 나는 환영받지 못한 왕녀이기 때문에 시녀나 하녀조차 없어. 그러니 당분간은 여기서 편히 쉬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지. 더욱이 동생을 돌보려면 의사의 진찰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테니까.”

“그, 그럴 순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 같은 평민이 감히 왕녀전하의 궁전에 함부로...”

라즐리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젓자, 라즐리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던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입을 열었다.

“이름뿐인 왕녀일 뿐이야. 그리고 난 당신보다… 아니, 평민보다 더 못한 슬럼가의 출신이기도 했어. 그렇게 말하면 본래 이 궁전도 내 것은 아니니까. 정 마음에 걸린다면 이 궁전의 빈 침실을 사용해도 좋아. 어차피 난 내 침실을 별로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할 말을 전부 전했기에 헤르세인은 더 이상 이곳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이유 따윈 없었다. 편히 그녀가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급히 붙잡는 그녀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움직이던 발걸음을 뚝 멈춰 버렸다.

“저어!”

“...”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라즐리’라 합니다. 누워있는 동생의 이름은 ‘라피스’이고요. 헤르세인 왕녀전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정말로… 편히 라즐리라 불러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

은혜를 갚을 필요 따윈 없다고 헤르세인은 다시 말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입을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 헤르세인은 그저 발길이 닿는 곳을 향해 걷고, 또 걸으며 다시 슬금슬금 떠오르려는 상념들을 잊고자 할 뿐이었다.

간간히 라즐리의 상태와 그녀의 동생인 라피스의 상태를 지켜보길 어느덧 일주일. 의사의 말대로 라피스는 다음날 바로 눈을 떠, 눈물을 글썽이던 라즐리에게 안심의 미소를 그려주었다. 또, 본인은 물론이고 누이까지 도와준 것에 감사함을 느꼈는지 라피스는 비록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두 눈동자에는 감사함을 가득 담아 헤르세인에게 인사를 전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저와 제 누나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혈육이기 때문일까? 아님, 형제이기 때문일까. 라즐리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라피스의 말에 헤르세인은 문득 빈센트를 떠올렸다. 다르면서도 언뜻 똑같은 공통점을 지닌 서로의 처지. 그래서 일까. 헤르세인은 더더욱 라즐리와 라피스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빈센트에게 부탁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두 사람에게 조달하는 데에 신경 썼다.

“헤… 아니… 왕녀전하.”

몇 번이고, 몇 십 번이고 몇 백번이고 잊으려 했던 그의 목소리. 그토록 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다시금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앞으로 나아가던 헤르세인의 두 발목을 기어코 붙잡고 말았다.

“이제는… 제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

무시하라. 무시해야한다. 몇 번이고 머릿속이 경고를 하며 앞으로 나아갈 외쳐댔다. 그리고 간신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무거운 돌덩이 같은 다리를 겨우 움직이며 헤르세인은 겨우 움직였지만 정작 상대는 인내할 수 없었는지 기어이 앞으로 달려와 시야를 가로 막고 말았다.

“이제는 정말로… 저를 무시하실 생각이십니까?”

“...비켜.”

“헤세!”

“아니… 이제는 내 언니의 약혼자이기에 반말이 아닌 존칭을 써야겠군요. 실례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기를. 하지만 제 갈 길이 바쁘니 비켜주셨으면 합니다만.”

너무나 이 말이 충격적인 탓이었을까. 루드비카의 두 눈을 크게 뜨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한 자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흔들리는 눈을 하며.

“어떻게… 잠깐… 헤세, 어디 아픈 건가요? 왜 약재를...”

자신에게 정신이 팔리다가 하필 약재를 쥐고 있는 손을 발견했는지 그가 더욱 동요하며 덜덜 떨리는 손을 뻗으며 자신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손길이 닿기 전에 혹시라도 그 손이 닿아 지금까지 억눌렀던 제 다짐이 눈처럼 녹아버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격렬히 루드비카의 손을 쳐내며 뒤로 물러났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엔 보는 눈이 많습니다. 라인하르트 경.”

손을 쳐낸 붉은 흔적이 남아버린 그의 손. 허공에 멈춰버린 그의 손은 매정하게 쳐내진 아픔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충격을 받아버린 상처어린 눈과 반쪽이 되다 시피 한 얼굴. 그러나 헤르세인의 흔들림조차 없는 표정 없는 얼굴에 더더욱 상처를 받았는지 루드비카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온 몸을 떨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째서… 어째서! 정말로 저를 밀어낼 작정인가요? 이토록 내가! 당신을 처절히 가슴에 품고 있음에도!?”

처절하고도 절박한 루드비카의 외침이 이토록 또렷이 들릴 수가 없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두 손으로 양쪽 귀를 막아 모든 소리를 완벽히 막고 싶었지만 헤르세인은 그럴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보인다면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드러내는 꼴이니까. 한 치의 빈틈도 나약함도 헤르세인은 절대로 루드비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분명히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과 나 사이의 감정은 완전히 끝이라고.”

“거짓말! 그럼 어째서! 헤세는 제가 선물해 준 그 머리끈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머리끈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제게 미련이 있기 때문이잖습니까!”

미련. 그의 말처럼 혹시나 싶어 묶은 머리끈을 풀어 손 위에 올려보니 정말로 그가 제게 선물한 머리끈이었다. 자신의 생일 선물이라며 팔찌와 함께 선물한 녹색의 리본 머리끈. 언제부터 이 머리끈을 무의식적으로 머리칼에 묶었는지 헤르세인은 제대로 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란 것이 아직까지 미련처럼 묶여 있던 건지도 몰랐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그가 말한 미련이라면 그것을 당장 잘라내야만 했다.

손바닥 위를 감싸고 있던 머리끈을 살며시 쥔 헤르세인은 주변을 살피다, 근처에 있던 횃불 쪽으로 다가갔다. 대낮임에도 태양처럼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불꽃들이 작은 바람아래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불꽃을 보던 헤르세인은 망설임 없이 쥐고 있던 손은 완전히 펴, 그 미련을 불꽃 속에 떨어트렸다.

“헤세!”

장식은 없을지라도 녹음의 숲처럼 영롱한 녹색 빛을 띄우던 머리끈은 끝에서부터 서서히 불꽃에 감싸여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이 점점 커질수록, 녹색의 빛은 점점 사라졌으며 완전히 잿더미만 남겨진 채 모든 것이 소멸된 순간 헤르세인은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마저 불꽃 속에 던지며 루드비카를 향해 입을 뗐다.

“아직도 제가 미련이 있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인하르트 경. 나는 경의 흔적을 모두 지워낼 수 만 있다면 나는 내 육신마저 경이 보는 앞에서 태워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제게 잔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도 잔인해서 화가 미칠 듯이 나는데도…! 헤세는 알고 있나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향한 감정을 접을 수가 없다는 걸….”

일부로 그의 앞에서 못할 짓을 잔인한 짓을 보이고 말았다. 완전한 미련을 잘라내기 위해. 제 자신의 무의식적인 미련도, 그의 끈질긴 미련도 전부 잘라내기 위해 악녀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는 바보처럼 더욱더 처절히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말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를 위한 것이니까. 그를 위해 제 마음을 죽이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 마저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라네아 왕비의 죽음으로 위스턴 국왕이 반쯤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한창 돌아다니고 있을 쯤, 사브레 왕국의 평화는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깨지고 말았다. 평소에도 국경너머 사브레 왕국의 심기를 은근히 건들이던 몬테올 왕국이 결국엔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여전히 전쟁에 관해선 수많은 말들이 많았지만 몬테올 왕국이 전쟁을 건 이유는 단 하나.

신생왕국의 강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만. 그들은 겁이 없었으며 더더욱 신생왕국에 걸맞은 영토를 넓히고자 행하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더불어 위스턴 국왕이 미쳐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시기가 맞아 떨어질 만큼 급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 왕실에선 처음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

영토를 넓히려는 신생왕국과 영토를 지키려는 오랜 왕국. 그리고 벌써 전쟁이 일어 난지 한주가 지나서야 사브레 왕국은 제대로 된 대응과 반격을 하고자 평화롭던 왕실의 분위기는 하루 종일 전쟁으로 떠들썩했다.

“왕태자 전하! 현재 국경의 땅이라 할 수 있는 단알 영토는 이미 몬테올 왕국의 침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알 영토를 되찾기 위해선 한시라도 급히 부대를 꾸려 몬테올 왕국의 병사들을 쳐내야 합니다!”

“하오나 왕태자 전하! 벌써 단알 영토가 몬테올 왕국의 침략으로 빼앗긴지 한주가 흘렀습니다! 단알 영토를 급히 찾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그곳 영지의 영지민들은 몬테올 병사들로 인해 절반이 사망하거나 인질이 된 것은 물론, 지금 당장 부대를 급히 꾸린다하여 그 땅을 단숨에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보시게! 그럼 넋 놓고 저들이 수도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만 있잔 말이오?!”

“넋 놓고 보자는 말이 아니지 않소! 충분히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들을 보급한 후, 땅을 되찾자는 이 말이 아닌가! 지금 당장 부대를 꾸려 쳐들어간다 해도 급히 꾸린 부대를 가지고, 몬테올 병사들을 전부 몰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겐가!?”

“말은 똑바로 하게! 아무리 사브레 왕국의 전체의 영토가 넓다 해도 단알 영토는 사브레 왕국의 국경의 땅이자! 몬테올 왕국뿐만이 아닌 타제국의 땅까지 인접한 국경의 땅이란 말이네!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간 타제국에게까지 땅을 내어 줄 셈인가!?”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귀족들이 의견을 대립을 넘어 싸움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서로의 의견이 맞다며 말싸움은 어느새 삿대질과 욕으로까지 변질하여 편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한숨을 쉬며 지켜보던 윌리스는 얼굴을 구기며 회장 전체에 고함을 질렀다.

“그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짜고자 그대들을 부른 것이지 싸움판을 열고자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일세!!”

다행이도 윌리엄의 고함은 큰 효과가 있었는지 아수라장이던 회의장은 모두의 정적으로 조용해졌다. 여전히 서로간의 눈싸움은 여전했지만, 입 싸움 보다는 낫기에 윌리스는 다시금 한숨을 뱉어내며 귀족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일단은 사태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병력을 모아 부대를 급히 꾸려야하는 것은 맞는 말이네. 그리고 지금 단알 영토가 그들의 손에 있는 이상,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은 단알 영토에 인질로 있을 백성들이네. 그러니 그대들의 의견들을 조합한 결과 나는 일단 인질이 된 백성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네.”

“하지만 전하! 그렇게 되면 병력 손실이─!”

“아직 큰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네. 비록 단알 영토가 그들에게 침략당하긴 했으나 아직까진 정면 전쟁은 아니란 말이네. 물론, 이보다 더 앞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있을지 모를 피 튀기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 비록 많은 부대를 꾸릴 순 없어도 최정예의 부대를 꾸려 최소한의 손실을 낮추고 인질이 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네. 백성들을 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의 수는 그때 생각해도 좋아. 어찌하겠는가? 내 의견에 불만 있는 자는 말해보게.”

그 누가 감히 고귀한 왕태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얼굴을 가진 귀족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토해내는 귀족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의견에 모든 귀족들이 동의한다 생각하며 일을 서둘러 움직였다.

제일먼저 한 일은 최정예의 부대를 꾸려 단알 영토에 보내어 몬테올 병사들의 인질이 된 자국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 하지만 최정예 부대임에도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의 부대로 꾸릴 수밖에 없었으며 정면 돌파 또한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때문에 뒤를 노려 최대한 몬테올 병사들을 공격하지 않는 쪽으로, 인질을 구하는 쪽에 힘을 실어 윌리스는 최정예 부대를 단알 지역에 보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몬테올 왕국 쪽에서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결국 전력 손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인질의 반의반을 구하게 됐으나 만만치 않은 몬테올 병사력으로 인해 무력하게 최정예 부대의 반을 잃을 수밖에 없던 윌리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전쟁의 완전한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몬테올 왕국은 더 많은 병사들을 보내 단알 영토를 지나 점점 수도 쪽으로 목을 조이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브레 왕국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전쟁을 이끌 위스턴 국왕의 부제. 아라네아 왕비의 죽음으로 위스턴 국왕이 반쯤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으나 그것을 온전히 믿는 귀족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윌리엄 왕태자의 주도아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귀족들도 서서히 위스턴 국왕의 소문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어, 몇몇 귀족들은 벌써부터 사브레 왕국이 끝내 몬테올 왕국에게 짓밟힐 거라는 좌절을 보이고 있었다.

“폐하! 언제까지나 폐인마냥 있으실 겁니까! 폐하께서 이러고 계실동안 적국이 점점 수도를 향해 목을 죄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간 나라까지 빼앗길 판이란 말입니다!! 지금 폐하대신 모든 국무를 대신하는 윌리스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폐하께서 아십니까?!”

왕국이 흔들리고 전쟁이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전혀 침실에서 꼼짝할 생각이 없는 위스턴 국왕의 모습에 기어이 몸을 먼저 움직인 건 카타리아 왕후였다. 어떡해서든 국왕을 움직이게 하고 싶었으나 폐인 마냥 술에 절어있는 모습에 왕후는 죽으면서까지 그를 이렇게 만든 아라네아 왕비가 한 없이 증오스러웠다.

“대체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붙잡고 계실 겁니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폐하께서 그토록 애정 하는 아라네아 왕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용! 조용! 닥치지 못할까! 왕후!! 지금 그대가 그 가증스러운 입이 아라네아의 이름을 어찌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 가증? 지금 제게 가증스럽다 하신 겁니까? 폐하께서 그런 말을 제게 할 자격은 되십니까? 제가 폐하께 언급한 단어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데 폐하께선 단 한 번도 반응조차 안하시더니, 기껏 반응한 것이 왕비의 이름 때문이라니! 폐하께선! 제게 그런 말 할 자격이 못되십니다!!”

“닥치라 했소! 왕후!!”

쨍그랑 소리를 내며 왕비를 빗나간 술병이 벽에 부딪쳐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 병이 깨지는 동시에 병에 들어있던 호박 빛의 알코올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실내를 감싸는 지독한 향이 왕후의 얼굴을 더욱 일그러트렸다. 하지만 지독한 향과는 다르게 왕후는 입술을 깨물며 죽어라 국왕을 노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설마 술잔도 아닌, 술병을 그대로 제게 던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 이제는 미쳐버려 제게 술병까지 던지는 국왕의 모습을 왕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좋습니다. 정 그리 나오신다면 평생을 그렇게 술과 함께 미친 왕처럼 사십시오. 허나! 당장 윌리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뭐라? 지금 내게 뭐라 했소? 왕위를 윌리스에게 넘겨주라 한 것이오? 그대가?”

“예.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술을 끼고 사시는 분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아라네아 왕비를 잊지 못하겠거든! 왕위를 윌리스에게 물려주시고 뒷방에 앉아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라네아 왕비를 그리며 술과 사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계속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고 있던 국왕은 헛바람을 들이키더니 조금씩 숨을 토해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내리치며 침실이 울리도록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복식호흡을 하며 쩌렁쩌렁 웃는 국왕의 모습에 인상을 더욱 구기던 왕후는 잠시 동안 국왕이 웃음소리를 멈추길 기다렸다. 하지만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멈추지 않는 국왕의 모습에 도무지 참을 수 없던 왕후는 그 웃음소리를 멈춰내고자 끼어들려 했다.

“폐─!”

“하하하! 왕후. 그러고 보니 그대는 참 권력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지.”

“...”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그대가 그 누구보다 권력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윌리스를 감싸고돌았는지. 왕후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그 속내를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지. 하물며 내가 병이 들거든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었건만, 잠시 동안 내가 정신을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본색을 드러낼 줄 누가 알았을까?”

“본색이라니요. 저는 당연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 정신이 온전치가 않으신데 지금당장 국정을 제대로 돌볼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윌리스 말고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나를 뒷방으로 밀어내고 그대는 더욱 권력을 잡고 윌리스에겐 왕위를 장악할 힘을 전부 내어 주겠다?”

미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웃던 국왕은 순식간에 정색을 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정신을 놓아버린 미친 국왕처럼 보일지 몰라도, 슬픔과 동시에 그는 여전히 제정신을 간간히 잡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대놓고 본색을 드러낼 줄 몰랐던 왕후의 모습에 국왕은 더 이상 질려버릴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밖에 있는 병사들은 당장 들어오라!!”

국왕의 목소리를 듣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침실 밖을 지키던 4명의 병사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왕후를 향해 손가락을 정확히 가리킨 국왕은 노기를 띤 음색으로 병사들에게 왕후에게 명을 내렸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왕후를 끌어내라! 그리고! 카타리아 왕후는 오늘부터 본인의 침실 바깥으로 내 명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연금할 것이며! 내가 내 스스로 윌리스에게 왕위를 양보하지 않는 이상! 그대는 절대로, 왕태후도 권력도 가질 수 없을 것이오. 알아들었소?”

“지금 저를 궁에 썩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뭣들 하느냐! 어서 왕후를 끌어내라는 대도!!”

“어찌 폐하께선 제게 이리 모질시단 말입니까! 폐하! 폐하!!”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침실 바깥으로 질질 끌려 나가는 왕후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위스턴 국왕은 곧바로 하녀들을 불러 침실을 치울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전속시녀들을 불러들인 국왕은 옷을 갈아입고서 현재 윌리스가 업무를 보고 있는 회의장으로 향했다.

전쟁으로 인해 출퇴근이란 개념이 거의 사라진 귀족들은 벌써 회의장에 오랫동안 밤을 새며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책략들을 쭉 펼치고 있었다. 모두가 피곤에 절은 얼굴을 하며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맞지 않는 대립을 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위스턴 국왕이 드디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폐, 폐하!!”

“폐하!”

어딘가 초췌하면서도 멀쩡히 모습을 드러낸 국왕의 모습에 귀족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허리를 숙이자 그 모습을 대충 쳐다보던 국왕은 윌리스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버… 아니 폐하.”

“그래. 윌리스. 네가 고생이 아주 많았구나. 허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동안 내 대신 일한 몫은 전부 내가 돌려받을 테니.”

살짝 압력을 가하듯 윌리스의 어깨를 굳세게 다독이던 국왕은 아들을 지나쳐 회의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앉아 귀족들과 윌리스를 대충 살펴본 후, 지금에서야 나타난 이유가 아닌, 전쟁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의 본론을 꺼내 놨다.

“지금부터 모든 국무는 내가 다시 진행할 터이니, 전쟁에 관한 일 역시 내가 이끌 것이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금, 모든 귀족들에게 고하도록 하지.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단알 영토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겠네.”

위스턴 국왕의 본격적인 전쟁의 선포로 사브레 왕국은 단알의 땅을 다시 되찾고자 했다. 여태까지 몸을 숙이고 있는 입장이었으나 윌리스 왕태자에서 위스턴 국왕의 강력한 진행으로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맞대는 전면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단알 영토와 인접해 있는 다른 영토들의 백성들은 혹시라도 전쟁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집밖으로 나가길 두려워했으며 그 여파가 커져 아예 전쟁을 피하고자 간단한 짐을 꾸려 수도로 몰려오려는 백성들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알 영토를 넘어서 몬테올 왕국이 점점 수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이젠 타국으로 나가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기본 전쟁이란 것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충분히 모아 그것을 잘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를 하는지가 관권이었다. 군수물자가 조달되지 않으면 전쟁을 이기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으며 아무리 최상의 병력이 있다 해도 군수물자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 최상의 병력이 있으나마나했다.

하지만 몬테올 왕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군수물자를 모아 자신들의 계획대로 전쟁이란 발을 들인 것이었으며 반대로 군수물자를 모을 시간도 없이 사브레 왕국은 위스턴 국왕의 명령아래 충분한 시간도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위스턴 국왕의 강압의 명령은 대다수의 온건파 귀족들의 반대와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비난의 의견은 대부분 똑같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전쟁의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누구보다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사브레 왕국이며 그 손해 역시 만만치 않으리란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위스턴 국왕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귀족들에게 되레 소리쳤다.

“허면 그대들은 몬테올 왕국이 수도까지 올라오는 것을 그저 방관만 하겠다 이 말인가? 적들이 바로 칼을 들이밀며 올라오고 있네! 이대로 손가락만 빨고 이젠 수도까지 내어주라 이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폐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면전을 펼치는 건 패배의 지름길이란 것을 어찌 모르신단 말입니까!”

“감히 짐을 가르치려 드는게요?! 닥치시오! 이제부터 내 말에 반기를 드는 귀족들이 있다면 그 즉시 회의장에서 내치도록 하겠소!”

“폐하!!”

누가 봐도 위스턴 국왕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떼쓰는 억지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국왕의 모습에 끝내 반기를 드는 귀족들은 아무도 없었으나 그 침묵 속에 모두의 눈짓은 전부 똑같았다. 위스턴 국왕이 총기를 잃어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섞인 그들의 눈짓.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위스턴 국왕은 왕실의 병력은 물론, 고위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들까지 끌어 모았으며 그대로 작전과 함께 사브레 왕국의 병사들은 수도로 치고 올라오려는 적국의 병사들을 향해 전진했다.

아라네아 왕비의 죽음으로 주인 없는 궁전이 된 제2궁 아비카 궁전. 궁전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시녀와 하녀를 빼곤 나머지 사람들은 왕후의 궁전으로 소속되거나 또는 케시아 궁전의 소속이 되어 왕비의 시녀와 하녀들은 대다수 흩어진지 오래였다.

그리고 왕후의 궁전이라 할 수 있는 제1궁 라비아 궁전. 오늘도 요란스레 히스테릭을 부리는 왕후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하녀들과 시녀들은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하는 불안함에 늘 조심조심 행동해야만 했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피 말라 죽겠어.”

“쉿 조용히 해. 그러다가 왕후폐하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벌써 일주일 째 저러시니까 더 겁이 난다 이거지. 아라네아 왕비전하가 살아계실 때가 제일 편했다고.”

현재 아주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녀들은 이번에 카타리아 왕후의 궁전으로 소속된 아라네아 왕비의 시녀들이었다. 그녀들이 모시는 주인이 없는 지금, 이제 그녀들의 주인은 엄연히 카타리아 왕후. 매번 이 상황이 익숙한 기존 소속의 시녀들은 익숙하듯 평범하면서도 조심히 복도를 돌아다녔지만, 오랫동안 아라네아 왕비의 수족이었던 시녀들은 살벌한 왕후의 궁전이 도통 적응되지가 않았다.

“그래도 침실에 감금되신 첫째 날보다 덜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휴, 그때만 생각하면….”

“그러게 그날은 정말로 살얼음판이었으니까. 아, 맞다! 그보다 너 피오라 소식 알아?”

“피오라?”

발소리 하나 없이 복도를 걷던 두 시녀가 제자리에 멈춰 서로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왜 피오라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부턴가 같은 동기인 피오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아니. 그러고 보니 피오라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

“너도 몰라? 난 너라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안 문제로 잠시 내려가기라도 한 건가?”

“집안 문제 때문이겠지. 뭘 크게 걱정할게 있겠어? 그리고 걔는 돈독이 오를 때로 오른 애라 웬만하면 시녀일 관둘 애도 아니야. 시녀 월급이 짜네 뭐네 하지만 시녀만큼이나 월급 더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

“하긴… 그래도 이런 때에 하필 전쟁 중인데 신경이 조금 쓰인달까…?”

그 신경이란 것이 아주 미세할 뿐, 아라네아 왕비의 소속이던 모든 시녀들은 피오라의 인성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그 관심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바깥 상황이 소란스러움에도 케시아의 궁전은 전쟁과 무관한 세상처럼 조용하며 향긋한 꽃 향의 차향이 궁전 안을 감싸 돌았다. 루네즈가 따라주는 유채꽃색의 샛노란 찻물이 듬뿍 찻잔에 담긴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케시아는 루네즈가 동작을 멈춰서야 여유롭게 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킬 수 있었다.

차 한 잔의 여유로움. 지금 딱 케시아의 모습이 그러했다. 한 모금을 들이키고서 아랫입술을 핥아내던 케시아는 근처에 있던 루네즈에게 향해 입을 뗐다.

“그래. 처리는 잘 했겠지?”

“물론입니다. 왕녀전하. 왕녀전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녀에 관한 처리는 완벽히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돈이란 건 이토록 참 편할 수가 없어. 돈만 주면 무엇이든 가능하니까. 소문을 퍼트리는 것도, 현혹시키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없애는 것도.”

다시금 우하하게 찻잔을 들어 찻물을 다시 상큼이 한 모금 들이킨 케시아는 만족의 미소를 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죽은 아라네아 왕비의 시녀이자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에게 이익이란 이익은 전부 가져다준 고마운 시녀 피오라. 그러나 한번 검은 돈을 만진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란 것을 모른 채, 피오라는 덥석 받아들였고 결국 돈에 의해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다.

이렇게 뇌물로 현혹하여 왕성에서 감촉같이 사라진 하녀나 시녀들이 과연 몇이던가? 아마 수백 년 전부터 당연하듯이 그래왔기에 피오라란 시녀 한명쯤 없어진다 해도 특별히 눈치 채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설사 눈치 챈다 해도 제 목숨이 아까워 누가 사실을 밝히고자 할까? 케시아는 상처하나 없는 매끄러운 손을 들어 올려 이번엔 달콤한 쿠키를 집고자 이제 막 손끝을 움직이려 할 때였다.

똑똑똑.

쿠기에 손끝이 완전히 닿기도 전에 실내를 울리는 노크소리에 케시아의 미간은 살짝 좁혀지고 말았다.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또 다른 시녀의 목소리에 미간이 좁혀있던 케시아의 얼굴은 금방 화색이 돌았다.

"왕녀전하. 라인하르트 경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세상에!”

루드비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케시아는 이미 쿠키의 존재를 잊어 버린지 오래였다. 다급히 제자리에서 일어나 루드비카를 맞이하고자 시녀에게 문을 열라 할 것도 없이 직접 문 앞으로 다가간 케시아는 다급한 손짓으로 스스로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루드비카!”

“인사 올리겠습니다. 왕녀전하.”

“인사라니! 그럴 필요는 없지요! 어서 들어와요 루드비카!”

언뜻 왕녀답지 않은 방정맞음이 케시아에게 비쳐졌으나 루네즈도 다른 시녀들도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정맞음은 물론 자신을 불러낸 케시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던 루드비카는 그럼에도 왕녀의 명령으로 인해 그것을 인내하고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케시아가 이젠 루드비카가 앉을 의자를 직접 끌어줄 정도로 나서려 하자, 루드비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앉을 생각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었다.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훈련 도중에 빠져나온지라 저와 같이 훈련 중이던 기사들에겐 민폐일 것 같습니다. 왕녀전하.”

단호히 선을 긋는 루드비카의 매정한 말이 얼음가시가 되어 케시아의 숨을 멎게 했다. 그럼에도 케시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은 어색히, 생긋 웃으며 미소를 지우지 않고자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요, 용무라면 있어요. 너무 길게 잡지는 않을 테니 자리에 앉도록 해요. 루드비카.”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말씀해주시길 바라지요.”

다행이도 짧은 시간은 내어주겠다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 케시아는 서둘러 맞은 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다시 갓 만든 쿠키와 새로운 차를 내올 것을 루네즈에게 전달했고, 어느덧 실내에는 루드비카와 케시아,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똑딱― 똑딱― 하는 시계초침 소리가 느릿하면서도 그것이 무척 빠르게 느껴져 케시아는 어떤 말로 루드비카를 계속 자리에 있게 만들지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케시아의 생각을 대충 짐작한 루드비카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왕녀로선 듣기가 조금 거북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꺼냈다.

“전하께선 생각보다 여유로우시군요.”

“여유롭다니… 루드비카, 그게 무슨….”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왕녀전하께선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하께선 언제 몬테올 왕국에 무너질지 모를 사브레 왕국이 걱정되지 않으신 겁니까?”

그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케시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루드비카가 일부로 꺼낸 것이라 생각했다. 선을 긋기 위해? 아님, 자신과 할 얘기가 없어서? 그것도 아님, 이런 무거운 주제를 꺼내어 자신이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고자?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든 케시아는 루드비카의 얼굴만 보아도 그의 눈빛만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그저 자신을 비추고만 있을 뿐, 그 눈동자 속에 담아내지 않고 있음을.

그래서 일까.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도 않았다. 어떻게 손에 넣은 사내이던가. 케시아의 집착은 여전히 루드비카를 향해 끈덕지게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유라니…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서운하군요. 하지만 루드비카. 저 역시 사브레 왕국의 제1왕녀. 어찌 왕국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겁에 질려 불안에 떨기보다 강하게 마음먹어 당당하고도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귀족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안심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그보다 루드비카. 사실 이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답니다. 우리 약혼에 관해서 말인데….”

매일 같이 왕성에서 지겹게 듣는 전쟁 이야기 따위, 케시아에겐 아무래도 좋았다. 제 아무리 몬테올 왕국이 병력으로 밀어붙여 수도까지 올라온다 해도 지금 당장 케시아에겐 적국의 침략보다 눈앞에 있는 루드비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약혼이 아닌 당장 혼인식을 치루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을 할 생각으로 약혼이야기를 꺼내려했지만, 말의 매듭이 끝나기 전에 루드비카가 가로 챈 목소리가 케시아의 두 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보다 제가 먼저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녀전하 저는 이번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에 왕국의 일원으로서 기사로서 전쟁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루드비카가 케시아의 부름을 받기 전, 호위기사로서의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동기 기사들과 함께 훈련 중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한 지금 수도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왕성 역시 4대 근무교대를 할 정도로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였다.

점심 훈련이 끝나고 나서 아주 잠깐의 휴식을 가지게 된 루드비카는 우연히 여러 상단 주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는 오랜 친우 로렌드를 만날 수 있었다.

“요즘 도통 얼굴을 안 비춘다 했더니 기사 나부랭이가 된 거였군.”

“오랜만이야, 로렌드. 어때? 나하고 제복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여?”

“퍽이나 어울리겠다. 네놈은 그런 딱딱한 제복보다 화려한 연미복 따위가 너랑 잘 맞아. 알아?”

여러 상단주들을 먼저 보낸 로렌드는 여전히 까칠한 어투로 루드비카를 쪼아대기 바빴다. 그러나 평소라면 반박하거나 맞장구쳤을 루드비카이건만 어째서인지 친우의 반응은 미지근한 우유마냥 찝찝하기 그지없었다.

“그래? 그러고 보니 한창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역시 나랑 제복은 잘 안 어울리는 가봐. 그래서… 그녀도 나를 외면한 건가….”

“너...”

루드비카의 얼굴을 본지도 꽤 되었지만 로렌드는 지금 당장 눈앞의 친우의 얼굴을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먹구름은커녕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얼굴. 그토록 밝던 인상은 또 어디로 가버렸는지 화려하던 장미는 져버리고 겨울의 추위에 이기지 못한 시들어버린 장미꽃 많이 로렌드의 두 눈에 비치고 있었다. 거기다 마지막 말을 곱씹어 보건데 분명, 헤르세인 왕녀와 루드비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마음 같아선 당장에라도 어디론가 끌고 가 무슨 일이냐고 추궁하고 싶었으나 현재 로렌드에겐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었다.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시끄러웠고 상단을 꾸리는 상인에게 있어 전쟁이란 것은 더더욱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안 그래도 타국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물품으로 먹고 사는 입장인데 전쟁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상황이니 사브레 왕국에 있는 모든 상인들에겐 돈줄이 끊기는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살길을 찾는 다면 반드시 나온다고, 국왕의 수십 개의 전갈로 사브레 왕국의 각지에 있는 상단주들이 이렇게 모여 국왕을 아뢰고자 찾아온 참이었다.

루드비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은 상단 일이 더 우선이기에 로렌드는 자리를 뜨기 전, 루드비카에게 한 마디 남겼다.

“오늘 저녁, 내 저택으로 찾아와. 간만에 술 상대라도 해줄 테니까.”

말을 잇지 못한 케시아 왕녀를 내버려 둔 채, 퇴근 대신 외출증을 끊은 루드비카는 바로 로렌드의 저택을 찾아갔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병사들은 물론 모든 기사들조차 제대로 된 퇴근을 할 수 없었다. 아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퇴근 따윈 계속 꿈도 꾸지 못할 단어이기도 했다. 길게 잡아 3시간 정도의 외출증을 간신히 끊을 수 있던 루드비카는 어느덧 바로 눈앞에 호박 빛의 알코올을 따라내는 로렌드를 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 잘 마실게. 하지만 이 한잔만 마시도록 할게. 바로 왕성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뭐야, 아예 나온 거 아니었어?”

“전쟁 중인 상황이잖아. 우리같이 검 쓰는 자는 언제든지 왕성에서 대기해야지.”

얼음이 담겨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호박 빛의 투명한 액체가 루드비카의 두 눈에 비치고 있었다. 금방 가득 차여진 술잔을 보던 루드비카는 단숨에 위스키를 들이켰다. 보통이면 저 독한 술을 단숨에 넘기기가 어려울 텐데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루드비카를 본 로렌드의 표정은 썩 좋지 못했다.

“마음 같아선 더 주고 싶다만 네 하는 꼴을 보니, 더 주다간 술주정이라도 할 것 같아서 더 주기가 겁난다. 오히려 잘 됐네. 술주정하는 꼴을 안 봐서.”

원래라면 한 모금씩 마셔 밑에서 확 퍼지는 술기운을 느끼며 그 맛을 즐기는 독한 술 일터. 때문에 로렌드는 루드비카가 혹시 술주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 나름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잔은 안 된다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안타깝지만 로렌드는 그만 위스키 병을 치워야 했다.

“그래, 술은 그렇다 쳐도 얘기는 들어봐야지. 네 꼴이 왜 그런지.”

“난 네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루드비카의 두 눈이 로렌드를 향하자 두 눈을 마주친 로렌드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내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나도 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귀족들의 오고가는 이야기를 일일이 듣겠어?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너에 관한 소문은 어느 정도 나돌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 그럼 한번 물어나 보자. 그게 사실이야? 그 분이 아닌, 네가 케시아 왕녀와 약혼을 하게 된다는 게?”

그때,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져 있던 루드비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구겨졌음을 로렌드는 놓치지 않았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으나 그 정도로 얼굴을 구길 정도면 본인이 원한 일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애초에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일이니까.”

“그 여자라니… 일국의 왕녀에게 아무리 싫어도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 그것도 지체 높은 귀족가의 도련님인 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너 밖에 없을 거다.”

“사실이니까. 그 여자로 인해, 나와 헤세의 사이가 멀어졌으니까. 그리고… 헤세는 완전히 날 보려 하지 않아.”

이마에 손을 받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이토록 이질적일 수 없었다. 한때는 사랑이란 것을 몰랐던,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신의 친우. 그런데 그 감정이란 것이 그토록 지독했는지 현재의 루드비카와 과거의 루드비카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그래서 일까? 로렌드는 지금의 루드비카의 모습이 아닌, 비록 제멋대로일지 몰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방랑이 살던 그 시절의 루드비카가 은근 그리웠다.

더불어 루드비카가 누구이던가? 웬만하면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거의 쓰지 않던 루드비카였다. 그런데 케시아 왕녀를 ‘그 여자’로 지칭하는 루드비카를 보니 얼마나 상황이 뒤엉키고 루드비카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음을 두 눈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루드비카. 하나만 물어보자.”

“…응.”

“그 분을…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네가 스스로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거냐? 너도 네 현재 상황에 깨닫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너랑 그분은 결코 이뤄지기가 힘들 거란 걸.”

로렌드는 운명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 또한 언제나 제 자신은 계산적인 사람이기에 더더욱 운명 따위 믿을 리 만무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인연만큼은 로렌드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모순적이면서도 모순적이지 않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 세상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보는 로렌드에게 있어, 루드비카와 헤르세인 왕녀의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없어 보였다.

죽은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이자 슬럼가 출신의 제2왕녀. 그에 반면 라인하르트 란 거대한 가문을 등에 업고 있는 라인하르트 공작의 둘째 아들. 애초에 듣기만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인연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꼬아지고 꼬아져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깊게 사랑했으나 주변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만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 찢어짐은 현재의 상황.

찢어진 종이가 다시 깨끗이 붙을 수 없듯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루드비카, 혹은 케시아 왕녀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로렌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루드비카의 작은 음색이 로렌드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안쓰러워 보일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루드비카는 어느새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로렌드를 향해 대답했다.

“난 포기하지 않아. 로렌드. 그녀가 먼저 내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난 아직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 난 절대로 그 손을… 그녀를 놓지 않아.”

“...”

어느 정도 그러지 않을까하는 짐작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한 여인을 향한 집념과 집착이 오히려 루드비카 스스로를 망가트릴까봐 로렌드는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루드비카의 두 눈 속에 자신이 아닌, 오롯이 한 여인만이 담겨 있는 눈동자. 세상의 모든 풍경이 그 태양 같은 눈동자에 비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태양의 불꽃처럼 여전히 활활 타올라 한 사람만을 담아내고자 했다.

“로렌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부탁?”

그때, 갑작스레 부탁을 건네는 루드비카의 정중한 목소리에 로렌드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매번 루드비카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잦아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정중한 목소리로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똑바른 눈을 하며 저를 보고 있는 친우의 모습에 로렌드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걱정 마, 네가 생각하는 무리한 부탁은 아니니까. 단지….”

“…단지?”

어쩐지 이상하게 말을 끄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로렌드는 더욱 미간을 좁혔다. 그리고 몇 번이나 손을 움찔 이던 루드비카는 이내 결심했는지 제복 속에 고이 넣어둔 하얀 봉투를 꺼내어 로렌드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 하얀 봉투를 내미는 그 순간까지 루드비카는 아주 힘겹게 입술을 떨며 움직였다.

“단지… 내가 혹시라도 전해주지 못할까봐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너 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전해주지 못할까봐 라니?”

로렌드는 분위기를 읽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 오랜 상인 생활과 귀족들을 상대하다보니 타인의 분위기를 읽는 건 로렌드에게 쉬운 일이었다. 특히나 거래처나 귀족들을 상대로 거래가 불발되는 일일수록 더더욱. 그리고 로렌드는 지금, 그 분위기가 이와 비슷함을 똑같이 느꼈다.

“로렌드. 나는 이번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어.”

“...뭐?”

“아니, 그 누가 말릴지라도 난 전쟁에 참여할 거야. 이제 내게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니까. 다시 내가 헤세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너… 미쳤구나. 단단히 미쳐버렸어.”

벙쪄 있던 로렌드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구겨져 루드비카를 노려보았다.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를 떠나, 로렌드는 전쟁에 참여하려는 루드비카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너. 지금 네 입으로 말한 그 말들 가문에선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이제 말하려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루드비카. 너 알고는 있겠지? 네가 굳이 전쟁에 참여할 의무 따윈 없음을.”

“그래, 알고 있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먼저 시급한 것이 군수물자라지만 군수물자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바로 병력이었다. 병력이 적으면 전쟁에서 지는 건 당연했고 특히나 소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먼저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백성들의 대상인 강제징병이었다. 어린 소년,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는 전쟁에서지지 않기 위해, 또는 그들을 방패막이라도 내세워 제 목숨을 살기 위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야 할 왕이란 이름을 짊어진 이가 심사숙고를 내려 결정해야할 커다란 갈림길의 선택.

또한 왕 뿐만이 아닌, 가문의 혈통을 위해, 대를 오래도록 잇기 위해, 오래된 고위 귀족일수록 제 자식을 나라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고위 귀족들은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고위 귀족들 중에 제 발로 나서, 승리를 위해 싸우려는 귀족은 더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루드비카 역시 고위 귀족 중의 라인하르트 후작의 둘째 아들.

비록 가문의 후계자는 그의 형으로 내정된 사실이긴 하나, 어찌되었든 루드비카는 라인하르트 가의 피가 이어진 고아한 귀족이었다. 그런데 편히 있을 선택지를 놔두고 제 발로 피투성이인 전쟁터에 나서겠다니? 그야말로 제 무덤을 찾으러 가는 것이 다름없지 않던가.

하지만 로렌드는 두 손에 핏줄이 터지듯 주먹이 꽉 쥐어져 있음에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 정말로 그리고 처음으로 제 친우가 이토록 바보천치 같아 보일 수가 없었다.

“승리해서, 전쟁에서 당당히 이겨 국왕께 소원이라도 빌 생각이야? 약혼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다시 헤르세인 왕녀전하와의 인연을 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미친 선택을 한 거야?”

그러나 루드비카는 끝내 로렌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다. 오직 하얀 봉투와 함께 간절한 부탁만을 전달할 뿐.

“부탁할게 로렌드,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루드비카. 내가 늘 반 장난 식으로 너에게 바보 같거나 멍청하단 투로 널 비꼬긴 했지만, 처음으로 욕지거리가 나온다. 한심해 보일정도야. 네가 왜…,네가 대체 그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대체 헤르세인 왕녀란 존재가! 너에게 뭐 길래 네가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건데! 너 미쳤어?! 제 정신이야?!”

“부탁할게 로렌드.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너 밖에 없어.”

“닥쳐! 이 새끼야!! 넌 친우고 뭐고 뭣도 아닌 새끼야!!”

이토록 격렬한 분노가 차오른 적이 없었다.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로렌드는 여전히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루드비카를 향해 이를 갈았다.

“네 면상에 주먹 날라 가기 전에 당장 꺼져. 그리고 난 네 부탁 따위 들어주지 않겠어. 왜냐고? 오늘부로 넌 내 친우가 아니니까. 제 목숨 아까운줄 모르고 유언마냥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놈을 난 친우로 둔 적 따위 없어.”

“로렌드….”

완전히 루드비카에 등을 돌린 로렌드는 친우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결국 로렌드의 등을 돌릴 수 없던 루드비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걸음으로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고서 완전히 문을 열기 전, 루드비카는 미안함과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이기심이 섞인 부탁을 남긴 채로 로렌드의 저택을 떠나야 했다.

“미안 로렌드.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이기적인 친우로서 부탁해야만 해. 너만이 내 부탁을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끼이익, 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 동안 등을 보인 채로 제자리에 꿈쩍하지 않던 로렌드는 서서히 뒤를 돌아 탁자 위에 남겨진 하얀 봉투를 마주 해야만 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뒤집어 보자, 봉투의 한쪽 끝에는 역시나 가장 익숙한 이름이 로렌드의 두 눈에 비쳤다. 현재의 마음을 전부 이름에 새겨놓은 듯 휘갈겨 쓴 글씨체. 그 글씨 속에, 그 이름 속에 루드비카의 애틋함이 담겨져 있었다.

『헤르세인 에게.』

전쟁이 일어난 직후, 루드비카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다. 적국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그의 생각은 온통 한 사람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상황임에도 주변에선 언제 케시아 왕녀와 약혼식을 올릴 거냐는 거북스러운 말 뿐이었으며, 마치 전쟁이 곧 끝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은 오지랖을 보이며 전쟁이 끝난 후, 약혼식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괜한 궁금증을 보일 따름이었다.

그렇게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울 쯤, 루드비카는 지나가던 동료기사들이 나누는 말을 우연히 엿들을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정말이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국왕폐하께서 포상을 준다는 게?”

“아마 더 큰 성과를 낸다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확실한건 아니지만 선배 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 사브레 왕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가장 큰 성과를 낸 기사들 중에 성대한 포상은 물론이고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정도 들어준다고. 역사적 기록에도 한창 전쟁이 일어나던 시절 큰 성과를 낸 기사들이 많아서 단숨에 그 계기로 신분상승 했다는 기사들도 있었다, 하더라고.”

그 날 이후로 루드비카는 동료기사가 얘기했던 그 말들을 곱씹으며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며 만약 좋게 전쟁이 끝난다면 자신은 여전히 케시아 왕녀가 원하는 대로 약혼을 올려야 할지도 몰랐다. 죽기보다도 더욱 싫은 케시아 왕녀와의 약혼. 더 이상 고민할 틈이 없었다.

설령 제 목숨이 그 전장 속에 잃을지라도 루드비카는 그 전쟁 속에서 어떡해서든 살아남아 헤르세인 곁에 남고 싶었다.

“못들은 말로 하마.”

“보내주십시오, 후작각하. 저는 꼭 이번 전쟁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아비보고 언제 죽을지 모를 전쟁판에 아들인 너를 내던지라 이 말이냐? 기각하마.”

쾅, 소리를 내며 탁자를 싸늘히 내려친 후작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요즘 들어 꽤나 조용하나 싶었더니 또다시 제멋대로 나가려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마음에 들턱이 없었다. 특히나 지금 루드비카의 입에선 나온 말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부탁이 아니던가? 제 아무리 루드비카에게 못난 아비일지 몰라도 후작은 피가 튀기고 언제 죽을지 모를 전쟁이란 울타리 안에 제 아들을 집어던질 냉혈인까지는 아니었다.

더불어 루드비카가 정식으로 기사가 된지도 꽤 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었다. 천재라 불릴 만큼 단기간에 기사 작위를 땄어도 후작의 눈엔 아직 이제 막 검을 잡은 어린 기사에 불과했다.

“전쟁터란 네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 한번 그 이유나 들어보자는 눈빛으로 후작이 루드비카를 쏘아보자 차분히 눈을 내리깔고 있던 루드비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간단히 대답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소원?”

“예, 사브레 왕국의 오랜 역사서에서 전쟁이 발발하던 옛 시절, 역대 모든 선대왕들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기사들에게 특히나 큰 성과를 보인 기사에게 가장 큰 배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라 말하더군요.”

“그럼 그 소원이란 것을 위해 죽을 지도 모를 전쟁터에 굳이 참여하겠다는 이 말이냐?”

“예.”

후작은 어이가 없었는지 싸늘해진 눈짓은 물론이고, 얼굴을 반쯤 구겨 저보다 여전히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루드비카에게 또 다시 한번 물었다.

“허면, 그 소원은 내가 이뤄줄 수 없는 것이냐?”

어떤 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굳이 국왕에게 빌어보려는 루드비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나 자신이 줄 수 없는 ‘작위’를 원하는 것인가 싶어 후작은 최대한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다른, 그리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다.

“각하께선 제게 절대로 이뤄 줄 수 없는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각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누구보다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폐하께 말할 것입니다. 케시아 왕녀와의 약혼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뿐. 헤르세인 왕녀전하와의 혼인을 치룰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자 각하께선 제게 이뤄 줄 수 없는 소원입니다.”

“루드비카!!”

그때, 쾅! 소리를 내며 이윽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후작은 어금니가 깨지도록 이를 악물며 분노로 눈이 뒤집히기 일보직전이었다. 언제부턴가 루드비카가 얌전하다 싶어 이상했더니, 결국 이런 걸 위해서였다니. 워낙 조용하 길래 이제는 헤르세인 왕녀에 대한 감정을 포기하거나 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잊기는커녕 혼인이라니. 그깟 왕녀가 대체 무엇이기에 제 아들은 이리도 그녀를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아직도… 아직도! 헤르세인 왕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냐!? 아직도!?”

“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는 그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후작이었으나, 이내 후작은 허탈한 숨을 토해내며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제 아무리 뜯어 말려도, 가두거나 혹은 소리쳐도 루드비카는 단 한 순간도 제 말을 곧 대로 따른 적이 없었다. 도대체 저 고집스러운 성격은 누굴 닮은 것인가? 그러나 한순간에 스친 붉은 머리칼의 여인이 떠오르자 후작은 끝내 아픈 눈을 가리듯 손으로 눈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렇게도… 네가 네 목숨을 내 놓을 만큼 헤르세인 왕녀를 놓을 수 없는 것이냐? 루드비카.”

“예, 그분… 아니, 그녀는 이제 제 세상의 전부니까요.”

그 말은 즉, 헤르세인 왕녀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빈껍데기의 삶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후작은 한참 동안 눈을 가린 채, 최대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뒤엉켜버린 실 뭉치 마냥 꼬인 실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되레 더 꼬아지는 실 때문에 후작은 제대로 된 정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금 기억 속을 스치는 붉은 머리칼의 여인, 로자르나.

후작은 천천히 눈을 가리고 있던 손을 내려, 언제부턴가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에서 로자르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없이 순수했으며 당당했고, 그 어떤 장미꽃 보다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던 여인. 후작은 쓰게 숨을 들이키며 이내 루드비카의 눈을 외면하고 말았다.

“처음으로 후회가 드는구나.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

“이제 네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이 저택에서 나가는 순간, 너는 오늘부로 우리 가문의 일원이 아닐뿐더러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가문 내에서도 혹은 귀족들조차 놀랄 후작은 선언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으나, 그럼에도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짓던 루드비카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후작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루드비카의 걸음엔 망설임 따윈 없었다. 오로지 앞만을 보며 쭉 나아간 루드비카의 모습이 끝내 아비로서 원망스러웠던 후작은 주먹을 그러쥐곤 아무도 없는 집무실 속에 작은 목소리로 제 아들을 애증어린 목소리로 비난한 것이 고작이었다.

“못난 놈….”

벌써 라즐리 남매가 헤르세인의 궁전에 묶게 된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자주 진찰해주는 의사 덕분인지 두 남매의 얼굴 혈색은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라즐리의 남동생인 라피스의 상태는 좀 더 두고봐야하기에 헤르세인은 두 사람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빈센트를 통해 치료물품을 조달하며 라즐리와 함께 라피스의 상태를 보살피고 있었다.

“저, 왕녀전하. 차 좀 내어 올까요?”

“아니, 됐어. 그닥 목마르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하녀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었는지 굳이 나설 일이 아님에도 라즐리는 헤르세인이 왕녀란 위치를 상기하며 어떡해서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안 그래도 큰 은혜를 입은 몸. 라피스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닌, 얌전히 도움만 받는 것은 라즐리에겐 성미가 차지 않았다. 그리하여 간신히 헤르세인에게 빌고 또 빌어 왕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라즐리는 이번에 왕성의 수습하녀로서 정식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

물론, 완전한 큰 도움을 준 것은 빈센트 덕이었지만 어찌되었건 큰 은인인건 다름없었다. 그녀가 발견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치료를 받고 거기다 왕성에서 하녀로서 일할 수 있을까? 때문에 라즐리는 시간이 남는 틈 마다 헤르세인과 빈센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열심히 두 사람을 위해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전속시녀와 하녀 여럿이 있는 빈센트와 달리, 전혀 누군가의 도움을 원치 않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라즐리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함께 생활할수록 그녀를 지켜볼수록 왜 그녀가 이토록 차갑게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언제나 인형처럼 변함없는 무표정. 그러나 아주 딱 한 번. 석양이 지는 어느 날,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죽이려는 표정. 그 표정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 드리워진 상처와 그리움이 얼마나 애틋한지 잠깐 봤을 뿐인데도, 라즐리는 제 자신이 무척 슬픈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일까? 그녀의 그 표정을 본 뒤로 라즐리는 더욱 헤르세인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오지랖일지 몰라도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를 알아내어 해결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은 일개의 하녀. 어디까지나 뒤에서 자잘한 도움 밖에 될 수 없는 위치였으며 그녀 자신이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라즐리에겐 은인이자 가장 고귀해 보이는 존재였다. 때문에 지금은 잡일을 하거나 청소가 전부라지만 언젠가는 그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가능하면 이뤄내고 싶었다.

“저어, 왕녀전하. 혹시 시장하시면 제가 식당에 주전부리라도….”

그때, 똑똑 하는 노크소리가 들리더니 라즐리의 귀를 단숨에 녹일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렸다. 하지만 노크소리와 목소리가 분명히 들림에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페이지 한번 넘기지 않은 책만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헤르세인은 미동조차 없이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왕녀전하, 저 입니다.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노크소리. 몇 번이고 사내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찾았으나, 정작 헤르세인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시선은 여전히 책에 멈춰 있을 따름이었다.

똑똑똑.

몇 번이고 두드리는 노크소리. 안쪽의 목소리나, 소리가 바깥에 들릴 리가 없음에도 마치, 바깥의 사내에겐 안쪽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왔음을 쉴틈 없이 어필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라즐리는 헤르세인을 눈치를 조심스럽게 보다가 상대를 확인하고자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그것을 알아챘는지 헤르세인의 손이 라즐리의 손목을 붙잡아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하지 마. 반응도 하지 말고. 우린 여기에 없는 거야.”

왜인지 모르겠지만 라즐리는 직감했다. 지금 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분명, 그녀에게 중요한 인물일거라는 직감. 단단히 제 손목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느껴질수록 메말라 버린 인형마냥 빛을 잃은 눈동자는 어느새 부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굳게 닫혀 있는 문을 향해, 또 그가 서 있을 장소를 머릿속에 그리며 헤르세인은 느릿한 걸음으로 문 앞까지 바짝 다가 설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장소에 자신이 있음을 확신하는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문을 넘어 흘러 들어왔다.

"헤세... 거기 있나요?"

“...”

"있어주길 바랄게요. 이 문을 열고 싶지 않거든,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거든 아무래도 좋아요. 그저 제 얘기만 들어줬으면 하니까…."

헤르세인은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 대신 시야를 가로 막은 단단한 하얀 문을 바라보았다. 조심스럽게 옷깃이 스치는 소리조차 혹시라도 그에게 들릴까봐 헤르세인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손을 들어올렸다. 지금 이 곳에 라즐리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본다 해도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은 허전한 오른손을 움직여 헤르세인은 눈을 감고 루드비카의 모습을 그리듯 문 표면에 손을 얹어 흔들리는 숨을 들이켰다.

"헤세… 헤세도 지금 사브레 왕국이 전쟁 중인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날이 지날수록 왕성은 점점 뒤숭숭해지고 모두가 전쟁에 불안해하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한 나라의 안위가 걸린 일이니까요."

“...”

"하지만 그거 알고 있나요? 나라의 안위가 어찌되든 제겐 상관없는 일임을. 오직 제겐 나라의 안위보다 전쟁보다 헤세… 당신 생각 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 헤르세인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버렸는지 저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음을 스스로조차 느끼지 못했다.

"헤세. 오직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이기에, 당신이 없는 세상은 꿈조차 꿀 수 없기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을 위해, 당신의 곁에 갈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로."

“!!”

전쟁이라니?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떠야만 했다. 여전히 눈앞을 가로 막고 있는 하얀 문. 그러나 헤르세인은 그 하얀 문을 열 수 없었다.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여 이 말을 하기까지 용기를 냈는지, 바로 앞에 루드비카가 있음에도 그 문을 열어 확인할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선왕들이 대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큰 성과를 낸 기사에게 한 가지 소원를 준다고 들었지요. 현 국왕폐하께서도 그 소원을 과연… 정말로 들어주실지 모르겠으나 역대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거 하나 믿고 저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헤세… 전쟁에 참여할 만큼 제가 국왕폐하께 빌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 아나요?"

목 끝까지 목소리가 차올랐다. 어서 대답하라고. 그 소원이 무엇인지, 왜 죽을지도 모를 그 전쟁에 참여하는지 물어보라고, 머릿속이 마음이 외쳤지만 두 손에 주먹을 쥐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무는 것이 고작일 뿐, 헤르세인은 끝내 그에게 닿지 않을 고개를 젓는 것이 고작이었다.

"제가 국왕폐하께 가장 빌고 싶은 소원은… 당신의 곁에 있는 것. 다시 당신의 연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혼인을 올려 평생을 당신 옆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헤세…."

두 번 다시 눈물 따위 흘리지 않기로 결심했거늘. 마음도 흔들리지 말고, 감정이란 감정은 모두 죽이고 죽여 인형처럼 죽은 듯이 살기로 마음먹었지만 끝내 그 결심이 흔들리고 말았다. 아니, 그의 절절한 결심이 그의 애틋하고도 애절한 소원이 헤르세인의 마음을 무너트리고 만 것이다.

"오늘 새벽, 폐하께서 꾸리신 부대와 함께 단알로 저는 떠납니다. 헤세… 아니, 헤르세인 왕녀전하. 부디 제가 무사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사히 당신의 곁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그때까지 무탈하시기를…."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헤르세인의 손은 이미 하얀 문을 열 문고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러나 루드비카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끝내 헤르세인은 그 문을 열지 못했다.

털썩, 하고 주저앉는 헤르세인의 모습을 라즐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언제나 감정 없는 인형처럼 웃거나 혹은 울거나 하는 모습을 라즐리는 본적이 없었다. 비록 그녀의 곁에 있게 된지 짧은 기간이긴 했어도 그녀가 이토록 감정 없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장 처절한 모습.

소리 내어 울라고, 그 가녀린 등을 다독이고 싶을 만큼 헤르세인은 등을 들썩인 채, 소리를 죽여 눈물을 쏟아냈다.

“…전하. 왜 쫓아가지 않으신 건가요?”

그녀의 감정이 자신까지 점염된 탓일까. 라즐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를 꾹 참아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토록 서글플 수가 없었다.

“감히… 내가 감히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나로 인해 그 사람을 망칠 수 없으니까.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나의 한 순간의 선택으로 내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해선 안 돼. 불행해지고 말아… 또 다시… 내 어머니를 잃은 그때처럼! 난 선택할 수 없어! 난 그저 방관자여야 해… 그게 그 사람을… 루드비카를 위한 일이니까!”

제 심장을 몇 번이고 날카로운 얼음에 찌르고 찔러, 곪을 새도 없이 얼어붙게 만들었던가. 하지만 그토록 밀어냈음에도 돌아온 건, 그의 손짓과 지독한 사랑. 그리고 미련. 바보처럼 너무도 미련해 보일정도로 그는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자초할 지라도. 그런데 결국, 그는 정말로 죽음을 자초하려 하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 터무니없는 소원을 위해. 언제, 누구에게 죽을지 모를 피바다뿐인 전쟁터로 제 발로 들어가 그 승리를 붙잡고 소원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의 결심.

처음부터 마음을 줘서도, 결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었다. 너무나도 자신에겐 과분한 사람. 그 과분한 사람이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위해,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 죽음의 문턱으로 발을 들이려 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다. 그를 붙잡는 것이. 그의 손을 다시금 붙잡는 순간, 오히려 그 선택으로 또 다른 불행이 그에게 다가갈까 두려워 헤르세인은 끝내 루드비카를 잡을 수 없었다.

동 트기 전의 어스름한 새벽의 하늘. 위스턴 국왕의 소집으로 왕실의 정예 기사들은 물론, 귀족들의 사병까지 동원되어 제1부대와 2부대, 3부대까지 수백의 병력이 모여들었다. 모든 귀족들의 사병까지 모여 있기 때문에 라인하르트 가문의 사병 역시, 위스턴 국왕이 만든 부대에 들어가 병력을 충당했으며 그 부대들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클로드였다.

제1기사단의 소속인 클로드. 제1기사단을 말할 것 같으면 본래는 국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근위대나 다름없었지만, 현재는 왕국이 위급한 전쟁 상황이기에 위스턴 국왕은 소수의 제1기사단 소속의 기사들을 절반 남겨두고 나머지 기사들을 전부 전쟁의 병력으로 돌려 버렸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왕실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내린 명령.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였다. 위스턴 국왕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제1기사단의 기사들을 전부 정예 부대, 즉 제1부대로 최전선의 부대로 편성한 것은 물론, 그야말로 힘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편성이기에 귀족들의 반발은 상당했다. 하지만 모든 기사들을 제1부대에 넣어 최전선으로 보낸다면 왕성을 지킬 기사들은 없었고 만에 하나 몬테올 왕국의 병력이 왕성까지 침입한다면 그야말로 붕괴직전이기에 귀족들은 어떡해서든 위스턴 국왕의 행동을 막아야만 했다.

다행이도 윌리스 왕태자의 중재로 어느 정도 국왕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제1기사단의 전부가 아닌, 반절의 기사들은 최전선의 제1부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한 평생 전쟁 없이 쭉 평안히 살 것이라 생각했던 귀족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두려움을 떨게 되었는지 제 아무리 위스턴 국왕의 각 귀족들의 병력소집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귀족들은 절반 채 되지 않은 병력을 내어 줬을 뿐, 제 목숨을 살리고자, 가문을 살리고자 완전한 병력을 내어준 귀족들은 소수에 불가했다.

때문에 아무리 급히 병력을 모집한다 해도, 극히 미달되는 병력 소집에 위스턴 국왕은 끝내 강제징병이란 선포를 내리게 되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은 물론 성인 남성은 무조건적으로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길을 오르는 고요한 전쟁으로 향하는 길바닥. 군수물자를 나르는 수십 개의 수레 행렬과 갑옷을 단단히 입은 병사들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 서게 될, 루드비카 역시 갑옷을 갖춰 입고서 동기의 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향해 말을 타고 나아갔다.

최전방의 부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을 타고 단알에 도착한 제1부대는 준비는 끝나는 곧바로 적국의 병사와 칼을 맞대야 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 또는 서로가 살기 위해 휘두를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검 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루드비카는 살기 위해, 다시 돌아가기 위해 두 손 가득 피를 묻히며 전쟁터를 누비기 시작했다.

“저 놈을 죽여라!!”

“전방 아군은 회군하라!!”

“적진을 향해 돌격!!”

똑같은 명령이면서도 서로 다른 각기의 목소리가 엄중히 울려 퍼져 병사들의 움직임을 좌우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피 튀기는 전쟁이 이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까마득한 날짜. 그저 살고자, 그저 죽이고자 검을 휘두르며 또는 창을 휘두르며 물러서지 않는 피의 전쟁을 몰고 있었다.

이제는 썩은 시체 터가 되어버린 전쟁터. 한때는 사람의 흔적이 있던, 사람 냄새가 나던 초록의 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붉은 피와 붉은 불꽃. 그리고 검게 타올라 회색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황폐해진 땅이나 다름없었다. 나날이 갈수록 쌓이는 시체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곳.

하지만 이 전쟁만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몬테올 왕국과 달리, 급작스레 전쟁을 하게 된 사브레 왕국의 전력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제아무리 위스턴 국왕이 급히 병력을 소집하여 제1부대를 최정예 부대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기사들을 꾸렸다 해도, 제대로 준비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몬테올 왕국의 저력에 밀리는 것은 당연했다.

어느덧 루드비카가 전쟁에 참여한지도 열흘 째. 그동안 제1부대로 감당하지 못할 몬테올 왕국의 병력을 간신히 버텨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여전히 위스턴 국왕은 무슨 생각인지 계속해서 애꿎은 백성들을 강제로 병사로 만들어 마치, 인구수로 밀어붙이듯 막무가내 식의 명령을 내렸으며 그런 명령을 전달받아 다시 전쟁에서 지휘하는 클로드와 다른 지휘관들, 그리고 의외의 참여인 윌리스 왕태자까지 애를 써야 했다.

“왕태자 전하! 제발 폐하께 아뢰어주소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병력이 보내지는 건 저희에게 불리한 꼴입니다! 전쟁이 제아무리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전쟁이라 해도, 이렇게 무턱대고 검조차 잡아본 적 없는 백성들이 계속 온다면 저희들만 불리해진단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소! 허나 대체 폐하께 보낸 전갈만 몇 통이던가?! 수 십 번을 보냈음에도! 폐하께선 그저 되도 않는 밀어붙이라는 말 뿐이며! 이곳으로 오는 병사들! 아니, 강제로 병사가 된 백성들은 이젠 겁에 질려 진형을 망치고 있소! 내가 그것을 전부 모를 것이라 생각하나!?”

쾅, 소리를 내며 적군의 주둔지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흐트러지고 말았다. 무고한 백성들을 전쟁에 강제로 참전하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최선의 또는 최악의 선택임을 윌리스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검조차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그들은 둘째 치고 윌리스 역시, 이토록 막무가내로 명령을 내리는 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이 방법 밖에 없다는 듯이 자꾸만 병력으로 밀어붙이고자 백성들로 꾸려진 병력을 보내는 아버지의 행동에 윌리스의 신경은 극에 달할 때로 달했으며 결국, 이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

윌리스가 완전히 지휘소에서 나가버리자, 나머지 지휘관들과 기사들은 아직 매듭짓지 못한 또 다른 부대편성과 계획을 중단하며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자 모두가 어색히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섞여 있던 클로드 역시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자 지휘소에서 나와 편한 공기를 들이킬 수 있었다.

그때, 때마침 근처의 모닥불에 혼자 앉아 있던 루드비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질긴 육포를 뜯고 있을 동안, 상념에 빠져 있는지 루드비카는 모닥불에 홀로 앉아 미동조차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절로 작게 한숨이 나온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앉아 상념에 빠진 루드비카를 불렀다.

“루드비카.”

상념에 젖어 모닥불에 시선을 떼지 못하던 루드비카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멍하던 시야는 현실로 돌아와 근처에 앉는 클로드를 볼 수 있었다. 두 형제의 꼴이 말이 아니라 할 정도로 전쟁으로 인해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얼굴색이 피곤할 뿐, 차림새는 여전히 반듯하기에 그 누구도 두 형제를 전쟁에 지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형님.”

근처에 앉은 클로드를 흘끔 보다, 루드비카는 다시 모닥불에 시선을 주며 침묵을 고수했다. 처음엔 클로드가 왜 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루드비카는 의아했었다. 자신은 가문을 이을 후계자도 아니었으며 권력과도 거리가 먼 차남이기에 나름 이유가 된다지만, 클로드는 달랐다. 오랜 명문가로 자리 잡은 라인하르트 가문. 그리고 차기 후계자이자 후에 가문을 이끌 젊은 가주. 클로드는 가문을 이끌 후계자로 태어났으며, 그야말로 라인하르트 가문을 위해 태어난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 그것도 제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를 전쟁에 참여한다니. 그 생각을 읽었는지 단알의 땅에 도착하기 전, 함께 말을 타고 이동했던 루드비카는 클로드에게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왜 전쟁에 참여하는지 궁금한 눈치구나."

"형님께서 굳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후작각하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내 가문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자 아버지가 짊어진 짐을 이어받을 차기 가주이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네가 걱정되어 날 보냈다고 말하면 넌 믿을 수 있을까?"

"...예?"

당연 믿기지 않았다. 그 누구도 다름 아닌, 후작이 자신을 위해 제 형을 전쟁터에 내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른 것은 바로 자신이 라인하르트 가문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란 것이었다. 분명 그날 귓가에 똑똑히 듣지 않았던가. 자신은 더 이상, 라인하르트 가문의 일원이 아니란 것을. 그래서 이제는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가 아닌, 그저 ‘루드비카’로서 또한 소원을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다.

후회한다고 후작이 처음으로 속내를 표현했다. 또한 그 저택을 제 발로 나간 순간부터 그의 아들임을 포기했으며 후작 역시, 자신을 포기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가문도 권력도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작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의문은 클로드의 목소리에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아무리 네 스스로 가문을 나갔다 해도, 아버지께선 결국 너를 놓을 수 없던 거겠지. 너와 나,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자식이니까. 네 몸속에 흐르는 라인하르트 가의 피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그저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표현 방식일지도 모르겠지."

"표현 방식…."

여느 귀족의 아버지들처럼 루드비카는 아버지의 정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제 형인 클로드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찬바람이 불 듯 차갑고도 매정하기만 하던 사람. 때론 강압적이게 때론 지독한 권력욕 명예에 집착하듯 루드비카가 보는 후작의 모습은 그러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아들을 위해 그토록 매정히 내쳤음에도 또 다른 핏줄을 보내 제 자식을 지킨다?

클로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을 알아챘는지 클로드가 다시 말을 이어, 후작의 명을 받고 온 것만이 아님을 덧붙였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널 지키고자 온 것이 아니다. 루드비카. 적국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왕국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기사로서 그저 방관할 수 없는 법. 난,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을 이 땅을 지키고자 온 것이다."

역시, 기사들이 말하는 기사의 표본이자 라인하르트 가문을 이끌 차기 가주다운 말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불현 듯이 떠오른 루드비카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모닥불을 여전히 주시한 채로 클로드에게 물었다.

“형님.”

“그래, 루드비카.”

“후회되십니까? 이 전쟁터에 있는 이 순간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클로드는 이유를 궁금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할 것도 없이 클로드는 곧바로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여서 더욱 후회하지 않는다. 루드비카.”

“생각보다 낮 간지러운 말을 잘하시는군요. 형님은.”

오랜만에 피식 웃음이 나온 루드비카는 아주 작은 실소였으나 나쁘지 않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소가 오래 가기도 전에 곧바로 들리는 클로드의 질문에 루드비카의 입꼬리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루드비카. 너는 어떻지? 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후회 되는 것이냐?”

장난기조차 섞여있지 않은 진중한 눈이 루드비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루드비카는 미소 한 점 없는 가장 차분한 표정으로 입을 모아 대답했다.

“후회했다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녀를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않았을 테지요. 제 목숨이 다한다 해도, 저는 이 전쟁터에 있는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형님.”

“그래… 그거면 됐다. 흔들리지 말고 네 신념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라. 그리고 절대로 적국의 병사에게 등을 보이지 마. 이 전쟁터에서 나는 너의 등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클로드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듯 막사에서 떨어진 경계지에서 뿔 나팔을 부는 긴급 신호가 울려 퍼졌다. 다시금 몬테올 왕국의 병사들이 쳐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울리는 나팔 소리에 클로드와 루드비카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나갈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두 형제가 제1부대로 돌아가기 전,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어깨를 붙잡으며 단단히 일러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루드비카. 오늘도 꼭 살아남아라.”

“네, 형님.”

거대한 함성과 처절한 비명으로 다시금 시작된 칼부림. 여전히 우세한 쪽은 몬테올 왕국이었으나 무슨 일인지 이번에 다시 부대를 이끌고 싸움을 시작한 몬테올 왕국의 병력은 평소보다 수가 작았다. 하지만 적군이 바로 앞에서 검을 들고 설치는 이상 반드시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사브레 왕국의 진형 쪽에선 조금 의아히 여겼을 뿐, 바로 싸움이 시작 되었을 땐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적국의 병사들을 한발자국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 모두 죽여라!!”

지휘관들의 피 터지는 목소리에 병사들은 검과 방패, 또는 창을 들이밀며 적국의 병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우렁찬 함성소리는 철과 철끼리 부딪치면서 누군가의 숨이 끊어지는 비명소리가 시작되었고 그들 속에 루드비카는 검을 휘두르며 적국의 병사를 하나 둘씩 쓰러트렸다.

군사물자도 병력도 지원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다. 단지 예상치 못한 전쟁과 위스턴 국왕의 믿을 수 없는 판단으로 애꿎은 백성들이,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잡아 보지도 못한 검을 잡고서 적국의 병사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 살려 주세요….”

지레 겁을 먹은 사브레 왕국의 한 병사가 검을 쥔 손을 벌벌 떨며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적국의 병사에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나이는 어림잡아야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청년. 전쟁이 터지기 전, 그는 그저 평범히 한 가정집에서 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던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제 아무리 병력을 모집해도 그 수가 한참을 미달하자, 위스턴 국왕의 선택으로 그는 자신을 붙잡는 부모를 두고서 맞지 않는 갑옷과 익숙지 않은 날붙이를 들고서 전쟁터에 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검을 들이밀며 핏발 선 눈과 함께 다가오는 적국의 병사.

두려움에 무서움에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돌부리에 넘어지고 만, 그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목이나 배에 쓰라린 고통이 느껴지기는커녕 바로 근처에서 들리는 신음 소리에 그는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어야 했다.

“아...”

분명 적국의 병사가 검을 높게 세우고 자신을 향해 휘두르기 위한 자세를 취했지만, 검을 휘두르긴 커녕 입에서 터지는 붉은 피와 가슴팍 사이로 세어 나온 날카로운 날붙이의 모습에 그는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적국의 병사가 결국 옆으로 쓰러지는 동시에 익숙한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괜찮습니까?”

“…예?”

“검을 잠을 수 없거든 다친 아군의 병사들을 데리고 어서 막사로 돌아가세요. 계속 이곳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방해니까요.”

듣는 이에게 매정할 수밖에 없는 말일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 루드비카의 최대의 배려였다. 벌써 눈앞의 어린 청년처럼 지레 겁을 먹고 적국 병사들의 손에 죽을 뻔한 일반 병사가 몇이던가. 다행이도 그는 말을 빨리 알아듣는 이였는지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막사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루드비카는 대충 주변을 보다가 다시 검을 고쳐 잡고서 다시금 눈앞에 돌진하는 적국 병사를 쓰러트려야 했다.

“크으윽!”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 몬테올 왕국은 지칠 새도 없이 오늘따라 더욱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그렇게 피곤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며 적국의 병사를 계속 쓰러트리고 있을 쯤, 적국의 진형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무슨 일인지 잘 싸우다 갑자기 후퇴를 하는 적국의 모습에 지친 숨을 들이키던 루드비카는 등을 보이며 재빨리 적군 진형으로 돌아가는 몬테올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후퇴하는 그들의 모습에 루드비카 뿐만이 아닌 아군들도 의아한 눈을 하고 있을 쯤, 멀리서 왜인지 클로드가 소리쳤다.

“루드비카! 도망쳐!!”

도망치라니? 오히려 도망치는 것은 적국의 병사인데 왜 자신이 도망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루드비카는 멀리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치는 클로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형님. 대체 왜──.”

탕―!

말을 미처 끝맺기 전에 푹, 하고 무언가가 가슴 정중앙을 관통했다. 귓가에 또렷이 들린 무언가 단단히 박힌 소리의 원흉을 알고자 루드비카는 천천히 고개를 내려 자신의 가슴을 볼 수 있었다.

씨앗이 열매를 맺어 새싹을 피워 꽃을 피우듯 루드비카의 가슴을 관통한 무언가가 점점 고통을 새기며 붉은 꽃이 퍼져갔다. 하지만 꽃은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는지 한 줄기, 두 줄기가 되어 붉은 물이 세어나갔고, 더더욱 퍼져나가듯 루드비카의 입가에 핏물이 세어 나왔다.

“루드비카!!”

클로드를 부를 새도 없이 다시 한 번 들린 굉음소리가 이번엔 루드비카의 다리를 맞춰 균형을 무너트렸다. 다리를 관통한 무언가에 균형을 잃어 피로 적셔진 흙바닥에 무너져 내린 루드비카는 점점 헐떡여지는 숨을 들이키며 말을 타고서 제게 달려오는 클로드를 볼 수 있었다. 처음 보는 다급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오는 클로드.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달려오는 다른 방패를 든 기사들까지. 그런데 그 모습이 루드비카에게 너무나 느릿하게 보여 언제쯤 그들이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가늠되지 않았다.

또 다시 하늘을 울리는 굉음소리가 루드비카의 귀를 울렸다. 그러나 굉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루드비카는 두 눈 똑똑히 너무도 푸른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비명과 핏빛만이 가득한 지상과는 다른 푸른 하늘의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아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늘의 푸름을 잡고자 했다.

“…헤... 세….”

너무도 닮은 하늘의 푸름. 그녀는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에게 있어 그런 존재였다. 꼭 붙잡고 싶은 사람. 놓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여인.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토록 간절히 닿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루드비카의 손끝은 하늘의 푸름에 끝내 닿을 수 없었다.

천둥 번개와 유독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리던 어느 날. 헤르세인은 다짜고짜 자신을 찾아와 뺨을 내리친 케시아에게서 루드비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소식은 온전히 살아있는 소식이 아닌, 지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눈물처럼 그를 위해 슬퍼하는 죽음의 소식이었다.

“네가 죽인거야… 너만 아니었다면 루드비카는 그딴 전쟁터에 나갈 일도 없었고! 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참히 만들 일도 없었어! 너로 인해 모든 것이 잘못 되었어! 너의 존재로 네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은 죽어 버렸다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내리친 뺨도 쓰라렸지만, 케시아가 내리친 뺨의 고통은 그것보다 더한 아픔이었다. 아니, 뺨의 쓰라린 고통보다 제 손으로 죽인 심장이 더한 아픔을 느꼈다.

“살려내! 살려내라고! 그 사람을 살려내란 말이야!!”

털썩 주저앉아 울분을 토해내며 헤르세인의 치맛자락을 흔드는 케시아는 더 이상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다. 제 아무리 비틀린 사랑이라 할지라도 루드비카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케시아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케시아에게서 힘겹게 벗어난 헤르세인은 침실 밖을 빠져나가고자 뻣뻣한 두 다리를 움직였다.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케시아가 없는, 그 누구도 없는 장소에 남아 헤르세인은 아주 잠시만이라도 소리가 닿지 않는 장소에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제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헤르세인을 가만둘 수 없는지 분노와 울분으로 뒤섞인 케시아가 비명을 내지르며 헤르세인을 붙잡았다.

“어딜 가는 거야! 네가 죽여 놓고서 도망치는 거야!? 넌 절대로 못 도망쳐! 그를 살려낼 때까지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고!!”

“...”

도망? 그녀의 말처럼 도망칠 수 있었다면 아주 오래전에 도망쳤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말처럼 루드비카를 사지로 몰은 것은 자신이었다. 그를 붙잡을 수 있음에도 붙잡지 않은 건 자신이었고, 그와의 인연이 끝내 저주가 되어 죽음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이리와! 이리오지 못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케시아의 악에 받힌 목소리가 붙잡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제 마음처럼 텅 비어버린 복도를 한참이나 지나, 헤르세인은 궁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세차게 내리는 빗물과 마치 자신에게 벌을 내리듯 진노한 하늘은 천둥과 번개를 쉴 틈 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빗속을 걸으며 도착한 곳은 우연히도 처음 루드비카와 만났던 장소. 나무에서 떨어진 그를 보며 잠시 동안 여인으로 착각할 뻔한 첫 만남의 장소이자 인연이 시작된 과거 속의 장소이기도 했다.

“전하!”

헤르세인을 발견하고 때마침 뒤를 쫓아왔는지 라즐리가 놀란 목소리를 하며 다급히 다가갔지만, 라즐리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헤르세인은 빗물에 젖은 추억의 나무를 쓸어내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처음… 여기서 만났어, 그 사람을. 그리고 내게 그렇게 다가온 사람도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

고작 떨어진 귀걸이하나 찾아준 것에 보답을 하겠다며 이름을 알려 달라 청하던 한 남자.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도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의 시야에서도 사라지지도 잊혀 지지도 않았으며, 그깟 이름 하나 알고자 그는 갖은 노력을 다했다.

"실례지만, 이름!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귀걸이를 찾아주신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절 도와주신 분의 이름을 알아야 할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이 무척 궁금하네요. 어느 가문의 사람일지, 이름이 무엇일지. 당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진심입니다, 전 아가씨에게 반했습니다.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요, 내 모든 것을 전부 당신에게 줄만큼. 나에겐 이제 당신이 내 세상이고 내 전부니까."

루드비카와 만났던 지난 기억들이 봇물처럼 흘러넘쳤다. 첫 만남의 시작으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그의 마음이 진심이 되었으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자신까지. 그의 말처럼 그가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이 없이 살 수 없듯, 헤르세인 역시 루드비카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불리하던 자신의 조건들.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그가 있기에 헤르세인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 손을 먼저 놓아버린 건, 자신. 왕비의 죽음을 그녀의 숨겨진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깨닫고야 말았다. 자신은 영원히 루드비카의 곁에 있음을 수 없음을. 그의 손을 잡는 것조차 세상도 하늘도 원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면 화려하던 그의 모습은 점점 자신으로 인해 시들어가고 있었다.

또 다시 자신하나 때문에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손을 그렇게 매정히 놓아버렸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계속 불행해질 테니까. 자신하나 때문에 자꾸만 하나 둘씩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를 볼 때 마다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놓은 건데… 그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토록… 후회가 든 적이 없어…. 그때, 루카의 손을 잡을 걸… 가지 말라고… 그런 소원 빌지 않아도 되니까, 나 하나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내가 죽인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 내가 죽게 내버려 둔거야… 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결국 망쳐버리고 말았어...”

“전하...”

“난 저주 받은 거야. 처음부터 루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내 스스로 여길 나갔더라면… 루카가 죽을 일도… 내 어머니가 죽을 일 조차 없었을텐데… 난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태어나서도… 여기에 와서도 안 되었던 거야….”

처음 제 마음을 열게 해준 사람이자, 사랑이란 감정을 알게 해준 남자. 이보다 더 따뜻하고 온전히 자신을 받아주는 이는 루드비카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한 열병이자 첫 사랑이었다.

“루카...”

점점 아득해져만 가는 정신. 빗물이 또는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헤르세인은 옥죄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가쁜 숨을 토해내야 했다. 어떻게 호흡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숨이 꽉 막혀 헤르세인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그대로 쓰러졌다.

“전하! 헤르세인 왕녀전하!!”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갑작스럽게 종전된 전쟁.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하며 먼저 도발한 몬테올 왕국이었으나, 무슨 일인지 몬테올 왕국은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히 전쟁을 중단시켜 도망치듯 돌아가고 말았다. 사브레 왕국의 입장으로선 몬테올 왕국이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간 것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어찌됐든 몬테올 왕국은 먼저 전쟁을 시작한 적국임은 다름없었다. 더불어 몬테올 왕국으로 가장 극심한 손해를 입은 것 역시 사브레 왕국이며 단알의 땅은 그야말로 시체의 땅이라 불릴 만큼 황폐하기 짝이 없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났음에 누구보다 안도한 것은 사브레 왕국의 백성들이며 강제 참전 당하여 살아남은 젊은 청년들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연인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온전히 라인하르트 가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영혼조차 없는 빈껍데기가 되어 관속에 영원히 잠든 채, 루드비카는 후작의 곁에 도착해야 했다.

루드비카 뿐만이 아닌, 젊은 기사들의 목숨은 이미 전쟁터에서 숨을 거둔지 오래였다. 단지 루드비카의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직전 어떡해서든 동생을 살려 데려가겠다는 클로드의 고집에 루드비카의 육체는 수도까지 온전히 올 수 있었지만, 살아서 수도의 땅을 밟을 수는 없었다.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기사들과 병사들의 혼을 기르고자 3일간 진행된 추모식. 그리고 추모식이 끝난 뒤, 루드비카의 장례식이 다음날 진행 되었다.

유난히도 따사로운 날씨와 평화롭기 그지없는 청명한 날씨. 그러나 푸르른 하늘과 평화로워 보이는 세계는 어딘지 모르게 고요하며 바람들이 술렁였다.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날개 짓을 멈추고 배가 고픈지 신전 앞에 모여들었다. 신관들이 뿌려 놓은 모이들을 부리로 콕콕 쪼아 태평이 먹고 있을 즈음, 성스러운 신전의 내부에는 신관 목소리가 엄숙히 울려 퍼졌다.

단상 위로 놓아진 검은 관. 그 앞으로 기도문을 읽는 신관의 모습. 또, 신관과 떨어진 곳에는 빈자리 없이 자리에 참석해, 검은 상복을 입은 무수한 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죽은 이를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치러지는 신성한 기도. 그리고 성대한 장례식.

이 자리에 참석한 인물 중, 위스턴 국왕을 대신해 참석한 윌리스 왕태자가 있어, 이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어쩌면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 그리고 더 나아가 혼인을 하여 왕실의 또 다른 기반을 다질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를 루드비카. 그러나 그 기대는 루드비카의 죽음으로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 이것으로 죽음의 신, 모스테로스 신께 기도를 끝내며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을 때면 이제는 익숙한 하나의 관례처럼 죽음을 관장하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의식. 신들을 향한 문구가 새겨진 두꺼운 책을 덮으며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관의 퇴장과 함께,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긴 행렬이 시작 됐다. 검은 관 위로 눈처럼 쌓이는 새하얀 꽃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송이의 하얀 꽃을 나르며 긴 행렬은 끝나지 않았다.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멀찍이 떨어진 구석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그녀들은 사교계에서도 이름난 귀부인들. 그녀들의 슬픔조차 없는 작은 목소리가 하나둘 흘러나왔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써 죽다니… 참, 딱하기도 해라.”

검은 부채를 바짝 입가에 붙인 한 귀부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애도는커녕, 표정에는 슬픔의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뿐만이 아닌, 곁에 모여 있던 다른 귀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애도의 연기를 할뿐, 오히려 그녀들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다.

“저리 되지 않았더라면 폐하의 사위가 되었을 텐데… 참 기구한 운명이네요. 안타까워라.”

“그러게요. 하지만 라인하르트 가문에는 오랜 후계자인 장남이 있지 않나요? 애초에 국왕폐하께선 장남 쪽을 꽤 오랫동안 점찍어 두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화장기 하나 입술을 움직이며 그녀들의 입은 지치지 않았다. 그녀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왕실의 스캔들과 값비싼 드레스 콜렉션, 그리고 아름다운 장신구들. 이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떠들 수 있는 이야기 거리였다. 그럼에도 귀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를 새 없이 질리지 않을 왕실 스캔들이었다. 늘 사교계란 작은 왕국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지루한 일상만 사는 그녀들에겐 왕실 스캔들이야 말로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으니까요. 국왕폐하께선 처음부터 케시아 왕녀전하의 상대를 라인하르트 후작의 장남을 줄곧 염두하고 있었다고 저희 남편이 직접 말한걸요? 그렇지 않고서야 유독 국왕폐하께서 라인하르트 가문에 어마어마한 총애를 베푸셨을까요? 그리고 또, 제 남편의 말로는 국왕폐하께선 라인하르트 가문과 혼인을 맺어 왕권 강화까지 염두 해두고 있었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다음 차기 국왕은 윌리스 왕태자 전하께서 이어 받으실 테니 라인하르트 가문과의 혼인으로 그 힘을 왕태자 전하께 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겠죠.”

“확실히 라인하르트 가문과 혼인이 성사된다면 왕실의 혈통이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나올 테고, 윌리스 왕태자 전하께서 차기 국왕이 되시면 든든한 뒷배를 두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음을 지고 있었다. 이렇게 재미난 스캔들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그만 둘 수가 있을까. 작위를 가지고 매일 같이 왕성에 들어가 권력 전쟁을 하는 남편들과는 달리, 사교계에선 그녀들이 권력자이기도 했다. 누구보다도 남편들보다도 더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귀부인이란 위치. 그녀들은 아직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마침,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또 다른 목소리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케시아 왕녀전하께선 라인하르트 가의 차남 쪽을 줄곧 마음에 품고 계셨고, 전쟁이 끝나면 약혼식이 바로 진행될 거란 이야기가 나왔죠. 전쟁만 아니었다면 이미 약혼식을 치루 고도 남았다지만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엾은 왕녀전하.”

조용히 듣고 있던 대부분의 귀부인들은 동의 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일은 역시 한 치의 앞도 모른다고 왕녀와 약혼을 치룰 루드비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왕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귀족이자 고위 귀족에 속하는 라인하르트 가문. 특히나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잘 알려진 두 형제는 많은 이목을 받았다.

눈에 띌 만큼 훌륭한 외모를 자랑하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형제. 때문에 어린 공녀들 사이에선 두 형제들은 꿈같은 목표이자, 연인으로 삼고 싶은 특히나 차남인 루드비카에 대한 지지는 영애들 사이에선 치열할 정도였다. 하지만,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두 형제 중 한명인 루드비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곤 유일하게 살아 있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후계자이자 장남 클로드. 귀부인들은 다음 이야기 거리 목표를 그쪽으로 갈아탔는지 무서운 속도로 루드비카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다.

“어찌 됐든, 라인하르트 가문에서는 서둘러 장남 쪽을 차기 후작으로 세우겠네요. 그리고 아직은 이르겠지만, 그 약혼은 장남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차남의 죽음으로 약혼이 무효 됐지만, 처음부터 폐하께선 장남 쪽을 쭉 염두 해두고 계셨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조만간 왕실에서 라인하르트 가문의 장남과 케시아 왕녀전하의 혼인 이야기 다시 나오겠죠. 벌써부터 그때가 기대 되네요.”

그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래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드비카의 죽음으로 약혼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그 약혼은 다시 살아있는 클로드에게로 돌아갈 뿐. 여전히 라인하르트 가문에서도 왕실에서도 서로 이득인 셈 이었다. 왕실의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그 약혼을 물릴 일은 없을 것이 자명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상, 정략약혼이든 정략혼인이든 그것은 귀족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했으니까.

다른 부인이 심심하던 입을 열려던 찰나, 굳게 닫힌 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숙하던 실내의 공기가 누군가의 등장으로 단숨에 바뀌었다. 그 공기를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케시아 왕녀의 존재였다.

방금 전까지 귀부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 왕녀의 등장에 이미 장내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금빛의 머리칼을 아련히 휘날리며 검은 상복의 드레스를 입고 이곳에 도착한 케시아는 다급히 다리를 움직였다. 왕실 예법 따윈 이미 안중에도 없는 케시아는 허겁지겁 뛰어 관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행동에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혼자가 되었을 루드비카를 세상으로부터 떠나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이 관을 당장 열어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서 이관을 열어! 열라고! 열란 말이야!!”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시아의 모습에 모두가 동정을 표했다. 약혼은 물론, 혼인을 치룰 반려를 잃은 것이 아니던가. 더불어 케시아가 루드비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남다른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던 케시아는 이미 그들의 모습에 안중에도 없었다.

하염없이 두 눈에서 내리는 눈물. 이젠 관을 껴안다 시피 주저앉아 케시아는 통곡했다. 그리고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윌리스 왕태자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케시아 왕녀를 궁으로 데려가라.”

왕태자의 매서운 명령이 떨어지자 눈물만 흘리던 케시아는 기사들의 손을 뿌리치며 기어코 모두가 보는 앞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 손 놔! 놓지 못하겠느냐! 오라버니! 저 이렇게 못갑니다! 제 사람 여기 두고! 전 못 간단 말입니다! 오라버니!!”

“어서 왕녀를 데려가지 않고 뭣들 하는 것이냐!!”

“오라버니! 이거 놓으란 말이다! 놔! 오라버니! 전 루드비카를 두고 못 떠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발악하는 케시아의 모습을 윌리스는 끝내 외면했다. 오라비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다. 약혼의 전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의 순간들이 많았던가. 그러나 결국 인연이 아닌 것이었다. 기사들의 손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는 케시아의 모습을 보며, 윌리스는 얼른 상황을 마무리 짓고자 피곤한 얼굴을 억지로라도 펴야 했다.

얼굴을 피며 때마침 고개를 돌리니, 윌리스는 근처에 어두운 얼굴로 굳게 서 있는 라인하르트 후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후작의 곁으로 다가갔음에도 후작은 미동 없이 차가운 관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후작.”

“…예, 왕태자 전하.”

후작을 불렀음에도 윌리스는 막상 무슨 얘기를 꺼내야할지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후작의 시선을 따라 윌리스 역시 검게 칠해진 관을 보며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조금 떠올렸을 뿐이었다.

케시아가 사랑한 후작의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물론, 자신조차 그의 아들인 루드비카를 케시아의 짝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제 아무리 후작의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문을 잇고 권력을 쥘 수 있는 건 장남 뿐. 그래서 일까? 윌리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케시아의 짝으로 루드비카가 아닌, 클로드를 나름 편애하고 어울리는 짝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짝으로서 이뤄질 뻔한 이는 클로드가 아닌, 그의 동생인 루드비카. 케시아의 짝이 한낱 방랑한 사내인 것이, 검 하나 들지 못한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케시아가 그토록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도 인연도 여기까지였던 것이었다.

윌리스는 더 이상 이 관속에 잠든 이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언젠가 모두의 기억 속에 잊힐 귀족가의 사람 중 하나일 뿐. 지금 당장 윌리스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전쟁의 상흔을 없애는 것과 점점 의도를 알 수 없는 아버지를 말려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만 했다.

이번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전쟁이 끝났다하여 평화가 금방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왕성 밖의 백성의 민심은 급격히 나빠졌고, 일반 백성을 그것도 전쟁에 강제 참전시킨 국왕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번 달 안에 완전히 해결하기로 작정한 윌리스는 여기서 가만히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 귀족가의 공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시간은 더더욱 없었다.

윌리스는 하얀 꽃들이 수북이 쌓인 관 위에 똑같은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서 후작을 향해 심심한 조의를 건네며 등을 돌렸다.

“당분간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 푹 쉬어도 좋네. 전쟁으로 인해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만, 그대에게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신경써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왕태자전하.”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네.”

윌리스가 완전히 떠나고, 서서히 신전 안에 있는 귀족 모두가 떠나고 있음에도 후작은 오랫동안 제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한참동안이나 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후작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깊은 잠에 빠진 어린 아들을 어루만지듯 후작은 잘 짜여 진 칠흑의 관을 조심스럽게 또, 떨리는 손을 겨우 움직이며 쓰다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긴 꿈을 꾸게 된 자신의 아들 루드비카. 또한, 살아 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후작은 아린 눈을 감으며 못이 박힌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루드비카...”

루드비카의 장례식은 3일 동안 진행 되었다. 대체로 명문가의 고위귀족 일수록 장례식이 성대했으며 그 기간 역시 보통은 일주일을 잡고 장례식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막 전쟁이 끝나, 나라가 뒤숭숭한 탓에 후작은 3일간 진행토록 장례식의 기간을 짧게 잡았으며, 둘째 날이 돼서야 신관의 기도는 완전히 끝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라인하르트 가의 친인척들이 모인 것은 물론, 루드비카와 안면이 있거나 혹은 친했던 귀족들, 또한 오랫동안 알고지낸 로렌드까지 자리에 참석해 묘지로 옮겨지는 관을 볼 수 있었다. 제일 고른 땅에 흙을 파내어 관을 묻고, 다시 흙을 덮어 그 위에 비석을 새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침내 길고긴 장례식이 끝난 지금, 모두의 시선이 비석에 새겨진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며 그들은 묵념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이곳에 잠들다.』

루드비카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왕실의 사람 모두가 루드비카의 장례식에 한번쯤 참여를 하여 하얀 꽃을 올렸다지만, 헤르세인은 그 장례식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갈 수 없었다.

“누님. 누님…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누님!”

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그날 이후. 헤르세인은 완전히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거의 폐인이 되어버린 헤르세인의 모습을 보며 빈센트는 누이의 양 어깨를 붙잡고 울먹이며 흔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몇 번이고 부탁을 했던가.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이미 이 세상에 사라진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완전한 빈껍데기일 뿐, 헤르세인은 눈 한 번 깜박이지 않았다.

“누님! 누님!!”

“...”

몇 번을 불러도 대답 없는 누이의 모습. 빈센트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오늘도 아무 성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마음 같아선 줄곧 헤르세인의 곁에 있고 싶은 빈센트이나, 왕자란 위치로 인해 마음 놓고 이곳에 계속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왕권에는 거리가 먼 위치였으나 왕자로서 태어난 이상, 위스턴 국왕의 핏줄인 이상 왕자로서의 제왕 학은 필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다.

곧 다가올 공부 시간으로 인해 빈센트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완전히 자리를 떠나기 전, 때마침 저녁 식사를 가지고 돌아온 라즐리를 보며 빈센트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라즐리에게 단단히 부탁했다.

“라즐리, 내가 없는 동안 누님을 부탁할게.”

“예, 왕자전하. 제가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라즐리에게 누이를 부탁하고서 궁전 밖으로 나온 빈센트를 서둘러 움직였다. 어서 빨리 공부를 마칠 생각으로 뒤를 따르는 호위 기사를 재촉하며 움직였으나 얼마가지 않아 빈센트는 제자리에 멈춰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 빈센트 왕자전하 이십니까?”

“그대는 누구지? 누구 이길래, 함부로 내 누이의 궁전 근처에 있는 거지?”

헤르세인의 궁전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작은 정원의 근처에서 맴돌고 있던 수상한 이와 마주친 빈센트는 바짝 경계를 세워 그의 신원을 알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다행이도 상대방은 적의를 가지긴 커녕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단안경을 바로 고쳐 써, 자신을 소개했다.

“실례했습니다. 무례를 용서해주시길. 저는 아클레아 상단을 이끌고 있는 로렌드 그레이엄이라 합니다.”

“아클레아 상단? 로렌드 그레이엄?”

“예, 그리고 루드비카와 오랜 친우사이이기도 합니다.”

“라인하르트 공자… 말인가?”

어째서 그의 친우가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 친우가 왜 자신을 소개하는지 빈센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반대로 오랜 시간을 끌 생각이 없던 로렌드는 오랫동안 습관처럼 베인 시간 관념 때문인지 곧바로 품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어 빈센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걸,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빈센트가 로렌드에게서 받은 건, 헤르세인의 이름이 적힌 하얀 편지 봉투였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이가 다음에 이어진 로렌드의 목소리에 편지를 받은 빈센트의 손엔 작은 힘이 들어갔다.

“루드비카가 전쟁에 떠나기 전, 제게 맡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꼭 이 편지를 왕녀전하께 전해 달라 제게 부탁했습니다.”

“왜… 그대가 전해주지 않고 내게 이 편지를 부탁하는 거지?”

흐트러짐 없는 로렌드의 표정이 사뭇 놀란 얼굴을 하며 빈센트의 푸른 눈과 마주쳤다. 설마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쩌면 당연한 호기심인지도 몰랐다. 로렌드는 단안경을 바로 고쳐 쓰며 대답했다.

“왕실 곳곳에 헤르세인 왕녀전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왕자전하. 정말로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선 몸이 불편하신 겁니까?”

빈센트는 단번에 로렌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다. 안 그래도 시녀나 하녀들 사이에서 헤르세인에 관한 소문이 더더욱 안 좋게 퍼져가고 있었다. 실성을 했다거나, 또는 미쳐버렸다거나. 그토록 누이의 궁전 주변을 지나가는 시녀들과 하녀들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워낙 가벼운 입을 가진 그들을 완벽히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빈센트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로렌드는 역시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말을 이어갔다.

“그럼 더더욱 제가 그 편지를 전해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숙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루드비카와 왕녀전하.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은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인 저를 본다면, 제 손으로 전해진 루드비카의 편지를 왕녀전하께서 받으신다면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군. 알겠네. 여기까지 이 편지를 전해주러 와줘서 고맙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반듯하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로렌드의 모습을 보다가, 빈센트는 서둘러 편지를 소중히 잡고서 다시 헤르세인이 있는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왕자전하?”

헤르세인을 보살피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온 빈센트의 모습에 라즐리가 놀란 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빈센트는 혼이 빠져나간 헤르세인을 보며 라즐리에게 그리고 호위기사에게 부탁했다.

“잠시 너희들은 나가 있어줄래? 누님께 중요한 말이 있어.”

빈센트의 정중하고도 차분한 부탁의 목소리에 라즐리는 잡고 있던 물수건을 내려놓고서 서둘러 호위기사의 뒤를 따라 침실 밖으로 나갔다. 단지 하녀와 호위기사 한명이 나갔을 뿐인데 유독 싸늘하고 넓어보이는 침실의 찬 기운에 빈센트는 오소소 떨렸지만, 이내 결심어린 눈으로 헤르세인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누이를 불렀다.

“누님.”

“...”

“누님, 지금 제가 누굴 만나고 온지 아세요?”

“...”

“라인하르트 공자의 친우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가 그러더군요. 그의 오랜 친우라고. 아클레아 상단의 로렌드 그레이엄이라 하더군요.”

그때, 빈센트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혼이 빠져나간 빈껍데기인 누이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있었음을. 빈센트는 그 동요를 희망적으로 보며 편지를 잡고 있는 제 손을 보았다.

‘이 편지가 누님을 원래대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어. 나 역시 누님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이 편지가 불운이 아닌, 누이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며 빈센트는 헤르세인의 손에 편지를 넘겨주었다.

“누님, 보세요. 편지에요. 라인하르트 공자가 죽기 전, 친우에게 부탁한 편지라고 합니다. 누님에게 전해질 공자의 편지에요.”

“…편…지…?”

“네! 편지요! 누님을 위해 공자가 쓴 편지에요!!”

빈센트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던 누이가, 죽은 인형의 눈이나 다름없던 누이의 눈동자가 사람처럼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던 두 눈동자가 점점 편지를 의식하고 있는지 파르르 흔들리며 이내 눈물 한 방울이 편지 봉투위로 툭 떨어졌다.

“…루카가… 내게 남긴… 편지….”

힘없는 가는 손을 움직여 간신히 편지 봉투를 뒤집을 수 있던 헤르세인은 봉투 밑으로 간결하게 써있는 익숙한 이름을 볼 수 있었다. 틀림없는 그의 글씨체.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을지 모를 그의 감정들이 자신의 이름에 전부 담겨 있었다.

『헤르세인 에게.』

“…헤르…세인… 에게...”

편지 봉투를 열어 제일먼저 편지지에 적힌 구절은 그의 애틋함이 담겨 있는 인사였다.

『나의 연인 헤세에게.』

그리고 그가 자신을 만나러 왔던 마지막 날. 그때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이 편지지란 백지 종이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

『헤세. 지금 쯤 당신이 이 편지를 보고 있을 때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요. 이 편지를 보고 있을 지금의 당신은 저로 인해 그 여린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내 죽음으로 당신은 아프고 고통스럽나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에게 큰 고통을 남겨서. 미안해요. 나 하나 때문에 몇 번이고 당신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헤세.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밤을 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유언 같은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저는 흔들리고 있지요.

제가 어리석어 보이나요? 하지만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아요. 헤세, 당신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리석음 따위 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제 말 믿어줄래요? 전쟁에 나가는 건 무섭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니까. 당신이 살아 숨 쉴 이 땅을 지켜내고자 검을 드는 거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바로 내 자신의 죽음. 당신을 그곳에 두고, 당신을 그렇게 외로이 홀로 두고서, 그 전쟁터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까봐… 그것이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헤세… 당신이 나를 계속 밀어내는 것… 나는 그것이 가장 죽음만큼이나 무서워요.』

“…루카….”

편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헤르세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끊임없이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글씨 하나하나를 전부 두 눈에 세기며, 한자 한자씩 글씨를 읽을 때마다 헤르세인은 이 편지의 끝을 보고 싶지 않았다.

『헤세.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왜 그토록 나를 밀어내는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고통스럽고 이토록 내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당신의 차가운 손짓하나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당신의 차가운 눈짓 한 번에 내 심장은 너무도 고통스럽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더더욱 나를 떨어트리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내가 이토록 아픔에도 오히려 나는 당신이 더욱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헤세… 만약, 아주 만약에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아프지 말아요. 나로 인해 아플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없는 나에 대한 미련도, 사랑도, 모든 감정도, 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더 이상, 당신이 나 하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헤세… 나의 단 하나 뿐인 주군이자 내 연인, 나의 헤르세인.

헤세.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 당신과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날의 기억을. 내 생에 있어,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자 그보다 더 최고의 날은 없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의 곁에 평생 있고 싶던 내 마음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고 당신에게 내 감정을 고백한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루카...”

어느덧 헤르세인의 손에 마지막 편지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이 이상, 헤르세인은 읽을 자신이 없었다. 마지막 한 장의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죽음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아직도 이 가슴속에 루드비카를 향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그의 죽음을 헤르세인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헤세, 나의 푸른 꽃이자 내 모든 것을 받쳐 사랑한 나의 연인 헤세….』

결국, 그 구절 한마디를 볼 수밖에 없던 헤르세인은 소리 없는 통곡을 터트리며 마지막 한 장의 글을 구슬피 읽어 내려갔다.

『헤세, 당신을 만나 한 순간, 한 순간이 행복했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고귀한 푸른 꽃, 헤르세인.』

더 이상, 온전한 정신으로 헤르세인은 버텨낼 수 없었다. 편지지를 손에 꽉 쥐고서 제자리에서 일어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찾아가고자 맨발로 침실 밖을 뛰쳐나가려 했다.

“루카! 루카!!”

“누님! 안 돼요! 누님!!”

현실을 잃어버린 눈동자. 빈센트는 그것을 단숨에 알아챘는지 무턱대고 바깥으로 루드비카를 찾으러 나가려는 헤르세인을 온몸으로 가로 막아야 했다.

“누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봐야해… 내 두 눈으로! 이 편지가 전부 거짓이고! 루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해!!”

“누님! 제발…!”

작은 빈센트의 품에 매달려 헤르세인은 손을 허우적이며 안간힘을 썼다. 바로 두 눈앞에는 그녀가 나갈 수 있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곧장 닿을 수 있는 짧은 거리 임에도 헤르세인의 손은 문고리조차 끝내 닿을 수 없었다.

“가야해, 루카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해야 해, 그리고 사과해야만 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내가... 잘못 했...”

점점 기울어지는 무거운 몸.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헤르세인은 빈센트의 품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다급히 누이를 부르는 빈센트의 목소리가 침실을 쩌렁쩌렁 울렸음에도 헤르세인의 눈가는 여전히 눈물을 고이 흘러내린 채, 눈을 뜨지 못했다.

거의 잊고 살던 과거의 기억들이 헤르세인의 눈앞에 스쳐갔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완전한 꿈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동안 슬럼가에서 악착같이 살던 자신의 과거가 비치자, 헤르세인은 비쩍 말라 독기만 가득한 제 모습을 그저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았다.

먹을 것, 조차 없어 슬럼가를 들린 상인들이 내다버린 음식물을 주워 먹으며 비참히 살던 시절. 하지만 살기 위해선 그것이 독이든 무엇이든 뱃속에 무작정 집어넣어야 했기 때문에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과거의 기억이 또 다시 헤르세인을 지나쳐, 이번엔 왕성으로 들어왔던 자신의 첫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응하긴 커녕 바짝 경계를 세워, 맞지도 않는 옷을 입어야 했던 그때의 모습. 분명 원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때의 자신은 그저 왕비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넣어지지도 않던 공부를 해야만 했다.

또 다시 기억이 좀 더 지나, 헤르세인은 어느덧 왕성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왕성의 연회에 처음 참석해, 처음으로 루드비카를 만났던 자신의 모습을 헤르세인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일을, 미래를 모른 채 그가 떨어트린 귀걸이를 주워 올린 제 자신. 할 수만 있다면 헤르세인은 그 귀걸이를 당장 손에서 버리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에 과거의 기억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은 철저한 방관자에 불과한지 헤르세인은 제 자신을 말리기도 전에 또 다시 넘어가는 기억에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다.

“그만, 그만해! 그만 보여 달라고!!”

점점 루드비카와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그를 향한 감정이, 그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의 얼굴이 행복해 할수록, 헤르세인은 바로 두 눈앞에서 지켜볼 자신이 없었다.

그때, 헤르세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꿈속에 닿았는지 점점 눈앞의 배경이 유리처럼 금이 가더니, 파편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과거의 기억들은 한 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완전히 사라진 꿈속의 과거의 기억들. 그러나 헤르세인이 서 있는 장소만은 왕성의 그대로인지, 왕성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던 낮선 장소에 헤르세인은 서 있었다.

“여긴...”

분명 익숙한 왕성임은 틀림없을 텐데, 묘하게도 이질적인 느낌에 헤르세인은 벗어나고자 이제 막 한걸음 발을 떼려던 찰나였다.

“나비?”

어디서 날아왔는지 보석처럼 푸른빛 날개 자태를 뽐내는 나비가 헤르세인의 주변에 맴돌았다. 아주 잠시 동안 헤르세인의 주변에 맴돌던 나비가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처럼 자잘한 푸른 가루를 흩날리며 한 방향으로 날아가자, 헤르세인은 자연스럽게 나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나비의 뒤를 쫓을수록 헤르세인은 점점 주변의 배경이 바뀌고, 벽돌 길이었던 바닥은 어느새 발목까지 닿는 녹음의 잔디밭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비를 따라 더더욱 깊숙이 나아갈수록 녹음의 잔디밭은 서서히 푸른 꽃잎들로 가득한 꽃밭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잘 날아가고 있던 나비가 어느새 제자리에 멈춰 작은 날개 짓을 하더니 천천히 푸른 꽃잎 아래에 내려 앉아 쉬고 있자, 나비의 곁으로 다가가려던 헤르세인은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꽃바람에 잠시 눈을 감은 채,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려야 했다.

서서히 바람이 멎어가고 풀잎을 사근거리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리자 헤르세인은 천천히 눈을 떠 푸른 나비를 찾고자 고개를 들어올렸다.

“루카...?”

푸른 나비 대신, 헤르세인의 시선에 닿은 그곳엔 하나의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만개한 루드비카가 붉은 머리칼을 잔잔한 바람에 흩날리며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정말로… 당신 인거야? 정말로… 루카… 당신 인거야?”

이곳이 꿈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제 눈앞에 있는 루드비카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꿈임에도 그는 살아있는 현실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가고자 한발자국, 거리를 좁히려 할 때였다.

“안 돼요, 헤세. 내 곁으로 다가오면.”

“...왜? 어째서 다가갈 수 없는데? 바로 눈앞에 당신이 있잖아.”

헤르세인은 당장에라도 루드비카의 곁에 다가가고 싶었다. 그러나 루드비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기를 바랐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죽음의 경계선. 아무리 꿈속이라도 살아있는 헤세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제 곁으로 오면 안 돼요.”

“정말로… 당신은 죽은 거야? 정말로, 당신은 살아 숨 쉬고 있지 않은 거야?”

손톱이 박히도록, 아랫입술이 찢어질 만큼 입술을 깨물며 헤르세인은 겨우 용기를 내어 말 할 수 있었다. 그러자 루드비카는 가장 아프게 미소를 그리며 오히려 미안함이 가득 담긴 사과를 건넸다.

“미안해요. 살아서 당신의 곁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두고 나 혼자 떠나와서.”

왜 그가 되레 자신에게 사과 한단 말인가.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그에게 매정하게 군것도, 그토록 차갑게 밀어낸 것도, 그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도 전부 자신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향한 감정을 놓지 않았을 뿐인데, 이토록 못난 자신에게 사과라니.

또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토록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는 루드비카 뿐일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그를 향한 감정을 제 자신도 끝까지 놓을 수 없던 것일지도 몰랐다.

“왜 내게 사과하는 거야. 당신은 잘못한 거 없잖아. 오히려 당신에게 사과할 사람은 나야. 내가 당신을 밀어내지만 않았으면,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 당신이 그렇게 죽을 이유도 없었어!”

“...헤세.”

“내 감정을 죽이고, 당신을 밀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어. 나와 계속 함께 있으면 당신까지 불행할거라 생각했으니까. 결국 나 하나 때문에 어머니께선 돌아가셨어. 내가 있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께선 살아계셨을 분이었어.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 더 이상 나로 인해 당신까지 어머니처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밀어냈고… 당신이 나를 향해 처절히 울부짖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나는 외면해야 했어! 전부 당신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내 곁에 있으면 당신마저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가 불행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가 제 자신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밀어냈다. 그러나 한번 제 손을 잡은 불행한 저주가 옮겨간 탓일까. 그는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선택으로 죽음까지 옮겨가고 말았다. 헤르세인은 두 손 가득 눈물로 뒤덮인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나로 인해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어서. 미안해, 당신을 밀어내서…. 미안해, 당신을 죽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서 미안해….”

백번, 천 번을 뱉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말들. 설령 그에게 닿지 않을지라도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헤세. 미안해하지 말아줘요. 당신의 눈에 눈물을 보고자, 당신의 미안한 말을 듣고자 이곳에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 헤세, 이제 고개를 들고 나를 봐줄래요?”

애절함이 가득 담긴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두 손을 떼어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의 눈동자. 비록 그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마주친 루드비카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슬피 젖어 있었다.

“헤세, 비록 살아서 당신의 곁에 가지 못했지만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줄래요?”

“…소원?”

“네, 소원. 헤세, 당신 밖에 들어줄 수 없는 소원.”

아련히 미소를 품은 루드비카는 살짝 허리를 숙여 곳곳에 퍼진 푸른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리고 꺾은 푸른 한 송이의 꽃을 공중위로 가볍게 놓아버리자 주변의 바람이 움직이며 루드비카가 손에서 놓은 푸른 한 송이의 꽃이 바람을 타고 어느덧 헤르세인의 두 손위에 떨어졌다.

“이건...”

“헤세, 이 지금 당신과 내가 서 있는 이 꽃들이 어떤 꽃인지 알고 있나요? 처음으로 당신에게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 선물한 물망초. 그리고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헤세, 아주 가끔이라도 좋아요. 영원히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했음을 잊지 말아줘요.”

“…루카. 가, 가지마. 어디로 가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그가 점점 멀어져 갔다. 자신의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는 소원과 함께 루드비카가 점점 눈앞에서 멀어져만 갔다. 헤르세인은 물망초를 꼭 쥐고서 어떡해서든 루드비카를 붙잡고자 푸른 꽃들을 헤치며 쉼 없이 뛰어갔다.

“루카! 루카!! 가지마! 내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밀어내지 않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 제발! 내 곁을 떠나지마! 루카! 루카!!”

손을 쭉 뻗었다. 분명 그의 옷자락이 손끝에 바짝 닿을 거리임이 분명함에도 바람이 거부하듯, 그의 옷깃조차 닿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지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잡을 수 없었다.

“루카! 루카!!”

악착같이 이를 악물며 헤르세인은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리고 아슬아슬 닿지 않는 거리를 좁혀 드디어 루드비카의 옷깃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옷깃이 손끝에 닿는 순간, 루드비카는 붉은 꽃잎의 무수한 바람이 되어 헤르세인의 손에 빠져나갔다.

“루카!!”

그의 붉은 꽃잎이 완전히 손에서 빠져나간 순간,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갇혀 있던 꿈속에서 나와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창밖을 보니, 이미 새벽의 밤인지 어스름한 차가운 달이 어둑한 침실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꿈이 아닌, 현실에 눈을 뜬 순간 헤르세인은 파도처럼 몰아치는 이별의 슬픔에 두 손 가득 심장이 있는 가슴을 움켜쥐며, 이제 얼굴을 보며 부를 수 없는 그의 이름만을 몇 번이고 되새기듯 부르고, 또 불러야만 했다.

“…루카… 루드비카….”

헤르세인은 그때 눈치 채지 못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침대 머리맡에 꿈속의 흔적이 담긴 붉은 꽃잎과 푸른 꽃잎이 흩어져 있었음을….

태양이 내리쬐는 따사로운 날. 낡은 마차가 신전의 입구 앞에 멈췄다. 그 낡은 마차 안에 검은 로브를 뒤집어 쓴 두 명의 사람이 마차 문을 열고 나오자, 그 두 사람 중 한명이 마부에게 또 다른 선불을 지불하며 부탁했다.

“일을 마치고 바로 돌아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만 주신다면 후불도 더 드리겠어요.”

마부로선 나름 수입이 짭짤한지 고개를 끄덕이곤 쉴 장소를 찾아 마차를 끌고 근처의 쉼터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선불을 지급한 한 사람이 고개를 제자리에 돌리자, 이미 앞장서서 가고 있는지 일행은 빠르게 신전을 지나쳐 묘비들이 있는 묘지로 향하고 있었다.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모습을 지닌 신전과 달리, 한 낮임에도 으스스한 모습을 보이는 묘지의 모습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묘지 곳곳에 퍼진 수 십, 수 백 개의 묘비들을 지나쳐 한참 동안, 누군가의 묘비를 찾던 누군가가 드디어 발걸음을 멈추고 익숙한 이름이 적힌 묘비를 찾을 수 있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이곳에 잠들다.』

드디어 그토록 찾던 묘비의 주인. 그 익숙한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자, 한동안 로브를 쓰고 있던 이는 한동안 멍하니 묘비에 새겨진 이름만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쫓아온 일행의 목소리에 로브에 가려진 이는 이윽고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을 태양 아래에 드러내야 했다.

“왕녀전하.”

로브 속에 얼굴을 감추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헤르세인. 헤르세인은 라즐리와 함께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루드비카가 잠든 묘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헤르세인이 얼굴을 감추고 있던 로브를 벗어내자, 라즐리는 재빨리 자신이 들고 있던 푸른 꽃다발을 헤르세인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여기 준비한 꽃다발입니다. 어서 받으세요.”

라즐리에게서 꽃다발을 받아든 헤르세인은 잠시 동안 푸른 꽃다발에서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죽은 이를 위한 하얀 국화꽃이 아닌, 푸른 꽃의 물망초. 한참이나 물망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헤르세인은 여전히 꽃다발에 시선을 준 채, 라즐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라즐리, 잠시만 혼자 있고 싶어.”

“네, 그럼 저는 잠시 떨어져 있을 테니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라즐리가 헤르세인을 위해 한참 멀리 떨어져 있자, 어느덧 혼자가 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묘비에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푸른 꽃다발을 정중히 내려놓았다. 생기도 빛도, 사막처럼 메말라 가던 헤르세인의 눈동자는 여전히 어두운 음영이 비치고 있었다. 빛을 잃은 그 어두운 눈동자로 묘비에 새겨진 루드비카의 이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헤르세인은 굳게 다물려 있던 메마른 입술을 열어 속삭이듯 나직이 움직였다.

“내가 너무 늦었지? 루카.”

허리를 숙여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하나, 하나 손끝에 새기듯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헤르세인의 손끝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루카… 당신을 죽게 한 나를… 용서하지 말아줘. 차가운 땅속에 잠들게 한 나를 원망해 줘.”

묘비를 어루만지던 헤르세인의 손끝은 어느새 작게 경련을 떨고 있었다. 이곳까지 오기에 헤르세인은 결심을 서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꿈에서, 환상처럼 루드비카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잊지 말아 달라 했으나, 막상 현실에 눈을 떠 그가 잠든 묘비를 덜컥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환상일지 모를 그 꿈이 그저 자신이 바란 꿈일 것 같아서. 오히려 루드비카는 제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헤르세인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망설임은 없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건, 그의 죽음이었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틀림없는 자신의 탓이었으니까.

툭.

푸른 꽃잎 위로 차갑고도 뜨거운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은 헤르세인의 눈가에서 떨어진 단 한 방울의 깊은 눈물. 그러나 언제나 마를 리 없던 헤르세인의 눈가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겨울처럼 얼어갔다. 깊은 심해처럼 점점 차분해지는 감정을 따라, 눈물도 이제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을 깊은 심연 속에 전부 묻은 헤르세인은 입술을 움직였다.

“꿈에서 당신이 내게 한말 기억해? 이 꽃의 꽃말처럼 당신이 말했지. 당신의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당신의 유일한 소원….”

손끝으로 살며시 푸른 꽃잎을 어루만지던 헤르세인은 무겁게 손을 떼며 이내 주먹을 그러쥐었다. 그것은 분노도 어떤 감정으로 인해 솟아오른 행동이 아닌 마음을 다 잡은 결의였다.

“이 꽃의 꽃말처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 내 속죄이자 당신이 내게 바란 소원이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일지도 몰라….”

목구멍에 무언가 단단히 막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맺기가 힘들었다. 그렇게나 감정을 묻어 두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식이라니. 헤르세인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숨을 뱉어내며 눈동자를 움직였다. 시선이 닿은 푸른 꽃다발. 그리고 꽃다발 속에 풍성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던 푸른 꽃잎의 물망초.

아주 오래전, 꽃집의 주인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연인들 혹은 수많은 시련으로 헤어짐을 택할 수밖에 없던 연인들이 주고받은 증표이자 영원한 속박의 꽃. 그리고 잔인한 꽃이자 비극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물망초.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은 이미 헤르세인에게 오고야 말았다.

“루카.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던 헤르세인은 오직 루드비카에게만 보여주었던 옅은 미소를 그리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하지만, 루카. 당신은 날 잊어줘. 당신이 있는 하늘에서도. 다음 생에 태어나, 나 같은 사람이 아닌 모두가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을 찾아. 힘든 사랑도 하지 말고, 사랑 때문에 가슴아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인연을….”

비석에서 천천히 손을 뗀 헤르세인은 다시 얼굴을 가리고자 목 뒤로 넘겨진 로브를 뒤집어썼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 무슨 표정을 짓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전부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입술을 움직이다, 이내 결심을 뱉어냈다.

“나는 이제 곧,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일으킬 지도 몰라.”

만약 이 자리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작은 바람소리만 고요한 이 묘지에는 아무도 헤르세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줄곧 감춰왔던 복수심에 가득 찬 헤르세인의 차가운 목소리만 나직이 울렸다.

“이제 나는 멍청이 마냥, 바보마냥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손가락질 따위 받는 건 지쳐버렸으니까. 굴욕도, 증오도, 원망도, 분노도, 모조리 끌어 모아 설령 내 손이 피로 더럽혀진다 해도, 이젠 당신이 아는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예전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오히려 슬럼가에서 처절히 살았던 그때보다 더욱 독하게 변해야만 했다. 그리고 복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에게서 유일한 사랑마저 모든 것을 빼앗은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이면서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일지도 몰랐다. 또, 어쩌면 그의 죽음이 이런 결심의 세우게 된 계기 일수도 있었다.

처음엔 복수 따위 아무래도 좋았다. 제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어버렸거늘 무슨 낮 짝으로 복수의 감정 따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결심을 찾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빈센트였다.

루드비카를 꿈에서 만난 이후에도 헤르세인은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빈센트가 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처절히 부탁한 적은 없었다.

"누님, 차라리 복수를 하세요. 누님을 이렇게 만든, 귀족들도 케시아 왕녀전하도, 왕후폐하에게도 전부! 미워하고 화를 내세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 아무리 얼음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누님이 이렇게 인형처럼 감정 없는 것보다 저를 미워했던 그때가 더 나았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건가요? 그러니 누님 제발… 예전처럼 돌아와 주세요. 제발…."

어린마음에 뱉어내선 안 될 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빈센트에겐 절실했고, 빈센트에게 있어서 자신은 피가 이어진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린 동생의 절실한 부탁이, 헤르세인에게 하나의 동아줄이 되었다. 온통 썩은 동아줄 밖에 없던 자신의 주변에 빈센트의 그 말이 동아줄이 내려와 그것을 잡게 만들었고, 헤르세인은 드디어 완전한 정신으로 현실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가슴을 서서히 타고 오르는 분노. 왜 자신만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하는지, 왜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이 미웠고 세상모두가 증오스러웠다. 또한 자신과 루드비카를 떨어트린 케시아 왕녀도, 어머니를 죽게 한 왕후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버지를 죽게 한 국왕이 증오스러웠다.

복수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울 수 없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단숨에 변화시켜버리는 감정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헤르세인에게 있어 복수의 감정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자, 살아 숨쉬기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하는 동아줄이었다. 그리고 변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결국 그들. 이제 망설임 따윈 없었다.

댕─ 댕─ 댕─

묘지와 가까운 근처에 있던 신전 쪽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댕, 울리는 종소리가 마치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아 헤르세인은 더 이상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헤르세인은 굽히고 있던 무릎을 세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뒤를 돌아 묘비에서 한 발자국 더 멀어졌을 때, 헤르세인은 입술을 열어 루드비카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한 내 마음은 여기에 두고 갈게. 그러니 루카… 당신은 부디 날 잊고 편히 눈을 감기를…. 나의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리고 나의 연인. 루드비카.”

사랑했던 이를 위한 존중이 담긴 마지막 작별 인사. 이제는 두 번 다시 부를 수 없는 그의 이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의 모습. 아아, 이 얼마나 이토록 아리고 애달플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이별 속에 헤르세인이 미처 말하지 못한 다짐이 있었다. 이곳을 찾지 않으리라. 이곳을 찾게 된다면 겨우 다진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한발자국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이며, 헤르세인은 묘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거대하게 울리던 종소리는 헤르세인이 떠난 시간과 함께 멈추어 버렸다.